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95-01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2년 묶음집

"월간 웹진 형태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콘텐츠별로 묶어 수록"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2년 묶음집

"월간 웹진 형태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콘텐츠별로 묶어 수록"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들어가기에 앞서....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2005년부터 기업 윤리경영 국내외 동향, 행사, 전문자료 등을 웹진 형태로 제작하여 공·사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기업윤리 브리프스」 활용 편의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웹진을 책자로 제작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2012년에 발간된 주요 내용을 아래 콘텐츠별로 편집하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가 칼럼/인터뷰 : 우수기업사례 인터뷰/ 주제에 대한 전문가 칼럼
- 보고서·서적 리뷰 :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윤리경영 트랜드 : 주제에 맞춰 관련 윤리경영 트랜드, 변천사에 대해 소개
- 지식노트 : 매월 주제와 관련한 개념 및 배경 지식, 정보 제공
-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 : 윤리와 관련한 최신 국내외 동향 전달
- 국내외 윤리경영 행사 : 윤리, 지속경영 등과 관련한 국내외 행사
- 윤리경영 100문 100답 :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웹툰 'Yes준법! Ok윤리!' : 준법 및 윤리에 대한 만화
- 신간서적 소개 : 기업윤리, 반부패, 지속경영에 대해 새로나온 책 소개

※ 이 책자는 2012.11.30. 발송본(10호)까지 콘텐츠별로 합본한 것임.

차 례

웹진 표지

전문가 칼럼 · 인터뷰

칼 럼

- 2012년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 ····· 3
- 5년 후의 노는 물을 바꾸고 싶은가? ····· 5
-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 7
- 달릴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자동차는 미션 임파서블? ····· 9
- 사회적 책임과 인권 ····· 11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전략적 접근 ····· 13

인터뷰

- 듀폰코리아 ····· 15
- SK텔레콤 ····· 19
- 아모레퍼시픽 ····· 25
- 유한킴벌리 ····· 31
- 한미글로벌 ····· 36
- LG전자 ····· 42
-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 47
- 포스코건설 ····· 50

보고서 · 서적 리뷰

- 기업 국제 시민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기업사례) ····· 57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 관리자의 역할 ····· 6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 ····· 66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성공을 위한 원칙) ····· 72
- 소비주의를 알아야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다! ····· 78

윤리경영 트랜드

- 제 1 호 - 기업의 국제 시민화의 변천사 ····· 89
- 제 2 호 - 윤리경영과 CEO의 긍정적 상관관계 ····· 92
- 제 3 호 - 국내 동반성장의 흐름 ····· 95
- 제 4 호 - 과거의 이해관계자, 오늘의 이해관계자 ····· 101
- 제 5 호 - 반부패라운드의 역사와 동향 ····· 105
- 제 6 호 - 착한 여행을 떠나다 ····· 108
- 제 7 호 - 공정무역의 도시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 112
- 제 8 호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 감축 사례 ····· 116
- 제 9 호 - 인권경영의 역사와 발자취 ····· 120
- 제10호 - 2012년 윤리경영 평가 ····· 124

지식노트

- 제 1 호 - 기업의 국제 시민화에 대하여 ····· 131
- 제 2 호 - 최고 경영자에서 최고 윤리 책임자로 거듭나다 ····· 134
- 제 3 호 - 동반성장지수 ····· 137
- 제 4 호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하여 ····· 140
- 제 5 호 - 윤리경영의 진단과 평가 도구 ····· 144
- 제 6 호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점검 ····· 148
- 제 7 호 - 윤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 154
- 제 8 호 - 금융투자의 새로운 지침, 녹색금융 ····· 159
- 제 9 호 - 국내 인권경영 실천 현황 ····· 163
- 제10호 - 윤리경영 진단 툴 ····· 167

윤리경영 동향

• 제 1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75
해외 윤리경영 동향 ····· 178

• 제 2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82
해외 윤리경영 동향 ····· 186

• 제 3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90
해외 윤리경영 동향 ····· 194

• 제 4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97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02

• 제 5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06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13

• 제 6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16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21

• 제 7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25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30

• 제 8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34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38

• 제 9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42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46

• 제10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50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56

윤리경영 관련 행사

- 제 1 호(2 ~ 3월) 행사 ····· 263
- 제 2 호(3 ~ 4월) 행사 ····· 267
- 제 3 호(4 ~ 5월) 행사 ····· 272
- 제 4 호(5 ~ 6월) 행사 ····· 276
- 제 5 호(6 ~ 7월) 행사 ····· 281
- 제 6 호(7 ~ 8월) 행사 ····· 285
- 제 7 호(8 ~ 9월) 행사 ····· 288
- 제 8 호(9~10월) 행사 ····· 291
- 제 9 호(10~11월) 행사 ····· 294
- 제10호(11~12월) 행사 ····· 297

윤리경영 100문100답

- 제 1 호 - 기업의 국제 시민화와 윤리경영 ····· 303
- 제 2 호 - 윤리경영에 대한 CEO 의지 ····· 305
- 제 3 호 - 동반성장과 윤리경영 ····· 307
- 제 4 호 -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 309
- 제 5 호 -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구성원의 참여 ····· 311
- 제 6 호 - 개인의 윤리의식 ····· 313
- 제 7 호 - 공정무역 ····· 315
- 제 8 호 -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 317
- 제 9 호 - 파견인력의 인권 · 산업재해와 인권 ····· 319
- 제10호 - 개인의 윤리 판단 ····· 321

웹툰 Yes 준법 Ok 윤리

- 제 1 호 - 썩은 사과 ····· 325
- 제 2 호 - 입당원서 ····· 326
- 제 3 호 - 양심에 털 밀어드릴까요? ····· 327
- 제 4 호 - 뭐~ 별 일 있겠어! ····· 328
- 제 5 호 - 싫어요! ····· 329
- 제 6 호 - 윤리경영 ····· 330
- 제 7 호 - 노란 선의 기적 ····· 331
- 제 8 호 - 벌과 꽃 ····· 332
- 제 9 호 - 행복이 오는 시간 ····· 333
- 제10호 - 숨 막히는 계단 ····· 334

신간서적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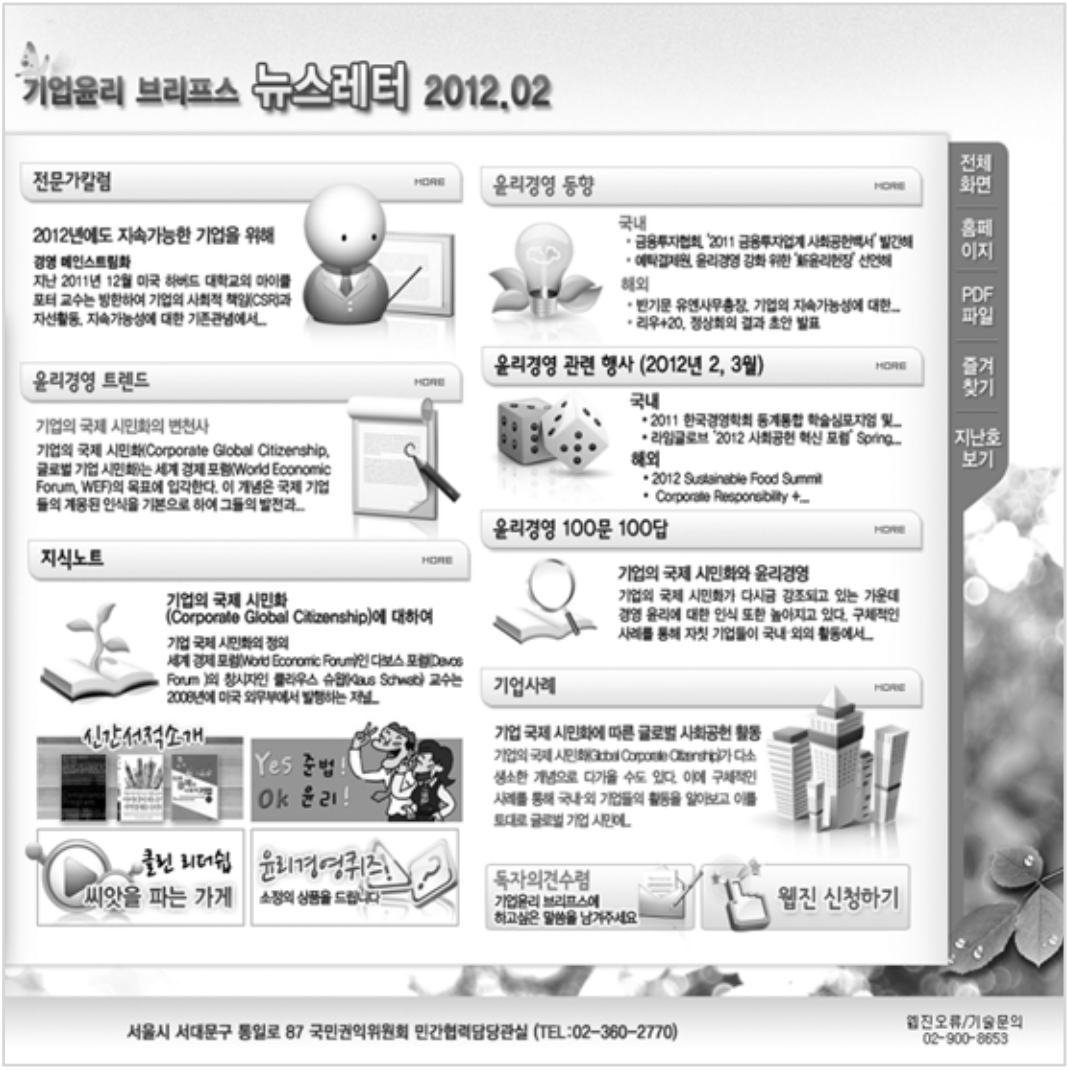
- 컴플라이언스 ····· 337
-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 ····· 338
- 미래 경제와 사회적 기업 ····· 339
-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 340
- 영속 성장 기업의 비밀 ····· 341
- 원 리포트 ····· 342
- 가치관 경영 ····· 343
- 동반성장의 길을 찾다 ····· 344
- 스마트 자본주의 5.0 ····· 345
- 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46
-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 347
- 윤리적 소비 ····· 348
- CSR 5.0 ····· 349

• 성장의 정석 CSR ····· 350
• 혁신의 탄생 ····· 351
•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정신 ····· 352
• 기업과 사회 ····· 353
•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 354
•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 355
•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 ····· 356
• 착한 소비가 뭐예요? ····· 357
•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 358
• 착한소비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 359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 ····· 360
•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 361
• 나눔과 상생의 경제 ····· 362
• 굿 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 363
• 윤리지능 ····· 364
•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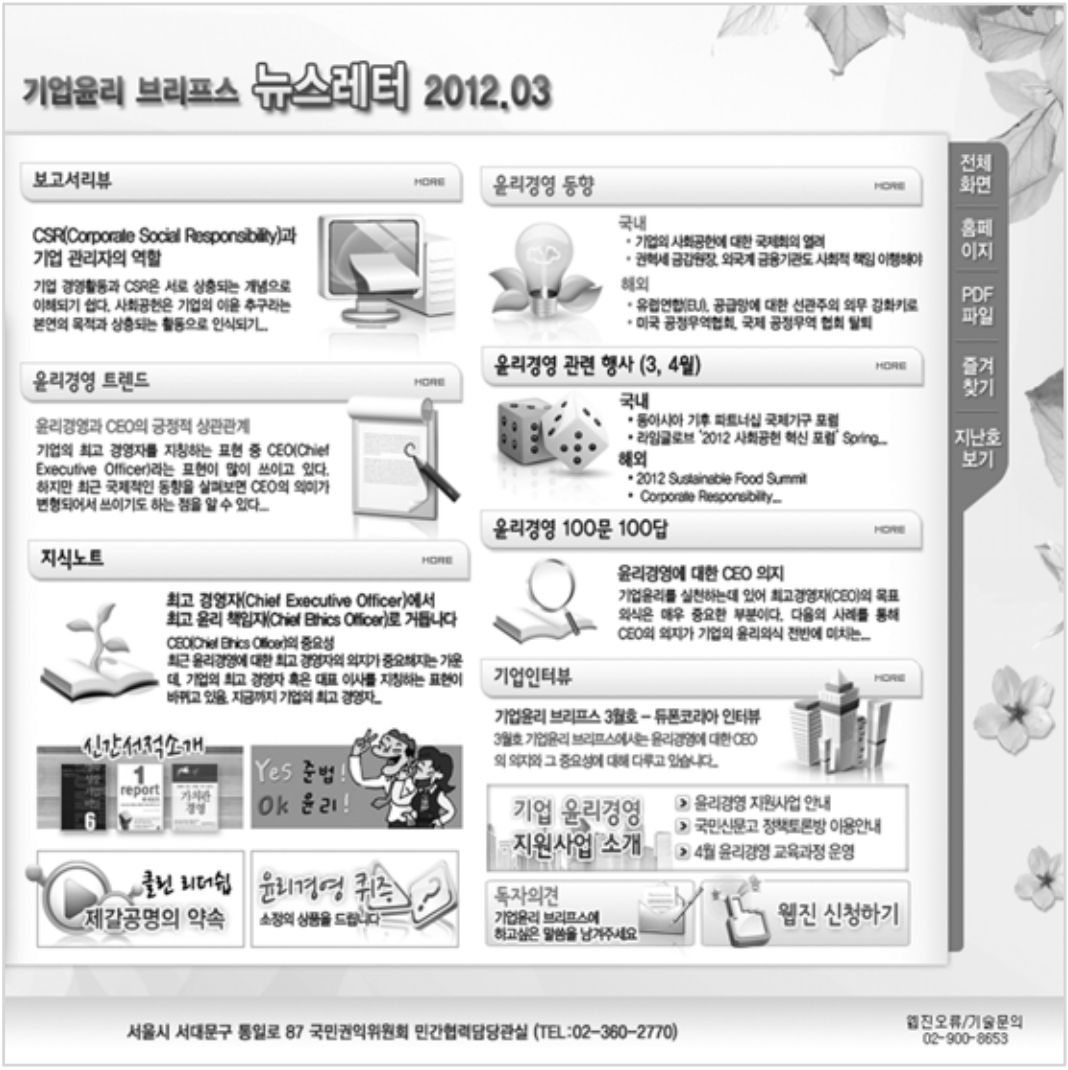
BUSINESS ETHICS
BRIEFS

2012
웹진 표지

2012년 - 제 1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2
전문가칼럼
MORE
2012년에도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해
경영 베인스트림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방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선활동,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윤리경영 트렌드
MORE
기업의 국제 시민화의 변천사
기업의 국제 시민화(Corporate Global Citizenship, 글로벌 기업 시민화)는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목표에 입각한다. 이 개념은 국제 기업들의 계몽된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발전과...
지식노트
MORE
기업의 국제 시민화 (Corporate Global Citizenship)에 대하여
기업 국제 시민화의 정의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인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 교수는 2008년에 미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저널...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출판 리뷰
씨앗을 파는 가게
윤리경영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금융투자협회, '2011 금융투자업계 사회공헌백서' 발간해
•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강화 위한 '新윤리헌장' 선언해
해외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 리우+20, 정상회의 결과 초안 발표
윤리경영 관련 행사 (2012년 2, 3월)
MORE
국내
• 2011 한국경영학회 통계통합 학술심포지엄 및...
• 라임글로브 '2012 사회공헌 혁신 포럼' Spring...
해외
• 2012 Sustainable Food Summit
• Corporate Responsibility +...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기업의 국제 시민화와 윤리경영
기업의 국제 시민화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 윤리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칫 기업들이 국내 외의 활동에서...
기업사례
MORE
기업 국제 시민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국제 시민화(Global Corporate Citizenship)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 외 기업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 시민에...
독자의견수렴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웹진오류/기술문의 02-900-8653

2012년 - 제 2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3
보고서리뷰
MORE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 관리자의 역할
기업 경영활동과 CSR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쉽다. 사회공헌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과 상충되는 활동으로 인식되기...
윤리경영 트렌드
MORE
윤리경영과 CEO의 긍정적 상관관계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지칭하는 표현 중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CEO의 의미가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식노트
MORE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에서 최고 윤리 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로 거듭나다
CEO(Chief Ethics Officer)의 중요성
최근 윤리경영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대표 이사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뀌고 있음. 지금까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출연 리더쉽 제갈공명의 약속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제회의 열려
• 권혁세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기관도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해외
• 유럽연합(EU), 공급망에 대한 신관주의 의무 강화키로
• 미국 공정무역협회, 국제 공정무역 협회 발회
윤리경영 관련 행사 (3, 4월)
MORE
국내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국제기구 포럼
• 라임글로브 '2012 사회공헌 혁신 포럼' Spring...
해외
• 2012 Sustainable Food Summit
• Corporate Responsibility...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윤리경영에 대한 CEO 의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데 있어 최고경영자(CEO)의 목표 의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CEO의 의지가 기업의 윤리의식 전반에 미치는...
기업인터뷰
MORE
기업윤리 브리프스 3월호 – 듀폰코리아 인터뷰
3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의지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소개
윤리경영 지원사업 안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이용안내
4월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찾기
지난호 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웹진오류/기술문의 02-900-8653

2012년 - 제 3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4
전문가칼럼
5년 후의 노는 물을 바꾸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 철칙 (iron law)이 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선배 학회장님이셨던 서울대 경영대학의 곽수근 교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선택 고민 하나가 없어졌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 최대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전체 화면
기업인터뷰
MORE
SK텔레콤
4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을 테마로 동반성장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윤리경영 트렌드
MORE
국내 동반성장의 흐름
산업화 이후 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칠 줄 모르고 있다.
지식노트
MORE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소개
윤리경영 지원사업 안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110 국민콜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재벌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형식 공시 의무화
해외 · Ethisphere 발표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윤리경영 관련 행사 (4, 5월)
MORE
국내 · 국내외 ISO50001 인증 현황과...
해외 ·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동반성장과 윤리경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들을 겪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출연 리더쉽 마음의 동반자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2012년 - 제 4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5
기업인터뷰
기업윤리 현장 탐방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글로벌협력 임두현 팀장
5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윤리적인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고서 리뷰
MORE
How to co-create corporate responsibility strateg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
윤리경영 트렌드
MORE
과거의 이해관계자, 오늘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리차드 에드워드 프리먼Richard Edward Freeman)의...
지식노트
MORE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에 대하여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기업윤리 정책홍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식약청-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청렴활동...
해외 · 애플의 세금회피 전략
윤리경영 관련 행사 (5, 6월)
MORE
국내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해외 ·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기업들은 경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출연 리더쉽
사랑의 힘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2012년 - 제 5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6
기업인터뷰
유한킴벌리 인터뷰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
6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윤리경영에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최규복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한킴벌리의 반부패 활동은 물론...
서적리뷰
MOR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1) : 성공을 위한 원칙
윤리경영 트렌드
MORE
반부패라운드의 역사와 동향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은 크게 규제와 자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지식노트
MORE
윤리경영의 진단과 평가 도구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소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선도클럽' 구성하여...
해외 · 월마트,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위기 봉착
윤리경영 관련 행사 (6, 7월)
MORE
국내 · 제7회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해외 · Rio+20, 기업지속가능성포럼(CSF) 소개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구성원의 참여
기업이 아무리 부패 근절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여도 구성원들이 윤리적인...
클린 리더쉽
자물쇠가 필요 없는 자전거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2012년 - 제 6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7
기업인터뷰
한미글로벌 인터뷰
한미글로벌(주) 대표이사 회장
7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 는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은 기업의 구성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의 삶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칼럼
MORE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신문을 펼치니 기업들이 휴가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장려 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인천국제공항을...
윤리경영 트렌드
MORE
착한 여행을 떠나다
19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후, 한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수 많은 사람들이...
지식노트
MORE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점검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지속가능경영을 촉진...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홍보
2012 UN공공행정상 대상수상
110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해외 · 올림픽 후원사 논란이 있었던 코카콜라...
윤리경영 관련 행사 (7, 8월)
MORE
국내 · 2012 기후정보공시위원회(CDSB) 워크숍
해외 ·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의 반부패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개인의 윤리의식
개인의 윤리의식은 개인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클린 리더쉽
아름다운 실패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2012년 - 제 7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8
기업인터뷰
LG전자 인터뷰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영하 사장
윤리적인 경영방식과 생산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윤리적인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렇듯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러한 ..
서적리뷰
MORE
소비주의를 알아야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다!
- 본 고에서는 윤리적 제품과 브랜드, 윤리적 소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소비주의에 대해서 다루고자..
윤리경영 트렌드
MORE
공정무역의 도시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 윤리적인 제품과 소비로 꾸며진 세계인의 축제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 윤리경영 트렌드에..
지식노트
MORE
윤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 윤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하기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홍보
국민신문고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정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은..
해외 • 애플, 녹색 인증제도로의 복귀결정
윤리경영 관련 행사
MORE
국내 • 제 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
해외 • Interface Asia CSR Forum 2012프로젝트..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개인의 윤리의식
Q1. 공정무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과 어떻게 다르고, 공정무역 인증을..
클린 리더쉽
고객을 위해
윤리경영 퀴즈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2012년 - 제 8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09
전문가칼럼
달릴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자동차는 미션 임파서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현진 교수
얼마 전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던 미션 임파서블4에서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주연 배우 탐크루즈의 애마로 등장하는 차, BMW의 야심작 i8이다...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윤리경영 트렌드
MORE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 감축 사례
–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EU 회원국(27개국)과 유럽 31개국에서는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은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식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외 • SEC, 분쟁광물과 지불에 대한 법안 통과
윤리경영 관련 행사
MORE
국내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해외 • Carbon Forum North America
지식노트
MORE
금융투자의 새로운 지침, 녹색금융
– 현재 녹색금융에 대해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이다.
UNEP FI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녹색금융을 정리하고 있다. 한가지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Q1. 제가 결혼할 때 사온 냉장고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출판 리뷰
평화를 빌려주는 은행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1월 윤리경영 교육 안내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2012년 - 제 9 호 -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10
전문가 칼럼
"사회적 책임과 인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세계경제가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 4.0 시대에 경제, 사회적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SNS등 신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배분방식의 변환기이기...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 찾기
지난호 보기
기업 인터뷰
MORE
아트라스콥코 코리아의 지속가능경영과 인권
1. 아트라스콥코에 대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전 세계...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이 실적도 좋아
해외 · 美 친환경 부양 효과 놓고 '분분'
윤리경영 트렌드
MORE
인권경영의 역사와 발자취
우리나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한국 기업들은 지...
윤리경영 관련 행사
MORE
국내 · 제1회 CSR 국제 포럼
해외 · Carbon Forum North America
지식노트
MORE
국내 인권경영 실천 현황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의 숫자는 매년 꾸준...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파견인력의 인권
Q1. 사내 협력업체의 직원들의 건강권까지 원청에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다. 이는...
클린 리더쉽
일과 생활의 균형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1월 윤리경영 교육 안내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기업윤리 브리프스 뉴스레터 2012.11
전문가 칼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 대학원 주임교수 /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소장 김종대
C-level 경영자 중 지속가능경영 전담 임원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심지어 환경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직원 중 임원이 되지 못하고 말년 부장으로 퇴임하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전체 화면
홈페이지
PDF 파일
즐겨찾기
지난호 보기
기업 인터뷰
MORE
포스코건설 인터뷰
1.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들에게 포스코건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리경영 동향
MORE
국내 • 포스코, 불필요한 관행을 버리고 '윤리' 강화
해외 • UNPRI 서명 기관 1,100여 개 돌파
윤리경영 트렌드
MORE
2012년 윤리경영 평가
2012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
윤리경영 관련 행사
MORE
국내 • 글로벌콤팩트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해외 •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지식노트
MORE
윤리경영 진단 툴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부상...
윤리경영 100문 100답
MORE
개인의 윤리 판단
Q1. 나윤리 사원은 윤리규범 선포와 관련된 자료를 읽던 중에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신간서적소개
Yes 준법! Ok 윤리!
숨막히는게단
클린 리더쉽
기러기의 날개짓에서 배우는 지혜
윤리경영 퀴즈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웹진 신청하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TEL:02-360-2770)

전문가 칼럼 · 인터뷰

<전문가 칼럼>

• 2012년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 / 3
• 5년 후의 노는 물을 바꾸고 싶은가? / 5
•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 7
• 달릴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자동차는 미션 임파서블? / 9
• 사회적 책임과 인권 / 11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전략적 접근 / 13

<인터뷰>

• 듀폰코리아 / 15
• SK텔레콤 / 19
• 아모레퍼시픽 / 25
• 유한킴벌리 / 31
• 한미글로벌 / 36
• LG전자 / 42
•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 47
• 포스코건설 / 50

전문가 칼럼

2012년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

신 철 호
(사)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 성신여자대학교 부총장

경영 메인 스트림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방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선활동,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공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서로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주목 받았던 서적만 보아도 2012년의 우리 기업들이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스튜어트 L. 하트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에서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재창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 기업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 전문가인 밥 윌라드는 '지속가능성 3.0(Sustainability 3.0)'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였고, 제이슨 사울은 그의 저서 「CSR 3.0」에서 기업사회공헌과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부드러운 기업 혁명, 즉 기업사회혁신을 제안하였다. 특히 BOP(Base of Pyramid)를 타겟으로 하는 BOP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영향력에 대한 저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권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관심의 중심에 있다. 이제 기업들에게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NA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를 넘어 기회와 전략으로▐

지난해 유럽발 경제위기, 월가의 시위 등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아랍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자스민 혁명'과 더불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화됨에 따라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게 당연시되는 이슈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추세다. 나아가 기업은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기회를 통해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써 GE헬스케어의 '헬씨메지네이션(Healthymagination)'사업을 들 수 있겠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100개의 혁신 제품 개발에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의료 비용을 15% 줄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은 15% 향상하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15% 확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보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면서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GE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지속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2010년에는 기존 사업보다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CSV를 통한 가치 창출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1)]

▌맺음말▐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돈만 잘 버는 회사에서 지금은 사회 속에서 좋은 균형감을 이루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경제, 사회, 환경적인 성과를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고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존경 받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벗어난 기업은 존경 받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산업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올바른 기업윤리 확산을 통한 지속경영의 가치 확립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주기를 권고한다.

---

1) 출처 : GE코리아

전문가 칼럼

5년 후의 노는 물을 바꾸고 싶은가?

김 기 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기획처장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 철칙(iron law)이 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선배 학회장님이셨던 서울대 경영대학의 곽수근 교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선택 고민 하나가 없어졌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 최대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오후 5시 언론사에서 칼럼 요청이 왔다. 써야 할까? 쉬어야 할까? 귀가하면 밤11시인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 오늘 밤도 불면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쓰기로 했다. 오늘은 고생이지만 다음날 여러분들의 격려가 나의 오늘을 만들었고, 많은 교수들 틈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다. 내가 편안하면 주위는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면 주위는 행복해진다는 곽 교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셈이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아기가 울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본인은 편안히 누워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울고 있다. 환경진화에는 다윈의 '자연선택이론'이 있듯 기업진화에는 '인재선택이론'이 있다. 이 칼럼을 구독하고 있는 독자는 만약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놀면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을 승진시켜야 한다면 누구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할 것인가? 아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일 것이다. 진화의 핵심은 자연의 선택을 먼저 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환경에 먼저 적응하고,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엔 자신이 바꾸려는 종만 살아남게 된다.

마이클 포터의 국제경쟁력연구에서 이태리의 구두회사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구두에 까다롭다는 이태리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수다'라는 TV프로그램 출연진들이 주는 감동도 마찬가지이다. 청중의 귀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매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제 프레임을 바꾸어 보자.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 어려운 길을 즐겁게 가는 프레임으로 말이다. 그러려면 이제 산에 오르면서 친구들은 편한 곳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나무꾼의 프레임에서 산을 즐겁게 올라가는 등산가의 프레임으로 바꾸자.

이것이 성공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성이 만들어내는 교만의 안주가설(entrenchment hypothesis)을 극복하는 길이다. 안주가설은 자신들의 이익을 편안하게 지키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출발은 기업이 '덕(德)'을 갖춤으로써 시작된다.

예부터 으뜸인재로 재주와 덕을 갖춘 이를 성인이라 했다. 성인이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말한다. 덕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덕이 재주보다 나으면 군자라 했고, 재주가 덕보다 나으면 이를 소인이라 불렀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의 기본은 신뢰이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4대 성인들이 살던 시기의 특징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이다. 공자는 전쟁과 패도정치가 난무하는 춘추전국시대에 덕치를 주장하며 11년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다 노나라로 돌아와서 후진 교육에 힘썼다. 예수는 베들레헴의 어느 마굿간에서 태어나 30년 동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석가모니는 인도 왕족의 태자로 출생하여 어느 날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독배를 마셨다.

덕을 쌓는 것이란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사회적자본의 공동체의식에서 시작된다. 좋은 나라란 '나'보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말한다. 좋은 기업이란? 코틀러 교수의 마케팅 3.0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자.

마케팅 1.0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마케팅 2.0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을 파는 기업이고, 마케팅 3.0은 영혼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영혼이 있는 기업'이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상생경영은 동반성장의 철학이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동반성장의 철학이 작용하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전문가 칼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조 동 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한 시대

신문을 펼치니 기업들이 휴가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여유 있게 즐기고, 일과 삶(work and life), 더 정확히 표현하면 노동과 여가(labor and leisure)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연차휴가 사용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50%도 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에 있어서 사회 전반에 경직된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과 여가의 균형에 있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자. 본인이 2년 전 기고한 칼럼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자.

- 1950년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였다. 얼마나 굶는 사람이 많았으면 식사했느냐는 질문을 인사로 했던 것일까? 당시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표현하던 사자성어는 초근목피(草根木皮)였다. 이 말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 먹지 않으면 5월 초의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 죽던 암울한 우리 사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 그 후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사말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로 바뀌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무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는 것이 예사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쿠데타를 포함해서 밤 중에 하도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밤을 잘 넘기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듯하다.

- 오늘 날, 지금과 같은 여름 휴가철에 가장 널리 쓰이는 인사말 중 하나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로 꼽고 싶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휴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가 계획이 없거나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휴가 사용에 대해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기업 문화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휴가다운 휴가를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씁쓸한 질문이다.

▌여가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

노동과 여가의 균형에 대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갈구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정보사회로 이동하면서 우리 삶의 목표는 변화해 왔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잘 놀고 푹 쉬고 이러한 휴식을 통해 삶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오로지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일과 삶을 얼마나 균형적으로 즐기고 영유하는가가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되었다.

21세기는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Homo Ludens)'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공자가 2500년 전에 말씀하신 "知之者 不如好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好之者 不如樂之者(호지자 불여락지자)", 즉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한 세상이 21세기에 들어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회적 시선이 개인의 지속 가능한 삶, 일과 삶의 균형성에 맞춰져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착하는데 있어서 기업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한없이 많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경영에서 개인의 지속경영으로 초점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점차 우리 사회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인이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생활 패턴을 조성해가고 있다. 이제 개인의 지속 가능한 삶은 곧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어 그 나라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다.

전문가 칼럼

달릴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자동차는 미션 임파서블?

김 현 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얼마 전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던 미션 임파서블4에서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주연 배우 탐크루즈의 애마로 등장하는 차, BMW의 야심작 i8이다.

2013년 유럽에서 출시 예정인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탄소섬유 재질과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해 차체무게를 최대한 경량화 시켜 연비 26.6km/l를 달성했다. 한국에서 시판될 경우 차량 가격은 무려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럭셔리카의 판매에 매진해 오던 BMW등의 업체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2012년. 올 봄에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었던 모터쇼에서는 친환경차 기술이 모든 자동차 업체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세 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제까지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주타겟으로 했던 친환경차 시장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제까지 주로 소형차에 적용되었던 친환경기술이 대형차에까지 대폭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도요타와 닛산 등 기존 하이브리드 차 주력 업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친환경기술이 21세기 지동차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의 최대 관건으로 인식하고 화려한 친환경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고급 차의 대명사 에쿠스의 경우 연비는 리터당 7 8km정도이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연비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제 3-5년 이내에 연비 50km/l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세기 공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활약하던 자동차들이 21세기에는 달릴수록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동차로 녹색의 옷, 윤리의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당당하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상한치를 설정하고 잉여분과 부족분을 사고

팔게 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가 확정, 예고되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들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판다? 이는 개념조차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뿐 더러 혹자는 대동강 물을 판 봉이 김선달을 떠올리기까지 한다.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유럽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진국들도 도입을 주저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굳이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저항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등도 대두되고 있다.

나는 수년 전 들었던 한 의사의 말을 떠올린다.

"우리 주위에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암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라는.

이제 필요 이상의 저항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에너지 고효율 시설 투자와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구인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은 닐 암스트롱은 그 감격의 순간 이렇게 말했다.

"이 발걸음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을 가져올 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자동차 업계에 불고 있는 친환경기술 열풍은 이제 기업에게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는 공생의 기업관과 기업의 경쟁력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전문가 칼럼

사회적 책임과 인권

주 철 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세계경제가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 4.0 시대에 경제, 사회적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SNS등 신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배분방식의 변환기이기도 하다. 확실한 것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쉽게 회자된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적 민주주의 논의도 이에 무관하지 않다.

무엇이 사회적 책임을 이루는가? 우선 사회적 책임의 기본정신은 공정과 정의, 사랑, 배려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노동권존중과 환경존중, 부패방지, 지역사회 및 개발 참여 등이 될 것이다.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나 ISO26000등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주요규범이 표방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인권은 그중에서도 첫번째 요소이다. 우선 유엔헌장은 인권창달을 3대 주요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류는 1948년 국제인권선언채택이후 여러 인권 장전을 만들며 인권창달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다수국가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엔은 종래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인권문제를 다루어왔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업의 큰 영향력에 주목하고 기업들이 인권 창달에 참여토록 촉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00년 창설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할 것을 주창한다. 또한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은 별도로 죤 러기 유엔사무총장 특사를 중심으로 기업인권문제를 작업하여 2008년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 보호, 존중, 구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어서 3년간의 추가작업으로, 그 이행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2011년 6월 상기 인권프레임워크의 특별이행지침(Guide line)을 만들었다. 이 프레임워크와 이행지침은 기업과 인권 관련된 중요한 지침으로서 현재 작동중이다.

그에 따르면 우선 국가는 인권보호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인권의 존중책임이 있고, 인권침해시에는 그 구제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기업은 최고경영층 차원에서 인권존중정책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이를 경영정책에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이행에 있어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며, 인권경영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꾸준히 개선한다. 기업은 국제적 인권규범과 그 활동지역의 적용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인권활동에 있어서는 기업특유의 미션과 핵심사업들에 연계되어 질높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기를 권장한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비지니스 케이스는 기업가치의 보전 및 리스크를 막는 등 기업경영 여건을 보호한다는 점과 나아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인권 활동영향력의 반경에는 사업장과 공급망, 시장, 지역사회, 정부 및 나아가 국제사회가 있다. 국제사회규범의 발달로 이제는 기업도 인권존중의 주 행위자가 되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인권존중요소를 기업경영에 능동적으로 통합시켜 나갈때이다.

한국은 정치발전, 경제적 성숙, 문화적 중흥을 거쳐 수년전부터 국제환경, 녹색성장 논의에 기여하여 온 바,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유치,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발족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쾌거가 있었다. 이렇듯이 한국은 어느덧 가치면에서도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 나라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치민주화와 인권선진국이 된 한국과 한국기업이 인권경영에도 정성을 다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능히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고 21세기 기업 인권창달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문가 칼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전략적 접근

김 종 대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대학원 주임교수 /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소장

C-level 경영자 중 지속가능경영 전담 임원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심지어 환경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직원 중 임원이 되지 못하고 말년 부장으로 퇴임하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몬산토사는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경영을 전담하는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에서도 CSO를 두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지속가능성 평가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방법을 찾도록 해 주고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관계(SR: Stakeholder Relations)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며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지속가능성 지수 또는 랭킹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 포상제도도 만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차별화되지 않고 또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들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Porter가 이를 rating game이라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예산배분이다. 경영자는 예산의 집행을 통해 그 의지를 대내외에 의사소통한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지출을 하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회계를 통한 환경원가 및 효익의 측정이 중요하나 많은 기업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경영 전담 임원과 조직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포함한 개념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간혹 자신이 기업의 최고 목표를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주장이 허울뿐인 주장, 즉 green washing이 아니라면 지속가능경영 부서에 적절한 권한, 인원 및 예산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의지이다. 관리는 측정에서부터 비롯되고 개선은 투명한 의사소통으로 시작된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의 성공을 위하여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것이 지속가능보고서가 중시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GRI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하려 하여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고 한국의 1인당 구매력평가 GDP가 3만불에 가까워 져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슈 때문에 엄청난 가치손실을 겪게 될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략적 지속가능성 위험관리(strategic risk management)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 터 뷰

듀폰코리아

임 정 택
듀폰코리아 사장

3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의지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CEO의 의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 듀폰의 한국법인인 듀폰코리아에서 강한 의지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임정택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듀폰코리아의 윤리경영과 이를 위한 CEO의 의지 및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Q 듀폰 코리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A 1802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시작한 듀폰은 과학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인류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좋게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90여개국에서 7만명의 직원이 농업, 영양, 안전보호, 자동차, 에너지, 전자통신, 화학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소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듀폰의 한국법인 듀폰코리아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울산과 구미에 생산시설이, 분당에는 고객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이노베이션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듀폰코리아에는 45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2011년 약 7천5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Q2 듀폰 코리아의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소개해주십시오.

A 210년 동안 시장과 기술의 변화로 듀폰의 비지니스는 변해왔지만, 변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핵심가치'입니다. 듀폰의 핵심가치는 네가지로 '안전보호, 윤리준수, 직원존중, 환경보호' 입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로부터 듀폰의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이 출발 했습니다.

'듀폰은 회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고의 윤리수준을 견지하고, 존경받는 세계적 기업시민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듀폰의 업무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EO부터 모든 매니저들이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준수는 기업문화이며,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회사와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듀폰의 지속가능경영의 정의는 '우리가 활동하는 가치사슬에서 환경적 영향은 줄이고, 주주와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듀폰은 제품 등의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 사용을 줄이고, 재해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비지니스와 연결하여 고갈되는 자원이 아닌,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석유 대신에 옥수수에서 '소로나'라는 섬유와 폴리머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버려지는 옥수수대나, 줄기 등으로 셀룰로직에탄올을 만들어 바이오연료로 시장에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모든 사업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3 언제부터 윤리경영이 귀사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으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듀폰의 윤리경영은 창업자가 회사를 세울 때부터 만든 회사의 핵심가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듀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일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주주, 고객, 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또한 회사의 지속성과도 연계된 필수사항입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듀폰이 210년간 장수할 수 있었으며, 매년 '포춘(Fortune)'지가 발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most admired company)'에 화학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Q4 듀폰 코리아의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 임정택 사장님의 의지가 바탕이 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A 듀폰에서는 모든 핵심가치의 위반사례 '0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가치의 목표달성이 제가 비지니스 성장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지켜가고 발전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챔피언(Champion)'을 선정하여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인 on/off-line교육을 받도록 하고, 듀폰의 업무수행지침을 숙지하게 하며,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윤리규정을 전파하고, 내부 미팅시 서로의 윤리경영 사례를 가지고 토의하며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핫라인을 개설하였으며, 혼자 고민하며 결정하지 말고 항상 매니저나 회사 내 담당자들과 상의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듀폰 코리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과 이를 위해 임정택 사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A 핵심가치 실행 목표를 달성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강화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직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지와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산업소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로, 대리점들과 함께 또는 우리 기업이 직접 국내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지니스 파트너들이 함께 윤리경영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것입니다. 듀폰 코리아의 업무규정과 원칙, 그리고 기업문화에 내재되어 모든 직원들이 실천하는 사례들을 그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윤리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작년부터는 국내기업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가치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듀폰 코리아의 핵심역량을 미래의 인재들과 다른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에서 사례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윤리, 안전, 인간존중이 어떻게 기업의 업무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가는지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6 많은 기업 실무자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에 있어서 CEO의 의지 표명과 그를 통한 전사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업 CEO들의 윤리경영 의지 표명과 실천을 위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윤리경영은 한 부서의 활동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최고경영자인 CEO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듀폰에서는 모든 내부미팅 시 제일 먼저 핵심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여러 프로그램의 경과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윤리경영의 원칙과 목표, 계획들은 비지니스가 어렵다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됩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시에도 듀폰의 핵심가치에 대한 의지와 지원은 최우선시되었고, CEO가 제일 강조한 사항입니다. 윤리경영은 비지니스 위기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적으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세운 윤리경영의 원칙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운영할 때 예외사항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 'No toler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규정의 원칙 위반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높은 윤리수준을 지키며 신의를 가지고 업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Q7 끝으로 임정택 사장님께서는 '윤리경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 공유해주십시오.

A 윤리경영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인데, 저는 윤리경영을 '기업의 생명이며 얼굴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경영을 소홀히 하면 기업의 영속성은 무너지게 되어있고, 기업 가치의 좋은 얼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종종 '헤드라인 원칙(headline principle)'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고 하고있는 일이 신문에 나왔을때 나 자신과 회사가 곤란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내 친구나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아름답고 자신있는 얼굴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인 터 뷰

SK텔레콤

황 현 박
BR팀(Business Relation Team) 매니저

4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을 테마로 동반성장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파트너사와 돈독한 신뢰를 근간으로 우수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BR팀(Business Relation Team)의 황현박 매니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SK텔레콤이 시행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Q SK텔레콤의 동반성장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A SK텔레콤은 2004년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사적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SKMS[1)]와 연계한 '新가치경영'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및 '현실 프로세스의 접목'이 바탕이 된 전사 혁신 전략으로 '3V(고객, 주주, 구성원)극대화', '3R(파트너, 공중, 정부)혁신'을 위한 선순환적인 가치확대를 원칙으로 정하고, 각 영역별 미래환경 전망 및 현실 진단에 따른 추진과제를 선정 · 실행하는 것입니다.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SK텔레콤은 업계최초로 동반성장 전담조직(2003년, BR팀)을 신설, 전사적 차원에서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BR(Business Relation)팀은 파트너와의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①동반자적 문화 확산 및 정착, ②개방적 협력관계 강화, ③지속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동반성장 활동을 시행하고

1) SK Management System : SK그룹의 경영관리체계로서, SK의 경영철학과 이를 현실 경영에서 구현하는 방법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심화 및 반도체 사업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 요구 등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VISION 2020『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를 발표하였으며, 이와 연계한 동반성장의 새로운 VISION과 핵심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의 투명성확보(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 BR Mind Set 제고 등)와 수평적 네트워킹 강화 (우수협력사 시상, Comm. Day 운영, ICT 정보공유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방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Open Innovation(개방적 사업제안), Test-bed(Open Lab. '12년 신규 구축) 지원, R&D 협력 및 파트너의 수요 파악을 위한 VoP 소통채널, BPSI (파트너 만족도 조사)들을 시행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을 위해서는 협력사 R&D지원(장비국산화 등), 협력사 임직원 교육(On/Off Line), 금융지원, 기술임치제 도입 및 시행, 경영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해외전시지원(MWC2010~2012[2])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넷째, 협력사와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년부터 성과공유제를 적극 도입,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SK텔레콤의 동반성장 활동은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의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SK가 궁극적으로 추구는 가치는 '이해관계자의 행복'이고, 회사의 경영방침과 파트너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사적 동반성장활동의 지속적 추진과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동반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협력사와 격의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BR Camp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다년간 운영하여 소통을 통한 협력사와의 신뢰도 향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상호 의견 존중의 자세로 돈독한 신뢰구축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2) MWC(Mobile World Congress) :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셋째, 자사의 동반성장 활동이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BPSI (파트너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와 함께 분석하여 좀 더 나은 파트너 지원 및 긍정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협력사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넷째,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회사의 동반성장 전략에 따라, 협력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 투자를 해 왔습니다. SK텔레콤과 거래하는 협력사의 특성상 ICT 트렌드 및 기술교육의 수요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 기술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협력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 과정 모집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되고, 추가 과정 문의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 과정을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뿌듯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 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ICT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사들의 역량과 핵심 기술이 없으면 SK텔레콤도 성장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성장해야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이 협력사에게 돌아간다는 메커니즘에 대해 전사 구성원 개개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SK텔레콤 동반성장 추진의 원동력이자 강점입니다.

예컨데, 통신장비의 국산화 공동 추진과 협력사의 기술임치제 참여 유도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에도 앞장선 결과 '11년도 민간부문 최고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Q5 SK텔레콤의 동반성장 추진 활동 중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나요?

A 최근 사회적으로 대 ·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하나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동반성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에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업부서에서 정성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는데, 전달 과정에서 이를 다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외부에서는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단순히 건수나 지원성 금액 규모에서만 의미를 찾는 측면이 다소 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동반성장지수를 통한 모니터링이 아직은 산업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 위주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이종 산업간의 Convergence가 많은 분야여서 기술 트렌드 파악을 통한 미래 기술방향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산업 특성상 정보에 취약한 협력사에게 좀 더 많은 기술정보와 SK텔레콤과의 R&D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ICT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싶으나, 주요 장비를 제외한 소규모 통신장비 위주로 중소기업에서 조달받고 있는 점과 기술발전 속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중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Q4 SK텔레콤은 통신업계의 리딩기업으로서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다를텐데, 이러한 포지셔닝이 동반성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A '동종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Leading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동반성장 활동은 물론이고, 진정한 '성장'과 '혁신'을 통해 협력사와 실질적 동반성장 사례와 독창적인 모델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야만 한다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국내 통신기업들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시도를 많이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도 협력사와 동반진출 및 해외진출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지만 해외 전시참여 지원 및 공동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해외 사업자와의 Networking이 한 순간에 이루지지는 않기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사의 협력사들이 해외진출 하여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사의 우수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Networking을 하는데 협력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0년부터 MWC같은 이동통신 전시에서 일체의 비용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협력사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는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 MWC 전시에서 부스내에 협력사 공간을 할애하여 지원하는 회사는 저희 뿐이었습니다.

이런 전시 지원을 받은 우수 협력사 중 일부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공동 R&D 작업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지원을 하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Q5 동반성장에 있어서 윤리경영은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할 본원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A 협력회사 등록, 선정, 계약,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구매계약상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전사적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과정에서 협력사의 불필요한 계약절차 및 구매단가 협의에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성원 윤리강령교육 및 사전 자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력사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협력사와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친밀한 소통을 위해 전국의 협력사를 직접 방문(One-on-One Meeting)하여 협력사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6 SK텔레콤의 동반성장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공·사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A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면서 동반성장 활동은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와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만이 진정한 동반성장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신뢰가 없는 관계는 사상누각이 되어 서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반성장은 대기업 또는 '갑' 입장의 기업이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배푸는 시혜성 활동이 아니며 협력사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픈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사가 상호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기업 수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생적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재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협력사와의 관계는 구매조달 차원이 아닌 연구개발 단계에서 Open Networking을 통한 건전하고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치 확장을 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성장 사업을 함께 할 협력사 발굴 및 공동개발을 활발히 하여 사업이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의 활동무대를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글로벌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면 동반성장관계는 공고히 될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국내 유수의 기업이나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동반성장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7 동반성장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이 동반성장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A 최근 계열 편입된 SK하이닉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MRO기업 그리고 '11년에 분사한 SK Planet 등과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사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각 사의 동반성장 활동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SK텔레콤 산하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통신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에서 SK하이닉스와 같은 제조업종도 SK텔레콤 산하에 있으므로 제조업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8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경우, 말씀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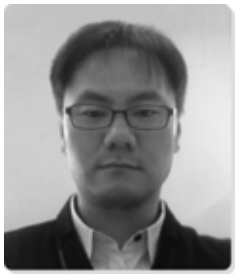
A 최근 정부, 경제관련 단체 및 대·중소기업 등에서 동반성장을 한 목소리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 당사자간의 논의를 통해 동반성장이 실천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SK텔레콤 동반성장 in brief

- 2011년 기술임치제 우수 기업 감사패(대중소기업협력재단)
- 2007년, 2010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상 대통령 표창(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2006년 SK텔레콤 FMI '우수훈련기관' 대통령 표창(노동부)
- 정통부 주관 상생 우수 통신사 3년 선정

인 터 뷰

아모레퍼시픽



임 두 현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 / 글로벌협력담당 팀장

5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윤리적인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제도협력 및 글로벌협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두현 팀장님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대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이를 통한 아모레퍼시픽의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Q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기업이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업한 이후 지난 67년간 한국의 뷰티산업을 성장시켜온 뷰티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마몽드, 라네즈, 에뛰드, 이니스프리, 해피바스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여성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한국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속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시안 뷰티의 가치를 발굴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창조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2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주제가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인 소통' 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A 아모레퍼시픽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임직원, 협력사, 뷰티파트너, 지역사회, 정부, NGO, 주주의 8개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들의 기대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기업도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장품 산업이나 식품산업 등과 같이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나 프로슈머 활동, 정기 노사협의, 상생협력 전진대회,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지원 등의 기존방식에 더하여 그 동안 가장 소통이 부족했던 이해관계자들인 NGO, 협력사, 뷰티파트너를 대상으로 소통채널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자,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 드릴 '이해관계자 대화(Stakeholder Dialogue)' 입니다.

Q3 아모레퍼시픽의 이해관계자 대화(Stakeholder Dialogu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동안 소통의 공간이 부족했던 이해관계자들인 NGO, 협력사, 뷰티파트너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NGO와의 대화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간 NGO와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업무와 연관된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3개의 팀(고객상담팀, 글로벌협력팀, 지속가능경영팀)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뷰티파트너 등)와의 대화는 또 다른 팀들이 연계되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아모레퍼시픽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프로세스
출처 : 2011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성 보고서

Q4 수많은 NGO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 이해관계자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A 이해관계자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저희 아모레퍼시픽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부정적 이슈, 긍정적 이슈에 상관없이 우리 기업과 사업 관련 기사에 노출빈도가 많았던 NGO단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1회 이해관계자 대화가 끝난 후, 참석한 NGO들로

부터 소통을 시작한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과 적극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회 이해관계자 대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1) 아모레퍼시픽 제1회 이해관계자의 대화

사진2) 아모레퍼시픽 제2회 이해관계자의 대화

Q5 그렇다면 이해관계자 대화에서는 제시된 의견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실행하게 된 이슈, 그리고 그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제1회 이해관계자 대화에서는 화장품업계의 소비자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토론 결과, 총 6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실천과제로는 친환경 원료 재배부터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강화하여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제품의 성분, 사용, 보관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기, 대량소비를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른 사용을 위한 마케팅으로의 전환하기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2회에서는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안건으로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 제언, 지속 가능한 제품 구매, 마케팅 등의 소비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관계자 대화에서 나온 의견은 결과보고 및 맵핑을 통해 실천과제를 수렴하고, 다음 이해관계자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참여위원들에게 과제의 진행 현황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Q6 현재 운영 중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가 가진 장점과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향후 이해관계자들과의 더욱 윤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 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A 이해관계자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내부적인 시각에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며, 하고 있는 업무 중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외부 시각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체계와 문화를 갖춰나가며,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가치창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쉬운 점이라기 보다는 처음 대화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대화에서 NGO와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자 대화는 NGO에 가지고 있던 작은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우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Q7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인 소통은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에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은 단순히 민감한 이슈에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 모색이 아닌, 해당 산업계 1위 기업으로서 더욱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더욱 노력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목표, 전략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장품 산업과 같이 소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특히나 고객의 니즈(Needs)에서부터 출발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는지,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상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윤리적인 기업이 되고자 하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 확보와 사회적, 환경적으로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 터 뷰

유한킴벌리

최 규 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6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윤리경영에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최규복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한킴벌리의 반부패 활동은 물론,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Q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윤리경영과 지속경영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생활 필수품으로 이미 친숙한 유한킴벌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신뢰의 기업인 유한양행과 세계적인 건강위생용품 기업인 킴벌리클라크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리대와 미용티슈, 종이 기저귀 등을 대량생산, 공급하여 국민생활 위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한킴벌리 제품들은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사랑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하기스 기저귀' '크리넥스 미용티슈' '화이트 생리대' '좋은느낌 생리대' '뽀삐 화장지' '스카트 키친타올' '디펜드 요실금팬츠' '그린핑거 스킨케어' '더블하트 육아용품' 등이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고객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2020년까지 비전을 세우고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개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창립 이래 최대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신공장을 충주에 준공했고, 2011년에는 죽전에 이노베이션센터를 만들고 스마트워크와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진행하여 제품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등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한킴벌리의 문화는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본 토대는 준법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6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윤리경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폭 넓은 시선으로 유한킴벌리의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한킴벌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 중 최규복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수사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점을 우수사례로 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유한킴벌리의 사회책임경영 활동 중 베스트 프랙티스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입니다. 1984년부터 진정성과 지속성, 우리사회 변화에 기여한 공헌도와 공익성, 사회와의 협력모델 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국유림 나무심기, 숲 가꾸기, 학교 숲 만들기, 북한 숲 복원활동과 동북아 사막화 방지활동, 청소년 환경교육 등 숲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30년 생일을 맞이하는 2014년까지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나무를 심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윤리적인 실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법과 규정의 엄격한 준수는 물론, 윤리경영, 환경경영, 노사화합 등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가족친화경영'의 두 축에 집중하겠다는 '비전 2020'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올해부터는 책임과 공헌의 내재화를 위해 사원들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전 사원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심기행사를 가졌으며, 2011년에는 충주공장 준공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많은 사원 및 사원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장 나무심기 자원봉사 활동을 있었습니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원들 스스로가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와 사회를 위해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진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가족친화경영의 경우는 향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함께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임활동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문화 속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내재화 하고, 모성보호 및 출산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립이래 최초로 가족친화경영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였고, 최초의 직장보육시설을 대전에 개설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겸손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배우려는 자세가 유한킴벌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Q③ 그렇다면 위 질문과 반대로 유한킴벌리의 활동 중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가요?

A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책임과 공헌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유한킴벌리는 도전과 창의, 신뢰와 배려, 그리고 책임과 공헌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책임활동의 주체가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사내문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원들은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를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Q4 기업의 반부패 노력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한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관련 국내 법률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함에 있어서 유한킴벌리만의 특별한 대응방법과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반부패 노력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넓고 깊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경영 차원에서 유한킴벌리에 거는 기대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킴벌리의 대표이사 사장은 취임하면서 사원들 앞에서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서약하며, 대외적으로는 매년 3월이면 윤경 SM포럼에서 다른 CEO들과 함께 윤리가 경쟁력이며, 윤리경영과 지속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지요.

또한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수행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준수는 반부패를 넘어서서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늘 점검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윤리경영, 반부패 노력과 준법이 사내문화로 내재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법문화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적법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끝없이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겠지요.

Q5 매년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등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선정되는 이유 중 하나로 사회책임경영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포지셔닝이 주는 책임감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유한킴벌리가 9년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고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때문에 유한킴벌리는 이러한 사회적 평가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회사의 핵심가치인 도전과 창의, 신뢰와 배려, 그리고 책임과 공헌을 일터에서 그리고 삶터에서 잘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유한킴벌리는 착하지만 강한 기업, 착하지만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6 이러한 유한킴벌리의 경영방식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타 기업과 기관의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유한킴벌리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강한 기업으로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면, 기업의 준법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은 경쟁력의 토대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뢰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끊임없는 혁신활동으로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미글로벌

김 종 훈
한미글로벌(주) 대표이사 회장

7월호『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은 기업의 구성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의 삶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 해 11조원이라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일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기업윤리 브리프스』는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GWP : Great Work Place)으로 많은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 이렇게 좋은 기회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미파슨스에서 한미글로벌로 사명을 바꾸고 또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기업윤리 브리프스』독자분들께 한미글로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한미글로벌은 1996년 미국의 파슨스(Parsons)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전문기업입니다. 국내에 선진건설관리기법인 건설사업관리(이하 CM이라 함)를 최초로 도입하여 국내건설사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CM은 발주자의 대리인

으로서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관리, 시공관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기술서비스를 통하여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사업주의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는 한미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하고 미국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오택(OTAK)을 인수하여 대규모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수처리 등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택(OTAK)을 인수한 것은 한국의 건설기업으로는 최초로 선진기업을 인수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글로벌이 명실공히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엔진을 장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2 김종훈 회장님께서 쓰신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라는 책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한미글로벌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한 개인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직장에서의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임직원들이 개인의 삶과 직장생활 사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미글로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활동과 특히 손에 꼽을만한 우수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 저는 개인 홈페이지의 'CEO 단상'에 올리는 글을 통해 항상 우리 구성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직장에서 일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런 구성원은 일에 몰입하게 되고 일에 대한 높은 성취를 통해 그 자체로도 충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경영방침의 하나로 '구성원 중심 경영'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아래 매주 목요일을 '자기계발의 날'로 정하여 전 구성원이 5시에는 무조건 퇴근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도인데 애플베케이션(안식휴가)이 있습니다. 임원은 5년마다, 직원은 10년마다 한번씩 2개월의 유급 안식휴가를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장기간 휴가를 내고 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안식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휴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고, 가족관계를 돈독하게 한다거나 평소에 시간이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던 운동을 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주제로 '월례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교양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독서를 장려하고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매월 서평을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등 삶에 대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기업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미글로벌의 직원들이 바라는 '일하기 좋은 직장'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일하기 좋은 훌륭한 일터(GWP)는 구성원이 서로 신뢰(Trust)하고, 회사 및 업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Pride)을 갖고 있으며 즐겁고 보람 있게(Fun) 일하는 문화가 형성된 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미글로벌은 구성원 만족도 조사(HGTI)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회사의 구성원들은 자부심과 신뢰지표에서는 포춘 100대 기업에 뒤지지 않지만 매년 재미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GWP LOUNGE'라는 쉼터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만족과 재미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구성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결혼, 출산, 보육, 가정, 경조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폭 확대된 가족친화(Family Friendly)조직문화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입양자녀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고 이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A 우리 회사의 경우 환우 구성원과 가족이 상당수 있습니다. 경력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원의 구성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중병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이 발견되면 구성원들이 '모금운동'이나 '사랑의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모은 금액과 회사의 지원금으로 직원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올 초부터 구성원들에게 금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 면접 때부터 흡연자는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구성원들에게는 금연서약서도 받았고 금연에 성공하는 구성원들에게는 포상도 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배우자는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업과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 및 육아를 위하여 같은 건물의 입주사들이나 인근 기업들과 협의하여 연합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도 힘들지만 보육과 양육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대내외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미글로벌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책임감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선들이 한미글로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일하기 좋은 훌륭한 일터'라는 인정은 회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일의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족한 고객은 우리를 다시 찾게 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일하기 좋은 일터에 대한 인식은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대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해야 할 점은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소통을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끊임없이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Q6 한미글로벌의 GWP를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타 기업의 경영자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GWP(일하기 좋은 훌륭한 일터)운동을 위해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한미글로벌은 구성원 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GWP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최고경영자의 GWP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GWP운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용이 소요되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에 비하여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예로 최근 모 언론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애플베케이션을 벤치마킹 하여 본인들의 형편에 맞도록 4년 근무하게 되면 1달의 유급 휴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넷째, 쌍방향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GWP는 결국 '사람간의 관계'의 문제이며, 동료간, 상하간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일하는 것이 즐겁고 성과가 향상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Q7 한미글로벌의 대표로서의 김종훈 회장님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김종훈 회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 여러분께 공유 부탁 드립니다.

A 스스로에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삶이 좌우됩니다. 특히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맞추어 줍니다.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임하고 여행이나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스스로가 충만해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LG전자

이 영 하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윤리적인 경영방식과 생산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윤리적인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렇듯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에 LG전자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LG전자의 경영지원 부문장인 이영하 사장님을 모시고 LG전자의 예비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육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LG전자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LG전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기에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LG전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특히 LG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영하 사장입니다.
LG전자는 1958년 국내 최초로 라디오 개발을 시작으로 TV, 휴대용 모바일 기기, 냉장고, 세탁기 및 에어컨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제조업체로서, 작년에는 54조 2천 6백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회와 더불어 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사랑받는 LG

전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Hope for Life's Good'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해 단순히 기부하는 활동을 넘어, 우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G전자의 사회공헌 활동의 시너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파트너쉽을 맺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개발국 빈곤 퇴치 및 양극화 해소, 환경성 질병 퇴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회사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활동으로 사회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CSR 리스크 관리입니다. 노동, 윤리, 환경, 안전보건 등 다양한 CSR영역에 있어서 자사의 모든 사업장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자사사업장과 협력회사에 CSR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개선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CSR측면에서 건강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자사의 CSR 활동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정부나 NGO, 시민단체 등의 CSR 관련 요구를 수렴하고 자사의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오늘 인터뷰에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LG전자가 사회적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LG전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요?

A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활동은, 2010년 11월, LG전자 및 LG전자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환경부, 사회적기업 전문가들과 손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 중, 직접 설립 방법보다는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들 중,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다른 기업과의 다른 점 일 겁니다. 이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생산성향상 컨설팅, 경영자 교육, 판로개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 하에 LG전자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작년에는 총 10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등 위에 언급된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2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조금 더 진화된 지원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LG전자와 인연을 맺은 기업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작년에 지원했던 10개사 중 2년 차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심사를 통해 무이자 대출의 혜택을 주었고, 신규 지원대상자도 선정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자금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작년에 지원하였던 기업 중 4개사, 올해 신규지원업체 10개사로 총 14개 사회적기업 을 대상으로 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혜택을 받는 4개 기업의 경우 무이자 대출이기는 하지만, 대출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대출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줄 예정이어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원방법은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생산성향상 컨설팅입니다. 오랫동안 제조업에서 큰 성과를 내었던 LG전자 생산사업장 명장들의 노하우와 스킬을 살려, 생산성향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사회적기업 경영자 및 직원을 위한 교육제공입니다. 올해 LG전자의 사회적기업

후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유명한 사회연대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올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월 주제별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밖에도 조직관리, 성과관리, 1:1 멘토링 프로그램, 해외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원 활동은 단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사례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에코시티서울에 대한 생산성향상지원 활동일 것입니다. 에코시티서울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자원재활용센터인 SR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노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분들에게 직업 훈련 후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었지만 사업 노하우 부족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작년에 에코시티서울을 LG전자 녹색성장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정지원사업의 1기 업체로 선정 하였고, LG전자 노동조합과 함께 생산성향상컨설팅을 하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실제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 올해에도 새로운 기업을 선정하여 생산성향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후원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정부, 각종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분들을 운영위원회원으로 모시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모임을 통해 우리의 후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사회적기업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4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육성은 물론 LG전자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품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A LG전자는 이미 말씀 드렸던 사회적 책임 활동 외에도, 고객들에게 환경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높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친환경적 원/부자재를 사용한 제품 제조, 그리고 고객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품 디자인을 고려하여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 중 하나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폰'입니다.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매년 2000대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휴대폰은, LG상남도서관, LG U+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디자인하였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친환경을 위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고효율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자원을 재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수처리 사업, 고효율 제품을 위한 LED사업,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모듈생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5 LG전자는 국내 대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육성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LG전자의 활동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타 기업들과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조언과 제안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LG전자는 내년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 할 예정 입니다. 기업마다 사회적기업을 후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이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LG전자도 자사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많은 기업가들이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세우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노력을 해 나간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인 터 뷰

아트라스콥코 코리아의 지속가능경영과 인권

유 리 아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홍보부 부장

Q1 아트라스콥코에 대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아트라스콥코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입니다. 압축기, 건설 및 광산 장비, 전동 공구 및 조립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873년에 회사가 설립되어 내년 설립 14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37,5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과 2011년 약 90억 유로(약 13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1961년에 아트라스콥코 서울 사무소가 개소되었고 1992년에 아트라스콥코 제조한국이 설립되어 2011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Q2 아트라스콥코 그룹의 대표적인 CSR 활동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아트라스콥코 그룹 차원의 대표적인 CSR 활동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Water for All"을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물이 부족한 국가에 깨끗한 물을 제공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이 사회공헌 활동은 아트라스콥코가 가진 장비를 이용하여 우물을 파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Water for All'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는 인간의 권리이다"라는 모토 아래 전 세계에 식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출한 국가 사정에 따라 꼭 우물을 파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기부금을 받아 물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내는 기부금만큼 회사에서도 기부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Q3 아트라스콥코 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CSR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Water for All' 프로그램은 아트라스콥코의 글로벌 CSR 활동이지만, 이를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노원 좋은 이웃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방과 후 석식 제공, 학습지도 및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지원사업, 문화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기부(매칭 그랜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임직원들의 80%, 2012년 현재까지 88%의 임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만큼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Task Force Team을 만들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시에는 다른 임직원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열리는 여름캠프와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아트라스콥코 코리아의 사장님께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으로 단지 기부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만날 기회가 자주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회사에 외국인 손님이 오면 함께 방문하여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거나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도록 하는 활동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1년에는 아트라스콥코 그룹의 홍보 수석부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스웨덴에 대해 소개 해주시며 아이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Q4 아트라스콥코는 2011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지속성장 가능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1/2012년 세계 일류 지속가능경영 기업들을 리스트화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주요한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아트라스콥코는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브랜드 약속인 "Committed to Sustainable Productivity(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SR 활동도 단기적인 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Water for All' 활동만 보더라도 1984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CSR 활동을 해온 것이 아트라스콥코의 지속가능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140년 동안 회사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Q6 아트라스콥코의 CSR 활동들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아트라스콥코 내부의 경영규범을 통해 그룹내의 모든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규범을 따르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의 경영규범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설립의 권리와 그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임을 명시하며 미성년자 노동 금지와 공정한 평가와 기회 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은 배경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매니저와 임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남성 임직원들이 많은 산업재 회사에서 이례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국제연합(UN)의 국제인권장전,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기구 선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유엔글로벌콤팩트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윤리 지침을 따름으로써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7 끝으로 아트라스콥코 코리아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십시오,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활동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CSR활동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진행 중인 활동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CSR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시도 속에서 가치있는 일이 발견된다면 그때 새로운 길을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건설

김 동 만
상임감사

Q1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들에게 포스코건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건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포항,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과 노하우 및 경험인력을 토대로 글로벌 E&C기업을 지향하며 1994년 12월 출범한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제철을 비롯한 플랜트, 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신도시 개발, SOC사업 및 초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건설사 중 최고 수준의 신용도(S&P: BBB, Moody's: Baa3)를 인정받고 있으며 2011년 국내 시공능력평가 4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2 포스코건설은 2012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으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경영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요?

A 포스코건설은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의 실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다졌으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설정할 때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활동 대상 선정시에는 국내외 1현장 1이웃 공헌활동을 통해 회사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8 포스코건설의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건설은 창립이래로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2003년 7월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고 2005년 4월 윤리경영 전담부서인 기업윤리 그룹을 신설하여 윤리교육, 비윤리 예방활동,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사이버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경영활동으로는 '사이버 신문고', '신고보상 제도', '윤리교육', '부서별 윤리실천 평가' 등을 소개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와 '신고 전용 Hot-Line'을 통해 인터넷과 전화로 비윤리행위, 공정거래관련 위반 사항, 회사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당사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5월에는 신고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으로 상향하고,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신신고 면책제도'란 당사 직원,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향응접대 및 금품수수 등의 비윤리 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리교육은 윤리담당 부서직원이 각 부서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해당 부서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맞춤식 윤리교육',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 윤리교육'을 비롯하여 '사이버 윤리교육', '공정거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각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feed-back을 해주는 '부서별 윤리실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사는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2010년 한국 윤리경영 대상'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평가에서 국내기업 최고등급인 AA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사업의 확대로 윤리경영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추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1년 3월 FCPA(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4 이번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주제가 '윤리경영 보고와 점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은 회사의 윤리경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자체적인 진단 혹은 평가, 모니터링 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앞서 언급한 '부서별 윤리실천 평가'를 통해 각 부서별로 윤리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자율적인 윤리 실천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부서별 윤리실천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패밀리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윤리실천 프로그램'은 윤리실천이 일상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윤리실천 수준 진단, 윤리실천 과제선정, 과제수행의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윤리Risk 발굴 및 개선활동입니다.
연초에 부서별 윤리실천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윤리실천 수준을 먼저 점검하고 직원 개개인 및 부서의 윤리 인식수준과 실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수준을 진단합니다.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토의를 거쳐 윤리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는 부서별 윤리담당자와 부서장이 매월 진행사항을 점검합니다.
연말에는 윤리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과제선정의 적정성, 과제수행 성실도, 구성원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5 말씀하신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를 시작하게 된 취지나 배경이 있나요?

A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평가'는 부서단위의 자율적인 윤리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항목은 패밀리 윤리실천 프로그램 수행도, 윤리교육 수료실적, 봉사활동 실적, 비윤리 행위 발생여부, 수상 실적 등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윤리관련 교육 및 부서별 윤리실천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평가'를 시행한 후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 평가지수가 매년 상승하는 등, 회사의 윤리실천 활동 강화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Q6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평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A 2012년도부터는 부서평가 결과를 부서책임자의 인사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서평가 결과 열위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인사고과시 좋은 평가를 못 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CEO 포상을 실시하여 윤리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Q7 윤리경영 진단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나 과제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평가 및 패밀리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통한 윤리경영 진단 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회사의 윤리실천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Q8 끝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기업의 도덕성이 경영성과에 반영되는 시대입니다.

윤리경영은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활동이며 지속가능 경영의 근간입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노력하여 기업문화로 정착시킨 결과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윤리실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건설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한 단계 더 높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또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 서적 리뷰

• 기업 국제 시민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기업사례) / 57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 관리자의 역할 / 6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 / 66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성공을 위한 원칙) / 72
• 소비주의를 알아야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다! / 78

기업 사례

기업 국제 시민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국제 시민화(Global Corporate Citizenship)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 시민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는 널리 알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찌감치 '마이크로소프트 UP(Unlimited Potential)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의 국제 시민화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 출처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업시민활동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rea/citizenship/index.html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IT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세계 인구가 공통된 IT 경험을 공유하도록 만들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데 섞인 결과물로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경영 혁신을 가져온다는 노력이 섞임
- 또한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통해 전세계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종사하게 될 미래의 인력수급 및 기업의 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의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정보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UP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우의 정보통신 기술 접근과 이를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2. 네슬레(Nestle)

네슬레(Nestle)의 활동 초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내용만이 다소 담겨있었으나, 여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국제 기업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초기 네슬레의 활동은 설비 공장 현지의 수자원 절약 및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한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됨
- 추후 네슬레는 단순한 기업의 재료 절감 차원이 아닌 지역 사회를 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국제 기업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지방 정부 및 NGO 단체들과의 협력을 함
- 기업이 지역 사회에 몇 병의 물을 기부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칠 수 있으나 네슬레는 '재활용 물통'에 오염된 물을 식수로 정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정제된 식수'를 담아 지역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국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국내 사례▐

1.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 현지 광물 채굴권 입찰 초기부터 기업의 국제 시민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 볼리비아 현지의 높은 영아 사망률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모자(母子)보건센터를 설립함. 영아 사망률 저하를 통한 현지의 인력 수급확충에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보탬이 됨
- 현지 자원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 등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지역의 광산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사회의 개선에 노력하는 점에서 기업 국제 시민으로 높이 평가됨
- CSR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지 생태계 보전 및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일조하고 있음

2. 대한생명

대한생명은 2009년 베트남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특성상 지역 사회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곧 기업의 국제 시민화를 달성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현지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나쁜 평판과 최근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신부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현지에서 크게 어필되며 인식을 변화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국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출처 : 동아일보 '베트남에 '굿 코리아' 알리는 대한생명'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20116014

- 법인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어린이 병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시설 보수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다가가는 노력을 보임
- CSR차원에서 벌어지던 활동들이 임직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어 기업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CSR활동이 활발해 짐
- 전체 임직원의 90% 가까운 베트남 현지 인력 확보를 통해 기업의 현지 법인화가 아닌 자국 기업으로서의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 시민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

▌기업의 국제 시민화에 대한 노력▐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기업 국제 시민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각도와 전략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보여주기 식의 사회공헌이 더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진정한 기업 시민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남는 자원을 베푸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와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보탬이 되는 국제 시민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 Foreign Affairs journal Vol 87. No.1,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Klaus Schwab, 2008
- 동아일보, '따뜻한 한국기업 세계를 품다〈1〉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2년 1월, http://news.donga.com/3/all/20120102/43013504/1
- 동아일보, '따뜻한 한국기업 세계를 품다〈4〉 – 대한생명', 2012년 2월, http://news.donga.com/3/all/20120115/43337958/1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업시민활동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rea/citizenship/index.htm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 관리자의 역할

기업 경영활동과 CSR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쉽다. 사회공헌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과 상충되는 활동으로 인식되기 쉽고, 기업의 관리자 또한 주변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사회책임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The Management Cas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CSR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라고 당부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는 기업의 경영진(혹은 관리자)들에게 왜 그들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기업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로 얻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경영진이며, 이러한 경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현재 CSR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였다.

1. CSR에 대한 쟁점

■ 법적 측면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 도의성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CSR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CSR을 위한 법적인 행동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왜 기업이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 사회적 측면

CSR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언급될 것이다. 기업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측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대와 요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며, 의무나 책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1)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의 요구라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기업이라고 평가 받게 됨
2)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시민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게 됨
3) CSR이 위험을 막고 기업에 이득을 불러오며, 소비자와 임직원의 충성도를 높여 높은 성장률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명성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 등 이점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음

■ **도덕적 측면**

'책임'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도덕적 측면에 관한 것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책임'은 어떤 이가 행동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선(先)학습 효과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도덕적 선학습(혹은 전달매개체, 즉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은 기업의 활동이나 의무에서 드러나게 된다.
2) '도덕적 선학습'의 효과는 어떤 이의 행동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택 또한 도덕적 행동이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 **경영적 측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이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하게 CSR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공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통계적으로 어떠한 절대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마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CSR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로 배분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1) 외부의 이익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 CSR은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누리는 특권 정도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CSR을 잘 실천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각종 규범과 관계에 대해 유연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법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적게 받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좋은

이미지나 명성을 가진 기업이 타기업들 보다 더 좋은 활동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2) 내부의 이익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들은 내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SR을 통해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으며, 더 나은 투명성, 도덕성, 신뢰성을 얻어낼 수 있고, 또한 기업에 대한 고객의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내부, 외부의 이익은 더 나은 경제적, 재무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SR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결국 더 많은 경제적 성과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임직원이나 고객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명함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이 어떠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거나, 특별한 수익원(특허권 등)이 있는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로 이해관계자들을 끌어당기고 이를 통해 기업의 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2.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인가?

앞선 보기를 통해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제 기업의 관리자 혹은 경영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외부적 요인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공급망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업의 주변 환경 측면이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명성, 위험도 감소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적 효과는 경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 두루 걸쳐서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내부적 요인

도덕적 선학습은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합리적이거나 심리적 혹은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들은 경영진이나 여타 의사결정권자들이 일시적인 보상이나 욕심 등 순간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평가하여

기업과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영자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시간 순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절대 독단적이어서는 안되지만 외부의 압력에 독립적이며 경영 전반에 걸친 여타 다른 사항들과 잘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들은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이 향후 기업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들은 관리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려하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SR을 포함한 기업 운영에 대한 결정은 앞서 언급된 도덕, 법규, 사회, 경영적 측면에 따라 분류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중 하나만을 고려한 결과는 경영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사회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기업은 온갖 종류의 사회적 활동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경영 측면에서만 생각하게 될 경우, 기업의 활동 방향이 '기회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 기업 활동을 이윤 추구의 측면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음 3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유효성

기업은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적 관점이 연관될 수 있다. CSR 활동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 요인을 고려할 수 없을 경우(수익 창출의 실패, 마진 감소 등)에도 CSR을 마지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2) 매력도

기업은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혹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도덕적 측면이 연관될 수 있다.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3) 지속가능성

이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는 신뢰도 포함된다. 도덕적 측면도 당연히 강조될 것이다. 기업은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3. 결론

기존의 의견과 달리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CSR을 기업경영의 새로운 기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경영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 방향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윤리적인 목표와 방향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자의 운영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CSR을 윤리적 책임으로 이해하고 경영자 측면에서 보았다.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결국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영자들 스스로가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 기업 활동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본 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Antonio Argandoña, “The Management Cas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ES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Navarra,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해관계자들을 적절히 참여시킴으로써 성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필요에 의해 상명하달식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고, 관리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말과 글로만 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임직원이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사회책임 프로그램에 대한 "조력자(enablers)" 또는 "수동적인 수용자(passive recipients)"가 아니다. 공동창조(Co-creation)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기업의 기대와 결과 사이의 차이를 해소해주고 있다.

공동창조(Co-creation)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 활동에 다중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 접근법을 활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1차적 이해관계자(임직원이나 고객 등)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사회책임활동을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동일한 조사를 통해 직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싶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직원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업이 함께 기부금을 지원하는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Matching gift program)은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공헌하고 지원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대부분은 기업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에게는 권한이 없다. 직원들은 이러한 체제하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최악의 경우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이해관계자 중심적이며 공동가치창출을 기본으로 한 접근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대화에 유용

하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가능한 앞당기게 한다. 기업은 공동창조 프로세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과 이슈를 더욱 폭 넓은 범위에서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자들은 어떻게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 활동 공식화의 4단계가 있다. 바로 명료성(articulation), 추출(generation), 정제(distillation) 그리고 선택(selection)이다.

(1) 명료성(articulation),

사회 책임 전략을 공식화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책임 가치가 창출되는가" 이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CR활동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참여시키기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결정한다. 더 넓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은 임직원에게 매력적인 목표보다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의 순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필요로 한다.

사회책임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확한 목표를 결정하고 투자를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기업은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초기에 지원하고, 이니셔티브가 장기적으로 실행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 책임의 목표를 가치 있는 방법으로 공동창조 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기업,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해와 지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2) 생성(generation),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시작되었다. 목표가 결정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설정한 후, 기업이 목표로 한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하길 추천한다. 개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는 물론 더욱 긴밀하게 관여하도록 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심층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기법으로는 "래더링(laddering)*"과 같은 제품 중심의 방법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상호 대화에 참여시켜야 한다. 대화를 통해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산업군과 기업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 기업에 대한 기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기업인가 등에 대해 질문을 주고 받을 것이다.

연구결과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되었을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나타나는 2가지 심리적 혜택을 보여준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거나, 좋은 기업 시민으로 인정받는 기업에서 근무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의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자 삶에 일관성을 가져온다. 특히,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이익에 일치하도록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일례로 지역사회에서 노숙자를 돕는 것에 관심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한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를 가진 기업이 되는 것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에 자기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공한다.

* 래더링(laddering)기법이란, 심층면접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가 제공하는 속성, 편익, 가치들이 어떻게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3) 추출(distillation)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를 설정한 후에도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이니셔티브에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또는 추출해내야 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최상의 사회 책임 이니셔티브는 낭비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매트릭스(중대성 매트릭스라고도 부름)를 만드는 것이다. 매트릭스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거나 매력적인 것,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영향력과 같이 기업에게 중요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 설정해야 한다.

(4) 선택(selection)

관리자는 상위 이니셔티브를 선택하고 최종 선택단계에서 타깃으로 하는 이해관계자의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이니셔티브는 매우 유용할 것이며(그들이 해당 이슈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나아질 것이며(그들이 더욱 본질적인 속성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이해관계자 간의 더 높은 수준의 화합을 제공할 것이다(그들은 강력한 정체성의 중복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인은 관리자가 특정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구현하기 전,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택 단계에서 조직 내 사회적 책임 전략을 결정하는 이들은 이니셔티브를 실행할 비영리 회사(또는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시작한다. 또한 기업과 NGO는 공동창조(co-creation)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일찌감치 '공감대'를 찾기 시작한다. 기업과 NGO의 멤버들로 구성된 개발팀은 조직, 조직의 운영(마케팅, 자원봉사 등), 비영리 기관 파트너, 이해관계자 참여의 유형 및 수준과 같은 그룹의 형태를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자 그룹은 공동창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가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행(Implementation)▐

위의 내용들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과 소비자들을 사회적 책임 전략의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책임 전략 수립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관계자 그룹은 전략의 실행자여야 하며, 실행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 결과, 기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 실행 전략의 성공을 주도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했다.

1) 이해관계자가 실행자인가? 단순한 조력자인가?
2) 기업 내 다른 것들과 사회책임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수평적인가? 수직적인가?
3) 관리자는 사회책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는가? 비공식적으로 유지하는가?

(1) 실행자 VS 조력자 (Enactor versus enabler)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회책임 이니셔티브를 위해 기업은 직원들이 사회책임 프로그램의 1차적인 실행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기업은 명확하고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직원들 간에 수직적, 수평적인 아이디어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시간에 사회책임 활동에 참여를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직원들에게 실천 가이드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사회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 관리자와 직원들이 CSR활동을 업무, 제품 등과 통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 및 물적 자원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사회책임 전략의 기본적인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 또한 이러한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들이 임직원처럼 회사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닐지라도 그들 또한 실행자로서 차별화할 수 있다. 기업이 소비자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보답을 할 때, 공동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수평 VS 수직 (Horizontal versus vertical)

사회적 책임 이행은 수평적 관계에 따라 모든 실행자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 네트워크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함으로써 그들은 회사와 밀접해질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다른 중요한 구성원과도 밀접해진다.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만든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행동에 힘을 부여하고, 성공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크게 신뢰, 상호 이해, 그리고 공유가치와 행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결속시키며, 협력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3) 공식 VS 비공식 (Formal versus informal)

트렌드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것이 더욱 혁신적인 기업 경영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은 직원들 간의 공동창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공동창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임직원을 위한 특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조직의 모니터링,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들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하길 권장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업무를 정의하며 기업 운영에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결론(Conclusion)

공동창조 그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CSR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다.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관리자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해, 유용성, 화합의 3가지를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가는 등 주요 변수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은 그들의 1차 목표를 결정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과 사회책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세부적인 사회 이슈와 관련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질적, 양적 연구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창조에 대한 최선의 접근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조력자(Enabler)보다는 실행자(Enactor)가 되도록 하며, 수직적인 네트워크 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는 비공식적인 방식보다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답해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출처: Ethical Corporation(www.ethicalcorp.com), 2011.11.4
* 이 글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Leveraging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Stakeholder Route to Maximizing Business and Social Value"의 제7장 "Co-creating CR strategy"을 수정한 버전이 Ethical Corporation에 실린 것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성공을 위한 원칙)

장 대 철
KAIST 경영대학

본 고에서는 현재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 준법 경영의 핵심적인 최우선 과제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성공 원칙[1)]

(1)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및 절차

기업은 범죄 행위를 예방 및 탐지하고 법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윤리 강령은 견고해야 하며 윤리적 행동을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

- ✓ 현행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단지 법규 준수만을 강조하는가?
- ✓ 회사의 윤리강령이 개인의 책임을 장려하는가 아니면 준수해야 할 일련의 규칙들을 나열하기만 하는가?
- ✓ 윤리적 행동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내면화된 구성 요소인가?
- ✓ 회사의 윤리 강령은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해 납득시켜 주는가?

〈윤리 강령 벤치마킹 및 평가〉

엔론사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65쪽 분량의 윤리 강령이 있었지만 대규모 회계 사기 발생 방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윤리 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에티스피어(Ethisphere) 매거진이 윤리 강령 벤치마킹을 위해서

1) 본 고의 1장에서는 마틴 비겔만의 저서인 『Building A World-Class Compliance Program』(국내 번역서 제목은 '윤리 준법경영의 성공 전략, 컴플라이언스'임)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 ·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사용했던 것이다.

- ✓ 대중의 입수 가능성 : 윤리 강령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외부인들의 윤리 강령 입수 가능성 및 접근의 용이성은 어떠한가?
- ✓ 상부에서의 기조 : 회사 고위 지도자들은 윤리 강령에서 다루는 가치 및 주제들에 얼마나 가시적으로 진력하는가?
- ✓ 가독성 및 어조 : 윤리 강령에 사용된 스타일 및 어조는 어떠한가? 윤리 강령이 읽기 쉬우며 해당 기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 보복하지 않음 : 보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진술되어 있으며, 명시적인가? 이러한 진술이 얼마나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 ✓ 이해당사자에 대한 진력(commitment) : 윤리 강령은 이해 당사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윤리강령이 컴플라이언스에 진력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 ✓ 리스크 주제 : 윤리 강령은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적절하고 중요한 모든 리스크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
- ✓ 학습도구 : 윤리강령은 직원과 다른 사람들이 윤리 강령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Q&A, FAQs, 체크리스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모범적인 행동, 사례 연구 등 학습 도구들을 제공하는가?
- ✓ 표현 및 스타일 : 윤리 강령이 설득력 있게 읽혀지는가? 배열, 활자 크기, 그림, 단어의 사용 및 구조 등이 고려되는 요소이다.

(2) 기업의 리더십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조직의 최상층부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최상층부에는 대개 CEO, CFO, 이사회가 포함된다. 이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효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회사 최고위급의 특정인에게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무 책임을 맡는 직원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버넌스의 최상층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 상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적정한 자원과 적절한 권한, 그리고 조직 거버넌스의 최상층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부여되어야 한다.

- ✓ 고위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 ✓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감독하는가?
- ✓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가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흐름 프로세스는 어떠한가?
- ✓ 임직원은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가?
- ✓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자원과 권한이 있는가?

(3) 금지 대상자 제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회사는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불법적인 활동이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할 사람에게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회사는 현재 및 장래의 임원 고용 시 배경을 점검하는가?
- ✓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배경을 점검하는가?
- ✓ 회사는 특정 위반 행위가 공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 ✓ 컴플라이언스 및 조사 팀은 적시에 철저하고 전문가다운 조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회사가 기업 비리 행위를 신속하게 알아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 ✓ 회사는 특정 컴플라이언스 실패 이유에 대한 근원 분석을 수행하는가?

(4)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연수 및 의사 소통

회사는 직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과 절차 및 기타 다른 측면들을 정기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수는 거버넌스의 최상층부, 기타 고위 임원, 직원 및 적절한 경우 회사의 대리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 회사는 리스크를 평가하여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연수 과목을 파악하는가?
- ✓ 회사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따른 결과를 알려 주는가?

- ✓ 회사는 직원 등이 사고 및 문제에 대해 보고할 적정한 장치를 갖고 있는가?
- ✓ 회사는 어떻게 모든 직원들에 대한 연수 내용을 정하여 시행하는가?
- ✓ 조직 내에서 연수는 얼마나 자주 제공되고 업데이트되는가?
- ✓ 기업 가치 및 법률 상 이슈들은 기업 문화의 동인으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칙으로 적절하게 소통되는가?
- ✓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 회의 시나 다른 모임 시에 관련 연수를 제공받는가?
-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적정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되는가?
- ✓ 회사는 연수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는가?
- ✓ 회사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모범 관행들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이 경험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실패 사례들도 파악하고 있는가?

(5)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

회사는 범죄 행위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감사 등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이 준수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과 대리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우리 조직에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에 관해 지침을 구하는 사람들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는 보고 제도가 있는가?
- ✓ 현행 정책과 절차들은 견고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적정한가?
- ✓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정책과 절차들을 정하였는가?
-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및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생성하였는가?
- ✓ 직원들은 교육과 연수를 통해 윤리적 및 법률적 곤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받았는가?

(6)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징계 조치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은 이에 다른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관성 있게 증진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은 범죄행위에 관여하거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증진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 ✓ 회사는 비윤리적 행위나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만큼 윤리적 성공 사례를 칭찬하는가?
- ✓ 성과 관리 및 보상 체계는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고 보상하는가?

(7)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시정 조치

회사는 범죄 행위가 탐지된 후에는 범죄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에 적절히 대응하며, 회사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등 향후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범죄 행위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범죄 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요건 설계, 시행 또는 수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가?
-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상품, 서비스 및 조직 구조의 변화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 회사는 회사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안에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메시지를 포함시켰는가?
- ✓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신속하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가?
- ✓ 회사는 윤리를 비즈니스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기는가?
- ✓ 위반 행위 발생 시 외부에 공개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 회사는 형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최고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가?

2. 현 컴플라이언스 추진 방향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2)]

현재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운행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1) 징계 및 감사 프로세스 구축과 실질적인 실행, (2)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실행, (3)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과 실질적인 실행, (4) 회사의 경찰 되기와 같이 조직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회사를 윤리적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임원과 직원의 징계 조치에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쉬운 일에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리 경영과 관련된 쉬운 일에는 연수 실시, 윤리 강령의 제정 및 시행, 윤리적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과 최고 경영진의 의지에 대한 강조(보통 의지가 실천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음) 등이 있다.

따라서, 피상적이기만 할 뿐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은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케팅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윤리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래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신뢰성은 기업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러한 작은 실천이 점차 모일 때 더욱 좋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더 작은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2) 2장은 저자의 의견으로 소속기관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소비주의를 알아야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다!

장 대 철
KAIST 경영대학

본 고에서는 윤리적 제품과 브랜드, 윤리적 소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소비주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소비주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윤리적 방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자.

1. 소비주의의 실체[1)]

■ 소비주의에 대한 3가지 이론들

현재 소비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보수주의 모델로 소비주의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이 자유시장과 결합하여 소비자본주의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급진주의 모델로 소비주의를 문화적 억압으로 보는 관점으로 빈 서판(진화된 본능이나 선호, 적응을 갖지 않지만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뇌)과 억압적인 제도(일반적으로 정부, 기업, 학교, 미디어 등), 그리고 부당한 이데올로기(종교, 가부장제, 순응주의, 엘리트주의, 인종주의, 주류 경제학 등)의 결합이 소비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중용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 중용적 모델은 유토피아에서나 작동할 '생태-공동체-원시주의' 원리와 지금까지 몇몇 인간 사회에서 우연히 확대되어온 소비자본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것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1) 본 고의 1장에서는 제프리 밀러의 저서인 『Spent』(국내 번역서 제목은 '스펜트'임)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 ·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21세기 초의 소비자본주의

= 자신의 바람직한 형질들을 무의식적으로 과시하려는 인간 본능

+ 그런 마음의 형질들을 특정 종류의 증명서, 직업, 상품, 서비스를 통해 과시하게 만드는 현재의 사회 규범

+ 현재의 기술 능력과 기술 제약

+ 특정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 역사적 우연과 문화적 관성

■ 소비는 기본적으로 필요보다는 나르시시즘에 기인하고 있다.

소비자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측면은 과시와 자기 자극이다. (1) 과시는 형질(좋은 유전자, 건강, 사회 지능 등)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타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생의 목표는 성공, 명성, 재물이고, 과대망상, 타인의 찬탄을 추구함, 지위에 대한 집착적인 망상, 오만, 야심, 겸손함 결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이팟을 사는 경우 잘빠진 디자인과 애플 브랜드명 때문에 사게 되면 과시적 나르시시즘에 해당한다. (2) 자기 자극은 즐거움 전달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행복, 재미, 욕망 충족을 추구하고, 유아론, 즐거움을 추구함, 과도한 자기 자극, 완전주의, 짜증, 공감 능력 결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이팟을 사는 경우 하드 드라이브 크기, 사운드와 스크린의 질, 배터리 수명, 가벼운 무게, 맞춤 커버 등 때문에 사게 되면 자기 자극적 나르시시즘에 해당한다.

■ 우리가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 적응도를 표현하는 매력적인 형질들이다.

우리가 구매한 제품들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주류 마케터들은 부, 지위, 취향을 과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호한 것들이다. 실제로 정말 매력적인 형질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 매력,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지능, 성격 같은 보편적이고 안정적이고 유전되는 형질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과 대화에서 상당히 잘 평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형질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해서 사들이는 상품과 서비스들은 대개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며 때로는 없는 것이 더욱 낫다는 사실이 소비주의가 쉬쉬하며 감추는 작은 비밀이다.

■ 왜 우리는 소비주의적인 형질과시에 그렇게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낭비할까?

오늘날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로 자신을 치장하는 목적은 즐거움보다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내재적인 사용가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제품과 소비자의 갈망을 연결시켜서 제품을 그것의 물리적 형태가 보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광고와 브랜드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에 바탕을 둔 소비주의는 현재 가장 막강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형질 과시 방식들을 없애고, 우리가 그 많은 제품들 없이도 남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틈이 나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일하고 쇼핑하고 제품을 과시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주의는 두 가지 커다란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짝, 친구, 가족과 진지한 장기적 관계를 맺고 싶을 때 평균 이상의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평균 이하의 형질들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제품들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결함을 가릴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짝을 구하는 마흔 일곱 살의 독신 여성이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얼굴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살을 줄일 수 있고, 나이의 흔적을 단기적으로는 가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밝은 대낮에 손과 목에 나이의 흔적이 보여질 수도 있고, 사회 관계에서 나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즉, 형질을 개선하는 제품들은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소비주의가 조장하는 두 번째 거짓말은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자연스러운 행동보다 더 멋지고 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매력적인 형질들을 드러내준다는 것이다. 소비주의는 더 나은 제품이 더 효과적인 (매력적인 형질을 전달하는) 신호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품의 디자인이나 특정 면모가 기술적으로 개선되었다든지 제품 브랜드화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수법이 개발될 때마다 신호 효율이 높아진 것처럼 선전한다. 제품의 명목상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광고는 과시적 소비의 신호기능을 넌지시 알려주되, 서로 다른 제품들 사이의 상대적인 신호 효율, 인공적인 제품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사이의 상대적인 신호 효율에 대한 정량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 제품의 형질 전달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면 너무 쉽게 거짓임이 탄로 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신 남성을 겨냥한 스포츠카 광고는 그 차를 몰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주목을 더 끌 수 있다고 넌지시 말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그 스포츠카의 운전자는 차의 가격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여성의 관심을 누리지 못하고, 유머 감각을 늘리는 것이 엔진 마력을 높이는 것보다 여성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증명하기는 너무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본주의에서 광고 또는 브랜드는 제품의 명목상의 기능이나 특징, 사양, 새로움, 인기, 브랜드로 소비자의 의식적 관심을 사로잡고, 그 제품이 지위와 성적 매력을 알리는 신호로서 기능한다는 약속은 조용히 아무런 설명 없이 무의식 속으로 침투시키게 되는 것이다.

■ **매력적인 형질을 전달하는 신호는 모방이 어려워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모방이 가능한 경우에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과시적 희귀성, 과시적 낭비, 과시적 정확성, 과시적 평판을 통해서 모방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과시적 희귀성은 핑크 다이아몬드, 렘브란트의 그림,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드레스 등이 그 예이다. 과시적 낭비, 과시적 정확성, 과시적 평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비교의 근거	과시적 낭비	과시적 정확성	과시적 평판
비용의 형태	물질, 에너지	집중, 기량	사기꾼 처벌
신호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양이 얼마나 많은가	정보 브랜드	인지도
단서	크기가 큼 값비싼 재료 표면 일시적임 규모	오차가 작음 정확한 디자인 대칭성 신뢰성 복잡성	규모가 큼 독특한 디자인 원형성 유행 인기
과시자의 감정	아낌없음	자부심	허영심, 자만심
구경꾼의 감정	압도	매혹	친밀감, 시기심
자동차 브랜드	허머	렉서스	BMW

과시적 낭비의 예로 허머 H1 같은 사치품이 있다. 이것은 크고, 대칭적이고, 화려하고, 거추장스럽고, 값비싸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성질들은 그 위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허머 H1은 부를 나타내는 지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설령 허머 H1을 훔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나 보험료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형질이 높음을 나타내는 위조하기 어려운 적응도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즉 비용을 많이 들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렵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질(자질)이 좋다는 신호를 믿도록 만들게 된다.

과시적 평판은 소비의 탈물질화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과시적 평판의 영역으로 가면 제품의 신호 신뢰성은 더 이상 제품 자체에 투자된 자본(과시적 낭비의 경우)이나 제품의 디자인이나 제조에 투자된 자본(과시적 정확성의 경우)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의 마케팅이나 브랜드 작업에 투자된 자본에 의존한다. 제품의 평판과 브랜드 자산은 제품의 물질적 형태 안에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와 관찰자의 뇌 안에 존재한다. 브랜드 자산이 신호를 내보내는 사람 본인(제품의 실제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 수신자(타인의 제품 소비를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 **과시적 평판(마케팅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일까? 윤리적인 소비 방법은 무엇일까?**

브랜드 비판자들은 브랜드 제품이 부당한 사회적 비교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관찰자들이 제품 소유자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고 그럼으로써 열등감을 느낀다면 억압을, 관찰자들이 실제로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기기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느 경우든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는 인간의 노력, 주목, 허영심을 허비해가면서 사회적 지위의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과시적 평판은 과시적 낭비와 과시적 정확성과는 다르게 생태 환경에 과도한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신호를 전달하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신호 전달 원리이다. 우리가 자기 과시를 버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성격 형질을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각자가 갈구하는 사회적 성적 주목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과 행동들이다.

- ✓ 소비를 단념하기 전략: 자기 과시는 단념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전략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 ✓ 자기과시 전략 검토: 과시 전략의 진정한 사회적 성적 목표가 무엇인지, 형질 과시 행위로서 얼마나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지, 현존하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기본적인 자기과시 전략은 돈을 많이 버는 정규직을 찾는 것과 거기서 번 돈으로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를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중에는 일하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는 쇼핑을 하며 보내게 된다. 구매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부당할 정도로 높은 구매 가격을 통해 보수가

좋은 직업과 기업이 요구하는 형질들인 합리적 지능, 보수성, 성실성, 도덕성 부재를 증명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스타일과 여가 활동을 통해, 배우자와 친구들이 요구하는 정반대 형질들인 따뜻한 정서, 개방성, 자발성, 미덕을 증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량 생산된 브랜드 신제품을 매장에서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하는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인 자기 과시 전략이다. 현재의 자기과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 웬만하면 사지 마라: 그 제품이 정말로 필요한지 며칠 동안 생각해보라. 특히 그 제품의 과시적 면모와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라. 많은 제품들의 경우, 소유와 소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순비용은 단기적인 이익을 초과한다.
- ✓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
- ✓ 친구나 친척, 이웃에게 빌려라 : 빌리는 행위는 호혜주의, 신뢰,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자본도 늘려준다.
- ✓ 대여하라 : 우리가 대부분의 제품을 생각만큼 자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는 대신 대여하는 게 현명할 때가 많다.
- ✓ 중고품을 사라.
- ✓ 비싸진 않지만 비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보통 제품이 많이 있고, 중저가 복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제품의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의 특정기술과 디자인이 대량생산 브랜드로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고급 브랜드가 제공하는 것들을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 직접 만들어 써라 : 직접 만든 물건은 타인이 만든 물건보다 훨씬 효과적인 형질 과시 수단일 수 있다. 취미와 수공예는 한 사람의 공식 업무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넓은 영역들에 걸쳐 지능, 창의성, 성실성을 과시할 수 있게 해준다.
- ✓ 동네 공방에 의뢰하라 : 이 경우 재료값은 더 들겠지만 이윤 폭이 더 낮기 때문에 반지의 질은 더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을 선물하는 일의 이야기 가치는 가슴 뭉클하게 낭만적인 것이다. 또한 의뢰하는 행위는 높은 창의성과 자원 동원력, 헌신, 성실성을 보여준다.
- ✓ 새 기술을 사기 전에 3년을 기다려라.
- ✓ 선물로 받아라
- ✓ 대부분의 소매품에는 과시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소매점에서 돈을 쓰는 행위는 좁은 범위의 형질들만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돈을 벌거나 훔치는 능력, 결혼할 능력, 부를 물려받을 능력,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되고 있는 제품에 그 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지각 기억과 미디어 접근 능력이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대안들은 소매점에서 돈을 쓰는 것을 최소로 줄이는 시도들인데, 목적은 단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형질 과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대안들은 소비자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된 자기과시 욕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값싸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전략들은 돈은 더 적게 들지만 시간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경제, 시간, 사회생활, 형질 과시 등 모든 맥락에서 구매 행위를 평가한다면, 이러한 전략들이 더 낭만적일 뿐만 아니라 더 합리적인 구매인 경우가 많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선물이나 상품이 우리의 마음씨와 취향을 알리는 훨씬 믿을 수 있고 인상적인 신호가 된다.

■ **우리의 자기과시 본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매력적인 형질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윤리적 소비는 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된다.**

현 소비주의의 과시적 소비는 인간의 수많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본능들을 억압해 소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친화성과 성실성 같은 몇몇 핵심 성격 형질들에 대한 훌륭한 지표들을 제공하는 데에 특히 취약하다. 소비자들은 이런 형질들을 과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과시적 소비에서 탈피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과시적 소비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용지를 구입하려고 하며 공정무역커피를 구매하고자 한다. 이렇게 과시적인 윤리적 소비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강력한 것이지만 친화성과 성실성을 과시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와 환경에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소비자본주의가 하는 일은 대개 백합에 금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 지능, 고운 마음씨, 창의성, 아름다움 같은 자기과시를 위한 놀라운 적응들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를 사귀고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고 명성을 얻는 데에 이 능력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대신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하고 소비를 해 얻은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해 자신의 형질들을 타인들에게 알린다. 이런 값비싼 신호들은 대개 불필요하거나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타인들은 보통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 타인들은 얼굴을 맞대고 자연스러운 교류를 나누며 우리를 판단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돈으로 치장하고 남들이 빛나는 눈으로 쳐다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친구와 짝짓기 상대를 고를 때는 그들의 금붙이를 무시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생태-공동체-원시주의 원리만으로는 지저분하고 무지하고 지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만으로는 나르시시즘, 소모, 소외밖에는 얻을 게 없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질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을 자유가 필요하다.

2. 윤리적 소비의 의미[2)]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나르시시즘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비는 현재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의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찾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매력적인 형질들을 무의식적으로 과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자신의 매력적인 형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형질 전달 신호의 모방 가능성을 낮추고자 많은 비용을 들이는 전략도 인정해야만 우리는 현재의 소비주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맨살을 드러낸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매력적인 형질의 전달 및 과시)은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윤리적 소비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함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인 성실성과 친화성 등과 같은 자신의 매력적인 형질을 잘 표현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2장은 저자의 의견으로 소속기관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윤리경영 트랜드

• 제 1 호 - 기업의 국제 시민화의 변천사 / 89
• 제 2 호 - 윤리경영과 CEO의 긍정적 상관관계 / 92
• 제 3 호 - 국내 동반성장의 흐름 / 95
• 제 4 호 - 과거의 이해관계자, 오늘의 이해관계자 / 101
• 제 5 호 - 반부패라운드의 역사와 동향 / 105
• 제 6 호 - 착한 여행을 떠나다 / 108
• 제 7 호 - 공정무역의 도시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 112
• 제 8 호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 감축 사례 / 116
• 제 9 호 - 인권경영의 역사와 발자취 / 120
• 제10호 - 2012년 윤리경영 평가 / 124

제 1 호

기업의 국제 시민화의 변천사

기업의 국제 시민화(Corporate Global Citizenship, 글로벌 기업 시민화)는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목표에 입각한다. 이 개념은 국제 기업들의 계몽된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국제 정치, 경제, 환경,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기업 국제 시민화가 발전해 온 흐름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WEF와 협력기관들은 이러한 이슈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1년 WEF는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첫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주주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년 뒤 WEF의 정례모임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개념은 다보스 선언문(the Davos Declaration)의 주요 골자가 되었으며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연결 짓는 기초 원칙이 되었다.
- 2002년 1월에 40여 개가 넘는 주요 기업의 CEO들이 '기업의 국제 시민화 : CEO와 이사회에 대한 리더십 개발'과 관련한 선언문에 서약하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기업이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수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2004년에 기업의 국제 시민화 이니셔티브는 웨일스 왕립 국제 경영 지도자 포럼(the Prince of Wales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과 공동으로 '가치와 가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VALUE AND VALUE: Communicating the Strategic Importance)'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 그리고 투자자 관계 담당자(IR Officer)들이 기업의 사회와 환경적 성과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2008년에 열린 정례 WEF 모임에서 기업 시민화(국제 기업 시민화가 아닌)의 선두기업 대표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의 국제 시민화 이니셔티브 자문 위원회(the Corporate Global Citizenship Initiative Advisory Committee)는 '공공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한 협력: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대한 리더십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WEF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 교수는 2008년 미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제 관계 저널(Foreign Affairs journal)에 '정부 및 민간 사회와 함께 일하기(Working with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라는 칼럼을 기재하였다. 이 칼럼에서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법을 수립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 협력과 각 컨셉에 맞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위의 사항들을 기초로 할 때 21세기에 기업의 국제 시민화는 어떻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1. 기업 시민화는 기업의 경영 이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기업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 동력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고 보다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기업의 최고위 관리자부터 일반 사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및 여타 정책 입안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투명성이다.

▌기업 국제 시민화는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영국계 광산 개발 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의 CEO 신디아 캐롤(Cynthia Carroll)은 기업 시민화를 정의하기 위해 1954년 세워진 자신의 회사 창업주의 말을 인용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것이나 다른 더 중요한 목적에는 기업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시민화는 기업의 경영 모델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 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은 지난 2009년 CSR 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72% 가량을 더 지출했다. 이 활동 중에는 단순히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교육 및 교육 훈련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 협력업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까지 확대 교육을 한 점이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수자원 절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앵글로 아메리칸과 CEO 캐롤의 회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같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앵글로 아메리칸과 캐롤은 기업 국제 시민으로서 각 지역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였다. 일례로 안전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지역의 사업장을 아예 폐쇄조치 시키고 전체 임직원을 재교육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은 다소 무리라고 비춰질 수 있으나, 전 임직원과 그 지역사회에 그들이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캐롤은 앵글로 아메리칸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거나 이로 인해 광산 산업의 산업 기준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하였다.

* 출처 : 2010 the World Economic Forum Davos, the 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

윤리경영과 CEO의 긍정적 상관관계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지칭하는 표현 중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CEO의 의미가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고 윤리 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를 의미하는 CEO와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hief Executive Compliance Officer)'를 의미하는 CEO 등의 표현이 기존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그만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CEO와 윤리경영

이미 수없이 거론되어 왔듯,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발생한 A 그룹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횡령·배임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회장 개인의 활발한 윤리경영 활동과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우수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시회가 갖고 있는 좁은 가치 사슬의 순환 구조에서 오는 정경 유착, 탈세,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업의 논리와 '기업가가 나서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등의 안이한 윤리의식은 지난번 한 국제행사 유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전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개인 스스로 윤리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을 필요로 한다.

CEO의 윤리경영 서약

최근 발생한 여러 기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없이 지적되어 온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및 기업에 미치는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오늘날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포럼으로 '윤경SM포럼'을 들 수 있다. '윤경SM포럼'은 지난 2002년에 발족하고 2003년에 포럼을 시작하면서, CEO 및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개인의 실천의지를 담은 서약식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윤경SM포럼

지난 2002년 윤리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믿는 기업들이 모여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갈 다자간 포럼인 윤경SM포럼(BEST Forum: Business Ethics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for Top Performance)을 발족하였다. 발족 당시 산업계에서는 산업화 측면에서 볼 때 윤리경영이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윤리경영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이익이 된다'는 슬로건 하에 현재까지 10여 년의 역사를 지켜오고 있다. 10년째 지속되어오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있어 윤리경영과 지속경영은 기업의 필수전략이라는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윤경 CEO 서약식

앞서 언급했듯 윤리경영의 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이다. 윤경SM포럼 CEO 클럽에서는 매년 윤리경영과 지속경영에 관심을 둔 기관의 CEO 들이 모여 '윤리경영 의지 재천명을 통해 국내의 윤리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은 '윤경CEO 서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이 넘는 기업의 CEO가 참석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매년 재천명하고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에 관심 갖고 기업 전체적으로 윤리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윤경SM포럼은 매회 국내외 윤리경영 및 지속경영 트렌드에 대한 주제 발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업 방문, 워크샵, CEO 서약식, 분과위원회 개설 등 다채로운 컨텐츠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포럼 형식에서 벗어나 기업 방문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윤리경영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간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현실감 있는 모임을 만들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신설된 분과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포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으며 테마 봉사활동, 지식 나눔 등 다양한 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O의 윤리경영 의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리더들은 항상 모든 일에 책임을 갖게 되어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자리의 리더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최고경영자나 경영진이 종종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뒤로하고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윤리의식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조직의 미래와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에 반대될지라도 구성원 모두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윤리의식에 대한 확고한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벌어지는 어긋난 행동들 또한 CEO가 지양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기업의 CEO라면 조직의 단기적 이익 보다는 먼 미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윤리의식이 바탕 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릇된 행위를 일삼던 기업의 몰락은 세계 곳곳의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CEO의 확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 호

국내 동반성장의 흐름

산업화 이후 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칠 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독립 후 한국전쟁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21세기에 들어서는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성공역사를 써왔지만 급속 성장의 그늘에서 양극화 심화와 공정 사회실현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 중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국내 동반성장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체수의 99%, 전체 고용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대 대기업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동반성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동반성장이란?

동반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통용되는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공생 발전 개념으로 이해된다. 김기찬 교수(가톨릭대)는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과 기업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동반성장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 개념의 등장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한 정책은 주로 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2004년부터는 정부차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005년 5월 당시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확보 체계구축'이라는 세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9대 과제를 상생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이후 2006년 8월 30일 발표된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더 큰 틀의 종합보고서에서는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적극적으로 언급되었다. 당시 '비전 2030'보고서에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전략으로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이 분배를 개선할 수 없으므로 동반성장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였고, 사회적인 관심 또한 이끌어내지 못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 발족에서 현황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밝힌 이후, 당해 9월부터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고, 4개 부문으로 구분된 15가지 동반성장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의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반성장 추진 점검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1.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2.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3.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4.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5.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6.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7. 2·3차로 동반성장 전략 확산 8.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9.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10. 중소기업의 경영선 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11.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12.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13. 산업단지 환경개선	14. 민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15. 정부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

자료 : 산업연구원(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그리고 당해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정운찬)가 출범하였는데,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 2011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선정' 발표

○ 2011년 12월, '대 · 중소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사업조정' 신청 권한 부여와 '사업 조정'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 포함.

2. 동반성장지수선정

○ 2011년 2월 23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56개 선정 발표.

○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로 구성.

○ 2012년 4월 말,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4단계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개선)으로 분류하여 발표 예정

2. 대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 2004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93개의 기업이 성과공유제 참여

○ 원가절감, 부품공동개발, 납품단가 조정, 현금 배분 등을 통해 실행

▌동반성장 추진현황▐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이후 대 ·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GS칼텍스는 2010년 '협력사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협력사의 기술과 교육 지원을 더욱 체계화 시켰고, SK하이닉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상 탄소 감축 기술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이후 CJ제일제당, 대상, SPC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의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1월 전경련 조사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의 1차 협력사의 80%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지난 1년간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는 동반성장 관련 국내 공 · 사기관들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 한국남부발전과 코캣의 가시매연 저감 신기술 공동개발 한국남부발전은 배기가스 중 이산화질소(NO2)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긴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캣과 가시매연 저감장치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 하였다. 남부발전과 코캣이 30개월에 걸쳐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로 인해 남부발전은 황적색의 매연이 생기는 가시매연이 사라짐에 따른 주변민원 해소 및 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예상하고 있고, 코캣은 기술력 향상 및 발전시장에서 자사의 미래 매출액이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K텔레콤과 디지캡의 수신제한시스템 기술 공동개발 SK텔레콤이 디지캡이라는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로 외산 솔루션이 대세였던 수신제한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CAS) 부분에서 100% 국산화를 실현시켰다. 위성 DMB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신제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SK텔레콤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디지캡의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대기업에 귀속되던 종전의 통상관례를 깨고, 디지캡의 CAS 솔루션이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 방송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재정지원	- 포스코의 성과공유제 포스코는 2004년부터 협력사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까지의 성과공유제 지원금은 402억원에 이르며, 2010년 12월부터는 대상 기업을 1차 협력사에서 2~4차 협력사로 확대하였다. 포스코는 상생협력을 통해 현재 매출 1억원대의 협력사 3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현대건설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현대건설은 2010년 6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펀드는 현대건설의 출연금 200억원과 은행 출연금 400억원을 합하여 이루어졌으며 680여개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되고 있다. 이 상생펀드는 담보 없이 제공될 뿐 아니라 시중보다 최대 1%낮은 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지원	- 금융권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납품 후 대기업의 늦은 대금결제이다. 금융권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하나은행은 '상생패키지론'을 통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했다는 근거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IBK기업은행은 대기업 1차 협력기업인 서울반도체, 세종공업 등과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2,3차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협력회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검수 후에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호 지원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현금 유동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실시한 이후 2011년 처음으로 협약 체결 기업이 100개사를 넘었다. 이처럼 동반성장문화가 점차 뻗어나가는 추세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윤리경영이다. 기업의 동반성장이 윤리경영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 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윤리경영을 접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0년 11월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을 신설하였는데,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체 윤리경영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윤리의식을 고무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동반성장이 윤리경영과 함께 하면 협력회사 선정의 공정성과 구매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동반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

향후 동반성장 발전방향

국내 동반성장은 참여정부 시절 비전2030을 통해 동반성장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현 정부에 와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진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발족을 이끌어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며 국내 동반성장이 가속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동반성장에 대한 여러 우수사례들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불협화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이 어떠한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동반성장 in brief ▌

- 2012년 4월 : 2기 동반성장위원장 내정(위원장 : 유장희)
- 2012년 4월 : '동반성장위원회',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예정
- 2011년 12월 : '대 · 중소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 2011년 7월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2013년) 고시
- 2011년 2월 : 정부,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8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선정.
- 2010년 12월 : 동반성장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정운찬)
- 2010년 12월 : "2010 동반성장주간" 개막
- 2010년 9월 : 정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 2010년 8월 : 이명박 대통령, 8 · 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세부 지침으로 동반성장 의지 표명
- 2009년 11월 : "2009 상생협력주간" 개막
- 2008년 11월 : "2008 상생협력주간" 개막
- 2008년 1월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2008~2010년) 고시

* Resource

- 비전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보고서
- 비전 2030 브로슈어
- 동반성장위원회 브로슈어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winwingrowth.or.kr/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연구원(2011)
-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경영혁신. 이종욱,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세미나 발제 원고
- 문화체육관광부, 공생발전 브로슈어
-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9%84%EC%A0%84_2030

제 4 호

과거의 이해관계자, 오늘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리차드 에드워드 프리먼(Richard Edward Freeman)의 저서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1984)" 이후부터 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은 학계에서 논의되기 전인 1930년대에 이미 GE가 주주, 종업원, 소비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이해관계자라고 칭하며 사용하였다. 즉, 이론으로 등장하기 전 이미 경영 현장에서 다루어졌던 개념인 것이다. 이후 프리먼이 이해관계자 모델을 탄생시키고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 현장에서도 지속가능경영과 이해관계자의 개념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해관계자의 역사

GE는 1930년 주주, 종업원, 소비자, 일반대중을 처음으로 이해관계자라고 하였으며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은 1950년 'Credo of Corporate Responsibility'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를 구체화시켰다. 이 신조(Credo)에서 이해관계자는 중요도에 따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그리고 주주'라고 열거되며,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1984년 프리먼은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에서 기존의 제품 판매에 집중된 경영이론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경영이론으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였다. 프리먼은 내부 임직원, 주주, 공급자, 고객 등의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되는 경쟁 환경과 정부의 역할 확대, 환경 문제와 같은 외부적인 변화에도 대응하는 틀로서 이해관계자이론을 제시하였으며 기업경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프리먼이 이해관계자 이론을 제시한 이후 이해관계자 개념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클락슨(Clarkson)은 1995년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클락슨은 이 모형을 통해 기업의 생산, 판매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1차 그룹 집단과 기업 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높으므로 1차 그룹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차 그룹(Primary Stakeholder)	2차 그룹(Secondary Stakeholder)
대상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미디어, 특수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특성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그룹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는 그룹

한편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 경영환경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져갔으며 실제 경영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이해관계자 범위▐

이해관계자 이론이 주목 받기 이전 기업의 책임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가치사슬의 한 부분에만 책임을 지워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1차 이해관계자인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부터 2차 이해관계자인 기업 외부 직접 이해관계자, 3차 이해관계자인 기업 외부 간접적 이해관계자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다.

〈조동성 ·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의 이론과 실천(2011)〉

이해관계자 구분		관련 항목
1차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투자자 (Investor)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
		재무적 성과
		투자자 관계(IR)
		사회책임투자 대응 수준 등
	임직원 (Employer	인재의 확보와 유지, 인적자본 개발
		임직원 교육 및 경력개발
		임직원 다양성, 임직원 보건안전
		노동기준지표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등

이해관계자 구분		관련 항목
2차 (기업 외부 직접적 이해관계자)	고객 (Customer)	고객관계경영(CRM)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위험관리 및 민원처리
		고객 인권경영 실행 및 모니터링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 윤리적 측면 고려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등
	협력사/경쟁사 (Supplier/Competitor)	협력사 선정방식 개선(윤리적 고려 등)
		협력사 인권경영 실행 및 모니터링
		협력사 지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
		협력사 관리 등
	지역사회 (Community)	글로벌 스탠다드 및 법규 준수
		부패 및 뇌물관련 방지 방침 수립
		사회공헌활동 및 재해대응 계획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사회보고서 등)
3차 (기업 외부 간접적 이해관계자)	환경 (Environment)	경영진의 환경경영 의지
		사업영역 전반에 걸친 환경관리역량
		규제의 능동적 대처 방안 및 전략적 수익기회 창출
		환경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환경보고서 등)
	미래세대 (Future)	미래세대의 규모(인구증가 등)
		미래세대의 경제적 수준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에드워드 프리먼, 제프리 해리슨, 앤드류 윅스는 2007년 “Managing for Stakeholders”를 펴내면서 학자들이 아닌 경영자들을 위한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프리먼은 이해관계자를 단지 고객을 ‘구매자’로 혹은 근로자를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인간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윤리는 우리가 함께 살고 번영하고자 하는 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과 윤리를 분리시키는 접근은 비인간화된 관념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이해관계자와 윤리와 기업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에게 이해관계자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또한 격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2007). 에드워드 프리먼 외
- 지속경영의 이론과 실천(2011).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본부
- 노동저널(2008년 6월 25일). 한동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 : 이해관계자론적 접근

제 5 호

반부패라운드의 역사와 동향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은 크게 규제와 자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하도록 강제한 대표적인 규제 중의 하나이며, 이 밖에도 지난 2005년에 발표된 유엔 반부패협약도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책의 하나이다.

OECD,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패라운드(CR: Corruption round)'라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반부패라운드가 형성되어온 과정과 최근의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우선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반부패 분야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협약인 유엔반부패협약(2003),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1997)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유럽 부패에 관한 형사법 협약(2002) 및 민사법 협약(2003), 미주 반부패협약(1996), 아프리카 반부패협약(2003) 등이 있다. 또한 APEC 반부패 행동계획(2004), G20 반부패 행동계획(2010) 등 선언적인 규범들도 있다. 국제사회는 각국을 대상으로 관련 협약과 규범의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주관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와 함께 국제반부패기구협회회의(IAACA), ADB와 OECD가 공동주관하는 아태 반부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아태 반부패기관장회의(ACA) 등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 도입▐

미국은 반부패라운드가 출범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부패 또한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그로 인한 자국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1977년에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밝혀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패방지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90년대 들어서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기업들이 기업윤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500대 기업 중 95%가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뇌물방지협약 발표▐

미국의 기업윤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는 반대로 '해외부패방지법'은 자국 기업들이 개도국 시장에 진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개도국 정부의 부패 수준이 높아 미국기업들이 사업활동을 벌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국의 반부패 기준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UN, OECD, WT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규제 논의가 진행되어 1999년 OECD의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이 발표되면서 반부패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등장▐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논의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해 제기되었고 2000년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반부패협약이 더 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결정문에서 돈세탁, 법인의 책임, 봉쇄와 대책 등 반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특별위원회가 다루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12월에 멕시코에서 한국을 포함한 160여개국이 참여한 유엔반부패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유엔은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선포하였다.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을 포함하는 기존의 9개 원칙에 "기업들은 부당

이득과 뇌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여야 한다."는 반부패 원칙을 2004년 6월에 제 10원칙으로 추가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5년 12월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이후,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159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2월에 비준하고, 그 해 3월에 이행입법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한국의 반부패 현주소와 윤리경영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4계단 추락한 43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청렴도 점수는 계속 상승한 반면, 한국만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하면서 뇌물을 줄 가능성을 국가별 점수로 나타낸 뇌물공여지수(BPI)의 경우 지난해 조사대상국가 22개국 중 14위를 기록하여 이전해 보다는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OECD회원 15개국 사이에서는 1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부패와 연관되면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문제는 국가 브랜드의 약화로 이어져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있을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 일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윤리경영 의식이 보다 더 성숙해지고 기업윤리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잡히게 된다면 이는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기업시민 의식을 신장시키고 윤리경영을 활성화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금호타이어 윤리백서, 강성구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사무총장 기고문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반부패라운드와 기업의 대응과제(2000)
- 한국투명성기구 소식지, UNCAC 소개자료(2008년 봄호)

제 6 호

착한 여행을 떠나다

19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후, 한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여행과 휴가를 즐기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 위기 등의 이유로 휴가를 가지 못하거나 혹은 휴가일수는 늘어나지만 휴가비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또한 저가형으로 여행을 떠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든 많은 직장인들은 휴가와 여행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여행과 휴가는 개인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행은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르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 브리프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개인의 지속 가능한 여행을 추구하는 '공정여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공정여행이란?

'공정여행(Fair Travel)'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가져 온 개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처럼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 또는 여행지의 지역주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을 가리킨다. 여행자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는 '책임 관광(Responsible Tourism)'이나 '윤리적 관광(Ethical Tourism)'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가 순전히 여행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의 관광산업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관광국의 국민들이 아닌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간다. 한 예로, 관광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다시 해외로 나가는 비율은 네팔이 70%, 태국이 60%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정여행은 현지인들에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가고 여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과부화를 최소화하자는 움직임이다.

▌가볼 만 한 공정여행 코스 소개▐

(1) 국내 –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청산도"

청산도는 전라남도 완도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영화 〈서편제〉에서 부녀가 함께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재를 넘었던 배경이 된 돌담길이 널리 알려져 있다. 슬로시티(Slow-city)는 속도를 강조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며 자연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세계슬로시티 연맹은 2007년 12월 청산도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중 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공정여행을 소개하는 사회적기업인 "트래블러스맵(Travelers MAP)"은 올 여름 국내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 청산도를 추천했다.

청산도 여행은 슬로시티답게 섬이 가진 아름다움을 천천히 느끼는 여행이다. 현지 명사의 안내를 받아 '슬로길'과 청산도의 숨은 명소들을 천천히 걸을 수 있으며 섬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마을 민박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공정여행을 실천할 수 있다. "트래블러스맵"에서 만든 패키지 여행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인원을 15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한다.

(2) 해외 – 지역주민의 생계 향상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의 CBT 프로그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직 저개발국의 관광 수입의 대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캄보디아에서는 CCBEN(Cambodia Community Based Eco-Tourism Network)이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 CCBEN은 캄보디아의 생태 여행 네트워크로 문화유적의 보존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CBT(Community-based Tourism)는 CCBEN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생계 향상을 지원하는 책임여행이며, 여행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높여서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CBT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의 전통마을과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유명 관광지인 앙코르 와트 역시 즐길 수 있다. "트래블러스맵"에서는 CBT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의 전통 마을과 앙코르 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배터리로 가전 제품을 구동하고 상수도 시설이 없어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반띠아이 츠마라는 마을의 캄보디아 전통 가옥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한다. 편리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으로서는 불편하기 그지 없겠지만 현지인들이 준비한 음악회를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공정여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TIP! 현재 개인이 공정여행을 계획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보면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에서 제안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외에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매진피스(Imagine Peace)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여행자들을 위한 해외공정여행 사이트(http://jungkiseo.cafe24.com/zbxe/69545)" 글을 참고하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해외 공정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여행 행동지침▐

사실 공정여행을 가는 데 중요한 것은 코스가 아니다. 본인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서울 안에서도 공정여행이 가능하다(실제 서울 북촌 한옥마을 체험과 같은 공정여행 코스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공정여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일 것이다. 이매진피스에서 제작한 공정여행 가이드북 〈희망을 여행하라〉에서는 공정여행자가 되기 위한 공정여행 가이드라인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지구를 돌보는 여행** - 비행기 이용 줄이기, 1회 용품 쓰지 않기, 물을 낭비하지 않기
2.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여행** - 직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지키는 숙소, 여행사를 선택하기
3.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 아동 성매매, 섹스관광, 성매매 골프관광 등을 거부하기
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가이드, 교통시설 이용하기
5.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 과도한 쇼핑하지 않기,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지나치게 깎지 않기
6. **친구가 되는 여행** - 현지 인사말을 배우고 노래와 춤 배우기, 작은 선물 준비하기
7.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 생활 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
8.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행** - 사진을 찍을 때 허락을 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행
9. **기부하는 여행** - 적선이 아니라 나눔을 준비하자.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기부하기
10. **행동하는 여행** - 환경, 동식물을 해치는 일, 매춘 등 현지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일에 항의하고 거부하기

이 책에서 소개하는 10가지 원칙은 사실 초보 여행자로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체력을 소모하는 여행보다는 몸이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 어쩌면 이제는 지금까지 즐겨왔던 관광이 아니라 나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떠난 공정여행은 분명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공정 여행
- 트래블러스맵 홈페이지, http://www.travelersmap.co.kr/
- 이매진피스 홈페이지, http://jungkiseo.cafe24.com/

제7호

공정무역의 도시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 윤리적인 제품과 소비로 꾸며진 세계인의 축제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 윤리경영 트랜드에서는 공정무역 도시에서 개최된 2012년 런던올림픽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공식 슬로건으로 '하나의 삶', 공식 모토는 '세대에게 영감을', 그리고 중심 테마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마에 걸맞게 윤리적인 제품과 환경 친화적인 방식, 그리고 공정한 소비를 통해 공정무역 방식을 통해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올림픽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2012 런던올림픽은 단 한번 즐기기 위한 화려한 축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구와 인간의 삶을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번 올림픽의 핵심이었습니다.

길고 무더운 여름 밤을 지새우던 우리 국민들에게 긴장과 환호를 가져다 주었던 런던올림픽의 또 다른 모습, 공정무역과 윤리적인 소비로 가득했던 런던올림픽의 현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정무역의 도시 런던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 대륙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개념이 가장 널리 자리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런던은 전 세계에서 공정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정무역도시(Fairtrade City)[출처] 공정무역으로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작성자 페어트레이드코리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공정무역재단에 따르면, 런던의 수많은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공정무역 마크가 새겨진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서약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 내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약 1천 개, 음식점이 약 600개가 있다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얼마만큼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어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출처] 공정무역으로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작성자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이러한 런던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보니 올림픽 행사 전반에 걸쳐 공정무역 제품사용과 윤리

적인 소비활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제로의 올림픽

2012년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런던이 제안한 공약 중 하나는 바로 '폐기물 제로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걸맞게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렸던 주경기장의 외벽과 내벽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건축물을 활용하고, 폐가스관은 녹여서 경기장 의자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또한 고정적인 구조물을 최소화하여 8만개의 좌석 가운데 5만 5천석은 필요 시 떼어낼 수 있는 임시 관중석으로 설치하였고 주경기장을 해체하여 여러 개의 작은 경기장으로 재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텐트형 임시경기장은 런던올림픽이 끝나면 해체되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랍니다. 이 정도면 폐기물 제로에 가까운 올림픽을 치러내겠다는 공약을 잘 지켜낸 것이 아닐까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정무역으로 이루어진 올림픽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은 물론 장애인 올림픽 기간 동안 소모되는 식재료와 급식 관련하여 공정무역 물품을 선택하고, 올림픽 기간 내에 필요한 식량 모두를 윤리적 기준에 맞춰 구매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1400만 잔, 홍차 750만 잔, 바나나 1000만 개, 설탕 1000만 포 등의 모든 식료품이 공정무역 제품으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지낼 모든 숙소의 침구류와 커튼까지 공정무역 면화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공정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프리미엄은 대략 1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무역 프리미엄은 공정무역 거래 시 추가로 가격에 포함되는 생산자 발전 기금입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공정무역으로 발생한 프리미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길지 않은 런던 올림픽 기간을 통해 가져올 결과라니!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한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은 올림픽에 참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펼침과 동시에 공정한 무역 구조를 위한 운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한 셈이 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친환경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50%이상의 자재를 차량통행 대신 배와 기차로 옮겼으며, 경기 티켓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일부 경기장은 자연채광방식을 도입하고 외관에도 바람 길을 만들어 별도의 냉방시설 없이도 쾌적한 상태로 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올림픽 개최장소는 토양과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생화학방법을 통해 200만 톤의 흙을 정화 시키고 30만 그루의 식물을 심어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주변 동식물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경기장과 주변 건물의 벽에 새들이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하기도 하고, 빗물을 받아 화장실과 조경용수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올림픽을 기대하며▐

2012년 런던올림픽은 세계에서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 열리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하나의 삶(Live as one)'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회의 평등, 공정한 규칙 등의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4개 국가에서 11,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올림픽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육상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국가에서 여자 선수가 참여하는 평등의 축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상 최악의 오심 판정을 받기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비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후원사 선정 등으로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등의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이자, 공정무역으로 운영된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공정 경쟁의 장이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계인의 축제로 이어져가는 데에 이번 런던올림픽이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출처

- 2012 런던올림픽 공식홈페이지, http://www.london2012.com
- 베네핏매거진, http://benefitmag.kr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 감축 사례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EU 회원국(27개국)과 유럽 31개국은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2013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범시행 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제 탄소 시장의 규모는 2005년 100억 달러, 2007년 6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1조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2020년 배출전망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 트렌드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해외 기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 거래제 등장배경

배출권 거래란 허용량이 배정된 온실가스 배출국 혹은 기업이 허용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반대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는 시장에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기반은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각 국가들은 실제로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여 비용 문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 위치와 향후 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UN기후변화협약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2009년 1월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지난 5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7월 23일 입법예고 하였고 법률 공포(5.14) 후 6개월 이내에 시행(11.15)하기 위해 각 계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오는 11월 15일에 시행령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 □ 무상할당비율 : (1차) 100%*, (2차) 97%, (3차 이후) 90% 이하
- *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1차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임 (유상할당비율은 2차 3%, 3차 이후 10%이상)
- □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마련
- □ 조기감축실적 인정 : 최대 3%, 상쇄 인정 : 최대 10%
- □ 제3자 시장참여 : 1차 · 2차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와 공적 금융기관만 참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둘러싼 논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가 임박해오면서 시행령(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산업계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의 전면 무상할당이 필요하며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미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해서도 더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산업계의 주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산업계가 누리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혜택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부담은 크지 않다며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비판한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은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이다. 여러 해외 기업들은 일찍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몇몇 해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살펴보자.

◎ BASF(Badische Anilin- und Soda-Fabrik)

BASF는 세계 최대의 화학 전문업체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2003년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여 2006년까지 CO2 배출량을 연간 50만톤 감축하였다. 열병합 발전은 기존 터빈 대비 수증기 1톤당 3.5배의 전력을 생산한다. 2003년 일본 요카이치시 사업장에서는 보일러용 연료를 중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CO2 배출량을 전년 대비 약 1400톤 감축하였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BASF는 38%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당초 목표로 했던 2012년보다 훨씬 앞당긴 2007년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2008년에 계획을 수정하여 2020년까지 새로운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출처 : 녹색경영(김현진, 2010) 및 BASF 홈페이지

◎ 도레이

일본 최대 소재 기업인 도레이는 탄소섬유 시장의 확대와 함께 급속한 성장세를 탔다. 탄소섬유란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동체에 사용되는 수퍼 섬유의 하나이다. 도레이는 2007년 말 보잉사가 차세대 주력 여객기로 개발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에 사용되는 7000억엔(약 9조원) 규모의 탄소섬유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 차체의 17%를 탄소섬유로 대체할 경우 전체 무게가 30% 줄어들고 2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탄소섬유에 주목하고 있다. 도레이는 1971년에 이미 탄소섬유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90년대 이후 탄소섬유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면서 도레이의 소재 사업은 급성장하였다. 2009년, 도레이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에서 70%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 출처 : 녹색경영(김현진, 2010)

◎ Royal Dutch Shell

Royal Dutch Shell 그룹은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적인 배출권내부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22개 지역에서 총 3,300만 톤의 Co2가 거래되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Shell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3, Shell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Shell은 내부거래에서 외부거래로 초점을 바꾸고 환경제품거래사업 부문을 설립하였고, 2003년 2월 Shell Trading은 EU CO2배출권 할당시장에서 최초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 출처 : 탄소전략(앤드루J, 호프먼, 2009)

▌맺으며▐

저탄소 시대의 도래는 전세계 모든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GE는 2005년부터 'Ecomagination'을 시작하여 환경을 신성장동력으로 새롭게 사업구조를 개편하였고,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탄소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게 되었고 우리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통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http://lovehanwha.com/90144169632
- 에너지경제, 2012년 8월 22일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높고 갈등 고조"
- 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p=51233)
- http://www.01000.or.kr/xe/Policy/25408
- 경제풍월, 2012년 1월호, "온실가스 감축기술제품, 저탄소상품 첫 인증"
- 녹색경영(2010), 김현진
- 탄소전략(2009), 앤드루J. 호프만

인권경영의 역사와 발자취

우리나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한국 기업들은 지금 세계 시장을 무대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들도 증가세에 있다. 해마다 발간해오는 CSR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CSR 이슈들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을 밝히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CSR 이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인권 경영' 부분이다.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실태를 분석한 몇 보고서들은 인권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직 상당 부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경영은 한국 기업들이 책임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 도약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이번 호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점점 더 중요해져가는 인권 경영의 역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권경영의 대두

우선 '인권 경영'이라는 개념이 대두하기 이전에 근대시대에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로서 받아들여졌다. 이 당시에는 시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대부분의 경우 국가행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한 싸움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가담한 기업가들이 처벌되었다)에 접어들면서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기업 등과 같은 비국가행위자[1)]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하면서 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비국가행위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러났을 때 만해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1) 여기서는 국가 이외에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조직,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초국적기업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심지어 한 개 초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이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 책임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ITTC(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가 다른 미국 기업들과 함께 칠레군부의 쿠데타에 관여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다. 1972년 7월 UN 경제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1975년에는 초국적기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UN차원의 초국적기업 행동강령이 계속 논의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은 초국적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거나 삼자선언을 진행하였다.

인권경영의 이니셔티브들 등장

인권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동시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대 다국적 기업의 국제 공급망이 발전하고, 제3세계에서 석유 회사들이 인권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등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UN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1999년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10개 원칙을 담은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를 발표하면서 UN은 CSR 이슈를 국제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 하였다.

글로벌콤팩트 이외에도 여러 CSR 이니셔티브들이 인권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ISO26000과 환경책임경제연합(CSRES)와 UN 환경계획(UNEP)이 1997년에 창설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등이 있다. ISO26000에서는 인권보호 기준을 포함한 사회책임 7대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GRI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문제연구기관인 국제사회책임(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에서 제정한 SA8000은 노동자 환경에 대한 인증시스템규격을 제시한다.

인권경영 사례

바디샵(Body Shop)은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업체로 적극적으로 기업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988년부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국제적인 인권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쉘에 의해 나이지리아 내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던 오고니인과의 연대[2)]를 실천

하였다. 2000년부터는 2년에 한 번 인권향상에 힘쓴 단체 혹은 개인에게 바디샵 인권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바디샵의 기업 윤리 강령을 보면 다른 기업들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확인 할 수 있다. 노예노동과 회사에 의한 신분증보관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단체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존중한다. 게다가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노동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작업장의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의무화 시켰다.

아동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은 기본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을 지급할 것과 보너스 지급을 명문화 하고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여도 징벌 차원의 임금 삭감을 금지하며, 노동 시간 역시 주당 48시간과 초과근무 시 주당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규직으로 노동자 고용, 차별금지, 신체적 및 언어적 성폭력 불허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맺으며▐

최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4.0'이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이면에서 키워온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이슈들 중에 '인권'은 분명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록 국내법은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인권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권

2) 세계적 석유기업인 쉘이 나이지리아의 군사정부와 협상하여 원유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환경단체에 의해 폭로되자 쉘은 해당 사건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이 때 바디샵은 환경단체와 연합하여 쉘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앞장서 환경운동가는 물론 전 세계 윤리적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다.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진정한 기업시민으로서 존경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본 아티클은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2009)"과 Social Consulting Group의 'Magazine7C'의 내용을 발췌 수정, 요약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국가 인권위 보고서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2009)"
-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2
- http://magazine7c.tistory.com/177

2012년 윤리경영 평가

2012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민주화'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윤리 경영'이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윤리경영을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윤리경영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윤리경영 평가 지수인 2012년 FTSE4Good 지수와 DJSI 결과와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FTSE4Good지수와 DJSI는 〈유럽의 투자와 연금〉 매거진에서 사회책임투자 펀드매니저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는 사회책임투자 지수로 꼽히기도 하였다.

FTSE4Good 지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는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 소유한 기업이다. 그리고 FTSE4Good 지수는 FTSE에서 '사회책임투자'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이다. FTSE4Good지수는 국제적인 윤리강령(UN Global Compact,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보편적인 인권 보장 및 지원 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한다. FTSE4Good 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환경 · 사회 및 이해관계자 · 인권 세개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담배제조, 우라늄 추출, 핵무기의 부품 혹은 전체 생산, 무기류 제조, 핵발전소 소유 혹은 운영 등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FTSE4Good지수에 편입되지 않는다.

▌국내 FTSE4Good지수 편입현황 ▌

FTSE4Good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선진국시장 지수에 편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에 FTSE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가 그후 5년 만인 2009년에 FTSE 선진국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되었다. 이듬해인 2010년에 FTSE4Good 지수에 사회 성과가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편입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2010년에는 국내기업들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 최초로 11개 한국 기업들이 FTSE4Good 지수에 편입되었다. 2011년에 신규 편입된 기업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구은행, 동부화재, 부산은행,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웅진코웨이, 한라공조, 현대하이스코, KB금융그룹, NHN이었다. 올해 3월에 FTSE4Good에서 발표된 신규 편입 기업 리스트에는 아모레G, LG생활건강, 신한금융그룹, STX 팬오션 4개 회사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총 15개의 국내기업들이 유럽 연기금 등과 같이 FTSE4Good지수를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선 투자 대상이 되었다.

〈FTSE4Good 지수 편입기업 현황〉

2011년 신규 편입 기업	2012년 신규 편입 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구은행, 동부화재, 부산은행,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웅진코웨이, 한라공조, 현대하이스코, KB금융그룹, NHN	아모레G, LG생활건강, 신한금융그룹, STX팬오션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1999년 다우존스와 SAM이 만든 우량기업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배구조, 사회공헌도, 환경영향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우량기업을 선정한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계 최초의 지수로 다우존스글로벌지수 포함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결과가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으로 재구성한다. 현재 세계 50여개 금융기관에서 투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경제, 환경, 사회의 세 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 아래 세부항목별로 비중을 다르게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에서 환경성과는 6%의 비중을 가지지만 '사회'에서 사회보고서 항목은 2.4%의 비중을 가진다.

DJSI는 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World 지수와 아시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Asia-Pacific,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Korea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생산성본부, 2012).

▌2012년 DJSI 결과▐

2012/2013 DJSI 결과는 지난 9월 발표되었으며, 2012년 발표 결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2008년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기업은 3개였으나 2009년에는 6개, 2010년에는 14개, 2011년에는 16개 기업이 포함되었고 2012년에는 총 19개 기업이 편입되어 편입 기업의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JSI Asia-Pacific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수도 역시 2008년 6개 기업에서 2009년에는 13개 2010년에는 28개 2011년에는 30개 그리고 올해에 33개 기업이 편입되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2년 DJSI 지수를 발표한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DJSI World에서 전체 평가대상 기업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은 2.48%이지만 편입된 기업은 5.58%로 2배가 넘고, DJSI Asia-Pacific 지수에서는 평가 대상 기업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이 11%이지만 편입 기업은 21.43%로 두 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DJSI World&DJSI Asia-Pacific 편입 기업 현황〉

DJSI World	DJSI Asia-Pacifi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GS건설, 현대건설, 삼성증권, 대우증권, KT&G, SK텔레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생명, S-Oil, KT, 롯데쇼핑,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SDI, 포스코,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강원랜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증권, 대우증권, KT&G, SK텔레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생명, S-Oil, KT, 신한금융지주회사, DGB금융지주, KB금융지주, 롯데쇼핑,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SDI, 포스코, 현대제철, SK C&C, LG화학, OCI, 호남석유화학
총 19개 기업 (밑줄 친 기업은 신규 편입기업)	총 33개 기업 (밑줄 친 기업은 신규 편입기업)

▌결론▐

2012년 FTSE4Good지수와 DJSI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이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기업들이 꾸준히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관련 선진 지수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록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기업들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기업들과는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KPMG에서 2011년에 실시한 국가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율을 보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48%만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는 영국의 100%, 일본의 99%보다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직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 한국과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가별 보고서 발간 기업 백분율〉

연도	한국	영국	일본	남아공	중국	뉴질랜드	칠레	인도	이스라엘
2008	42	91	93	45	-	-	-	-	-
2011	48	100	99	97	59	27	27	20	18

(KPMG, a International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1)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관련된 선진지수에 꾸준히 포함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추어 기업의 윤리경영 또한 다변화되는 이해관계자들과 높아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절히 대응하여 진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기업들의 윤리경영 노력이 보다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참고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12 DJSI 평가결과발표 자료.
- KPMG, a International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1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20369&mobile&categoryId=2898

지 식 노 트

• 제 1 호 - 기업의 국제 시민화에 대하여 / 131
• 제 2 호 - 최고 경영자에서 최고 윤리 책임자로 거듭나다 / 134
• 제 3 호 - 동반성장지수 / 137
• 제 4 호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하여 / 140
• 제 5 호 - 윤리경영의 진단과 평가 도구 / 144
• 제 6 호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점검 / 148
• 제 7 호 - 윤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 154
• 제 8 호 - 금융투자의 새로운 지침, 녹색금융 / 159
• 제 9 호 - 국내 인권경영 실천 현황 / 163
• 제10호 - 윤리경영 진단 툴 / 167

제 1 호

기업의 국제 시민화(Corporate Global Citizenship)에 대하여

기업 국제 시민화의 정의

○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인 다보스 포럼(Davos Forum[1])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 교수는 2008년에 미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저널 'Foreign Affairs journal(Volume 87 No.1)'에서 '기업 국제 시민화(Corporate Global Citizenship)'에 대해 정의함

- 기존의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2])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기업이 활동하는 자국 내 영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 세계적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업 스스로 앞장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선 각 국의 중앙 정부와 시민 연대 및 사회 조직들과의 깊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개발 및 국제적 문제에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함

기업 국제 시민화에 필요한 항목

○ 기업의 국제 시민화가 우선시되는 최우선 이유에는 국가-지방간의 연계성이 높아짐을 들 수 있음.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성 및 지자체 단위의 국제 협력도가

---

1) 다보스 포럼
198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의 총칭. 민간 재단이 주최하지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다수의 연사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연구 활동을 논의하며 공식적인 의제는 없지만 다양한 참석자들의 주제를 바탕으로 논의가 벌어진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기업 시민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이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 참여와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이 반영됨을 의미함.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에서 시민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업의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된 것에 착안한 개념 (출처: 한도현 외, '기업시민과 시민공동체',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높아짐에 따라 기업 또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귀추를 주목해야 함이 강조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업들은 임직원의 건강,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 은퇴 후 미래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됨
- 1973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선언(the Davos Declaration)을 통해 참석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된 이해관계자 개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그 기치를 확립할 것을 약속함
- 다보스 선언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자선 활동(Corporate philanthropy),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기업가 정신(Corporate Social Entrepreneurship), 그리고 기업의 국제 시민화 등 5개 주요 가치는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기업들이 확고히 해야 할 필수 항목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국제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

○ 기업 국제 시민화에 대한 인식은 사회 직·간접 투자, CSR 등을 뛰어넘어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제적 공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등의 명칭은 단순히 자국 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기업의 국제 시민화는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거시적 단계의 이슈에서부터 접근하여 미시적 단계의 사회 문제까지 전방위에 걸쳐 깊숙이 연계하며 지속 가능한 국제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함
- 기업의 국제 시민화는 기후 변화, 수자원 부족, 질병, 테러 등과 같은 미래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기업이 활발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
- 식료품 부족, 교육, 극빈층 문제, 다국적 범죄 행위, 기업의 부패 행위, 국소 지역의 천재지변 등 미시적인 환경 변화 및 지역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인식 변화, 협력, 소통의 중요성▐

○ 기업들은 국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기에 앞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업의 리더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

- 글로벌 컨설팅 기업 McKinsey & Company가 200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고위 관리직 중 50%미만의 응답자만이 국제적인 이슈에 기업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중 1/7은 실제로 자신들의 기업이 국제적인 이슈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마저도 개인적인 동기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개인으로서의 시민(private citizen[3]) 역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 고위층의 인식 부족은 여전히 기업의 단기 이익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됨. 빠르게 변하는 경쟁구도 속에서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기아, 가난, 교육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미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는 2006년에 기고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지에서 기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함
- 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모든 기업들이 각각의 특화된 분야에서 기업의 국제 시민화를 위한 노력이 합쳐질 때 전체 사회에 대한 균형 발전 및 가치 사슬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기업의 국제 시민화는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입장으로는 불가능함. 향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국제 문제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선(善)을 이루어야 함

* 출처

- Foreign Affairs journal Vol 87. No.1,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Klaus Schwab, 2008
- 네이버 백과사전, '다보스 포럼'
- 위키피디아, 'Private Citizen', www.wikipedia.org

3) 개인으로서의 시민(Private Citizen) : 공식적으로 혹은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개인으로서의) 시민(출처: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에서 최고 윤리 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로 거듭나다

▌CEO(Chief Ethics Officer)의 중요성▐

○ 최근 윤리경영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대표 이사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뀌고 있음. 지금까지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는 기업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음

- 기업의 윤리경영, 지속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임원진을 비롯한 기업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지칭하는 CEO가 기업의 최고 윤리 책임자를 지칭하는 CEO(Chief Ethics Officer)로 변화
- 그 외 다른 표현으로 CECO(Chief Executive Compliance Officer,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사용되고 있음. 앞서 언급한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에 무게를 두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넓은 범위로는 CEO(Chief Ethics Officer)가 CECO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고 윤리 책임자의 권한▐

○ 최고 윤리 책임자(Chief Ethics Officer)의 권한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코퍼레이트 카운슬(the Metropolitan Corporate Counsel[1])은 최고 윤리

1) 메트로폴리탄 코퍼레이트 카운슬(the Metropolitan Corporate Counsel, MCC)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하였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권고, 저널 등을 출판함. 정례 포럼을 주최하기도 하며 기업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시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사항을 소개하고 있음. 기업들의 재능기부,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저널을 출판하고 있음

경영자의 범위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와 최고 윤리 책임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함.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고 윤리 책임자는 기업의 윤리 현안에 따른 문제나 해결 방안 등을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직접 보고가 가능하도록 보고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유함. 이를 통해 최고 윤리 책임자의 외부 간섭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고 최고 경영자에게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함

- ECOA(Ethics and Compliance Officer Association[2])는 최고 경영자가 최고 윤리 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권고함. 윤리 경영의 시발점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최고 경영자 스스로 실천할 때 기업 윤리가 기업에 내재될 수 있음을 중요시 함

▌최고 윤리 책임자와 임직원▐

○ 앞서 두 단체가 언급한 최고 윤리 책임자의 권한에는 윤리 책임자의 독립성 및 개별성을 중요시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CSRWire.com[3]의 GRC(Governance, Risk management, Compliance[4])에서는 최고 윤리 책임자의 독립성 및 개별성이 임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함.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윤리 의식을 심어주고 기업의 활동 중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
- 임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 규정 핸드북'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임직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갖고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통해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최고 윤리 책임자는 늘 중립을 고수해야 함. 임직원의 내재적 윤리 의식은 윤리 책임자의

2) ECOA(Ethics and Compliance Officer Association)
ECOA는 회원 제도로 운영되며 조직(기업)의 윤리,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비영리 학술 단체임. 1991년 설립되었으며 경영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3) CSRwire.com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 다수의 기업, 학술인, NGO, 대중매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계적인 CSR 정보, 동향, 추세 등을 제공하고 있음

4) GRC(Governance, Risk Management, Compliance)
조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를 통합한 표현으로 세가지 분야의 중요성이 기업 활동에 있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각각의 분야를 분리시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 기업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임직원이 어느 한 곳에 편중 될 경우 기업의 윤리 규정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CEO(Chief Executive Officer)와 CEO(Chief Ethics Officer)▐

○ 최고 윤리 책임자와 최고 경영자는 같은 듯 다른 책무를 맡고 있음. 하지만 기업 윤리라는 큰 틀에 비추어 볼 때 두 책무는 동일한 자리일 수 있음

○ 최고 윤리 책임자가 최고 경영자와 같지 않다고 하여 경영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님. 윤리적 행동 및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

○ 유명한 미국의 엔론(Enron)사태와 같은 최고 경영진의 방만한 윤리의식 및 비윤리적 경영 사례는 최고 경영자의 윤리 의식이 희박할 때 기업이 사회에 어떠한 비윤리적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증명함. 최고 경영자(CEO)와 최고 윤리 책임자(CEO)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거나 각각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경영활동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통해 윤리적 합의점을 이루고 윤리적 기업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출처 :

- CSRwire.com, 2011, 'The Evolution Chief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 Role'
-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 Association, 2012, 'What Is an Ethics Officer?'
- The Metropolitan Corporate Counsel, 2011, 'What is the Role of Chief Compliance/Chief Ethics Officer'

제 3 호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지수란?

○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얼마나 동반성장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수화 시킨 것이다. 일명 win-win index라고 불리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23일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56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지수는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구매단계에서의 대등한 계약, 상생협력단계에서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 결제단계에서의 현금 즉시 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계획

○ 평가시기

-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 연 1회(매년 12월)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 연 2회(매년 7~9월, 1~3월)

○ 결과발표

-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산정 후 공표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대상	대기업	협력(1 · 2차) 및 수요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도 -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여부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1. 공정거래 - 불공정거래 경험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	2. 협력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감점)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 시	3. 동반성장 체제 -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감점) -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 적합업종 이양(가점) - 신규 진입 및 확장(감점)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이 기존 56개였으나 지난 3월 29일 발표에 따라 4월 말이면 74개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기 ·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LS전선 삼성테크윈 대한전선 LG이노텍 ※ 웅진코웨이 ※ LS산전
기계 · 자동차 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엔진 ※ STX중공업
화학 · 비금속 금속	SK종합화학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효성 호남석유화학 삼성코닝정밀소재 ※ 제일모직 ※ KCC ※ LG하우시스 ※ LG생활건강
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 삼성엔지니어링 ※ 코오롱건설 ※ 현대엠코 ※ KCC건설
도소매 · 식품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스코 롯데백화점 ※ 신세계 ※ 현대백화점 ※ GS홈쇼핑 ※ CJ오쇼핑 ※ 현대홈쇼핑 ※ 롯데홈쇼핑 ※ CJ제일제당 ※ 롯데제과
통신 정보서비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LGCNS ※ SK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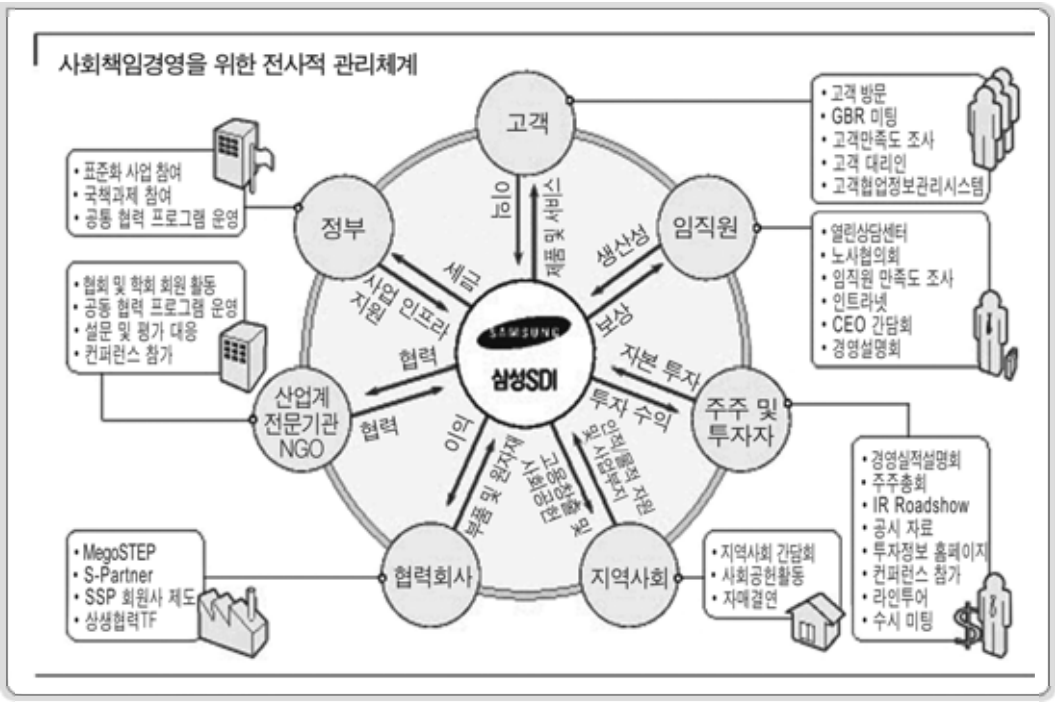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2012년 3월 29일 발표자료

* 출처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지속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방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이 중시하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점점 요구가 높아져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를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출처 : 한겨레 HERI 리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기업은 명성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도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다. 1996년부터 미국의 Business Ethics지에서는 매년 Standard & Poor's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을 위주로 기업윤리의 모범이 되는 '최고의 기업시민 100(The Best 100 Corporate Citizens)'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선정 기준은 기업이 얼마나 이해관계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는 7개의 그룹(주주,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 자연환경, 소수민족과 여성, 미국 외 지역의 이해관계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Business Week지가 발표하는 3년간의 이익률, 매출 성장률, ROE 등 8개의 재무적 성과를 합산한 종합 재무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S&P 500의 하위권 기업들보다 10% 포인트 이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과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4배 이상의 추가적인 시장부가가치(Market Value Added)를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의 기업시민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는 과정을 기업 전략의 일부분으로 보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을 앞으로의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투자로 여기고, 미래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조직이 끊임 없이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전략 경영의 틀 속에서 재설정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관계자 관리의 기본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각 국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미국

미국 자본주의 변화 과정은 대공황 이후 개인의 무한자유에 국가적 통제를 시작한 케인즈 주의가 적용된 1975년까지 자본주의 시대를 "관리 자본주의(Management capitalism)시대", 1976년부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까지를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시대", 2009년 이후를 "고객 자본주의(Customer capitalism)시대", 그리고 2011년 이후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시대"로 구분한다. 이렇듯이 미국 자본주의는 점차 개인의 배타적 경제 행위가 가져온 부의 독점을 경계하면서 모두의 가치가 골고루 증대되는 자본주의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여기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유럽의 전통적인 경제 흐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주주는 물론 고객, 종업원, 그리고 협력기업과 지역주민 등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과도한 탐욕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영국

1996년 1월 토니 블레어 노동당수가 싱가포르 기업인 초청연설에서 이해관계자를 미래 노동당 정부의 이념적, 정책적 좌표로 제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치담론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주주 자본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나라로 평가된다. 주주들로부터의 끊임없는 배당요구는 영국제조업 부문의 공동화를 불러온 주된 요인이자, 영국 금융자본의 오랜 전통과 융성을 산업자본의 지속적인 쇠락과 대비되어 언급된다. 영국과 같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헤게모니 지배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방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과거 영국의 사민주의(social democracy)는 국유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실제로 대처 행정부가 대대적 민영화를 실시하기 전까지, 영국은 서방국가들 가운데 국유 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 영국의 자본-노동 관계는 고도로 발전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중심의 금융관행, 탈 규제된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 무관심 등을 배경으로 한다.

영국의 전략적 전환의 정점에 위치한 것이 블레어 노동당의 '제3의 길'이다. 공동체주의란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은 '권리와 의무의 그물'인 사회(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서 주로 영미 자유주의적 개인관(존재론적, 인식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영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조명을 해나가며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한국

한국의 기업은 영국 기업과는 다른 지배구조를 지닌다. 이는 '소유경영자' 체제로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경영자 자본주의나 주주 자본주의의 유형과 차별된다. 주주 중심도 이해관계자 중심도 아닌 한국의 재벌기업은 전형적인 통제장치들, 즉 이사회, 종업원 등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인수합병이나 기관투자가 그리고 부채시장(은행)의 평가와 같은 외부 통제 등 일체의 감시장치로부터 거의 완전히 자유로운, 통제 부재의 상황, 즉 지배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자인 총수 1인의 제왕적 지배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종종 독일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유사하다고 간주 되는 것은 선단식 경영이나 내부자본 시장체제 그리고 금융유동성에 대한 국가적 통제 등이 오히려 외부 주주의 압력 등 주주 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재벌 총수의 독선적인 행위를 제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신자유주의도 아시아적 연고주의도 아닌 이해관계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이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사전
HBR 'Creating Shared Value' – Michael E. Porter/Mark R. Kramer (2011.1, The Magazine)
HERI리뷰 '이해관계자 소통 폭 넓어지고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 (2012.5.8, 한겨레)
대안체제로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영국과 한국의 경우 (2003, 고세훈)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09.10.29, LG경제연구원)

윤리경영의 진단과 평가 도구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리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평가하여 나온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돕기 위한 각종 진단 및 평가도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호 브리프스에서는 국내 사정에 맞게 개발된 윤리경영 진단 도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윤리경영 모델

기업 윤리경영 모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7년에 발표한 실무지침 형태의 모델이다. 국내 기업들이 윤리경영의 국제적 표준화, 규범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국제적으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반부패,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여러 국제기구들의 윤리경영 원칙, 지침, 협약 등과 같은 기준과 국내외 윤리경영 우수 기업들의 사례를 반영하고 있다.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이해관계자 별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해관계자 별 실행프로그램은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기업윤리경영모델' 샘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계별				업종별			
			도입	확산	정착	공통	제조	금융	건설	도소매
윤리경영	윤리경영 의지	윤리경영 도입 선포	✓			✓				
		윤리경영 동기 부여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계별				업종별			
			도입	확산	정착	공통	제조	금융	건설	도소매
방침		윤리경영 문화 정착			✓	✓		✓		
	윤리경영 비전	경영비전과 연계된 윤리경영 비전 수립	✓			✓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비전 공유		✓		✓		✓		
	윤리경영 규범	각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윤리규범 제정	✓			✓	✓	✓		
		윤리규범의 지속적 개정, 보완		✓		✓				
조직 및 시스템	지배구조	이사회 기반 확립	✓			✓	✓			
		이사회 기능 활성화		✓		✓				
		이사회 책임 강화		✓		✓				
		이사회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				
	추진조직	윤리경영 전담(담당)조직 구성	✓			✓				
	회계 투명성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			✓				
		공시 강화		✓		✓				
		인증 강화		✓		✓				
		감사 강화		✓		✓				
	부패방지	부패방지 정책 수립	✓			✓				
		내부신제도		✓		✓				
		교육 프로그램		✓		✓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	✓				
	평가 및 보고	윤리경영 성과 평가			✓	✓				
		윤리경영 성과 보고			✓	✓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모델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흐름에 맞추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2009년 개발되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의 상황을 적용한 기업투명성 진단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의 투명성을

진단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공시 및 회계투명성(50%)과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50%)를 큰 축으로 각 진단요소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표 2〉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진단요소 별 가중치

부문	진단요소	가중치
공시 및 회계투명성(50%)	공시투명성	25%
	회계투명성	25%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50%)	책임경영	20%
	주주권리보호	15%
	내부통제	10%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5%

KoBEX

KoBEX™(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Sustainability Management)는 지식경제부(과거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2003년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를 위한 평가이다. 산업계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실천현황을 파악하고 수준진단 및 의식확산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의 TBL(Triple Bottom Line)인 경제 · 사회 · 환경을 다루어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기업이 처한 기업 환경을 반영하여 국내 사정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발되었고 공통지표와 산업별 부가지표로 구분하여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모두 포괄한다. 조사에 참여하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 보고서가 제공되며, 등급마크를 제공하여 대외적인 홍보에 활용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KoBEX™는 2003년 조사 실시 이래, 2011년까지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7개 영역의 8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KI-BEX

FKI-BEX(윤리경영 자율진단표, FKI Business Ethics index)는 2007년 전경련에서 개발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윤리수준을 진단, 비교하여 윤리경영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

되었다. 전경련은 2006년에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를 발간하였는데 이때 제시되었던 윤리경영 단계별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윤리규범,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기업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의 영역에서 진단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와 전략적 윤리경영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진단영역의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의 중분류에 포함시켰다.

이 자율진단지표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프레임워크와 국내외 윤리경영 관련 영역별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7대 진단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7대 진단영역 중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프레임워크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각종 지표와 모델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도 산업정책연구원의 지속경영 자가진단(SYSA: Self-test for Your Sustainability), 한국표준협회의 ISO 26000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서강대에서 개발한 윤리경영지표(Sobex) 등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한 각종 지표와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해 개발된 툴 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인 평가 툴과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기업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현재의 위치, 그리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출처
- 전경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2007)
- 지속경영연구센터 http://csm.ips.or.kr/
- 지속가능경영 포털 http://www.csr-korea.net/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윤리경영 모델" 보고서(2007)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보고서(2009)

제 6 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점검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GRI, ISO, OECD, UNGC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통해 점검하고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에게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체크리스트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호 지식노트에서는 개인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함께 살펴보며 경제, 사회, 환경 영역에 걸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보고함으로써 삶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다음의 순서와 예시에 따라 개인의 지속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

1) 나의 지속경영 비전과 목표	* 설정기간(현재부터 3~5년) * 보고기간(매년 1월~12월) 목표 * 매년 말 기준 목표 대비 성취도(성과 측정기준 명시)
2) 현재 나의 지속경영의 여건	* 나의 이해관계자 : 내가 개인의 지속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 나의 환경 : 나의 지속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속경영관련 주요이슈 설명 * 나의 투입자원 : 나의 지속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 및 노력
3) 경제적 측면	* 나의 건전한 이익창출 * 나의 건전한 소비패턴 : 계획성 있는 지출 * 나의 브랜드 가치 : '나의 브랜드향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등

4) 윤리/사회 책임경영	* 나의 준법정신 :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자발적인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뇌물과 부패 : 뇌물과 부패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준수해왔는가 * 충실한 납세 : 충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가 * 나의 정치활동 : 나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투표를 통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가 * 윤리적 구매활동 : 친환경제품 구매, 재래시장 구매,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구매활동 * 윤리경영 관련 : CEO 포럼 서명 * 1년간 건강지수 : 사고, 상해, 결근율 등을 명시하고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인권보호 노력 :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했는가 * 평생학습노력 : 나는 자기계발 및 퇴직관리를 위하여 1년간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 * 기부금 및 자선활동
5) 환경경영	* 1일 일회용사용 컵수 5→3개로 줄이기 * 자동차 사용자제, 가까운 거리 걷기, 로컬푸드 구매 * 친환경구매 :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 * 에너지절감 노력 : 내가 늘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6) 혁신경영	* 기부금을 지로 입금하다가 온라인 자동이체 시킴 * 나의 지속경영 비전을 수정함 * 나의 환경구매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시킴 *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천
7) 창조경영	* 아프리카 구호민 자선활동에 새로 참가하게 됨(새로운 대상으로 새로운 활동창출) * 신규사업 및 활동 시작(환경친화제품, 녹생에너지 사업 등) * 참고사항 : 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은 윤리/사회 책임,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기존방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창조한 경우를 적을 것
8) 향후 지속경영 계획	* 차기년도의 지속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천명

▌개인의 지속경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은 개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하여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슈	라이프스타일 Tip	영역
지속경영 목표수립	가계부 작성을 생활화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시다.	경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경제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경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를 정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경제
	사회와 나의 주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횟수, 시간 등 연간 계획을 세워봅니다.	사회
	사내 모임이나 동아리행사에 적극 참여해 선배와 후배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사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취미활동 및 식사).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봅니다.	환경
	직장, 가정, 학교 등에서의 전기 절약 목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세워 봅니다.	환경
	기부를 통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가족 친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봉사활동이나 기부 활동을 합니다.	사회
	몸이 불편한 동료를 도와줍니다.	사회
	지식 나눔 봉사활동(재능기부)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합니다.	사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임산부, 노약자를 배려합니다.	사회
	초보 운전 및 유아를 태우고 가는 차량을 배려합니다.	사회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합니다.	사회
	헌옷 기부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환경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식품안전표시를 확인합니다.	경제
	물건 구매 시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합니다(포인트 = 현금).	경제
	제품의 안전 사용기한을 제대로 알고 사용합니다(수리 및 재구매).	경제
	나의 주변에도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하여 알립니다.	사회
	장바구니를 사용합니다.	환경
	에너지효율이 높은 상품을 구매합니다.	환경
	탄소성적표지 및 친환경마크 등의 녹색 마크를 확인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환경
	과다한 포장용지가 사용된 제품의 구매는 지양합니다.	환경
	유전자를 변형한 음식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환경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주문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환경

이슈	라이프스타일 Tip	영역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	실천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여 봅니다(물사용, 전기에너지, 자동차 연료) 등	경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를 준수합니다.	사회
	물을 아껴쓰는 생활을 합니다.	환경
	절전형 멀티탭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환경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어 난방 연료 사용을 줄입니다.	환경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18도~20도 정도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합니다.	환경
	여름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환경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하고 가급적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환경
	사무실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 전기제품과 냉·난방기 전원을 껐는지 확인합니다.	환경
	사무실이나 교실의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조절하고 외출 시 끕니다.	환경
	작업장 내 컴퓨터는 화면보호기 및 절전모드로 설정을 하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모니터 전원을 끕니다.	환경
	사무용품 구입 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선택해 구입합니다.	환경
	2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환경
	자료공유가 필요한 경우 메일을 이용하고, 전자 결재를 장려합니다.	환경
	작업장의 구성원들과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합니다.(전기 사용량 등)	환경
	여름에는 넥타이를 풀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습니다.	환경
	개인용 전기 난방기구 사용을 자제합니다.	환경
공정무역	공정무역마크가 표시된 상품을 구매하여 생산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신도 올바른 소비생활을 합니다.	경제
	불법복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회
	친환경 가게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합니다.	환경
우리 주위의 아이들을 살핍시다	아동 노동 착취에 연루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취미 활동 및 식사)	사회
	어린이 전용차량(노란색)이나 유아를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려를 합니다.	사회
	전세계 아동이 처한 현실(노동, 문맹, 질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생각해 봅니다.	사회
공정여행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통비를 절약하고 여행지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환경
	여행을 떠나는 경우 미리 그 곳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여 그 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합니다.	사회
	지역 축제에 참여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회
	산이나 공원에서의 여가 활동 시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
	야외활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환경
	자연과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보존하는 여가 활동을 합니다.	환경

이슈	라이프스타일 Tip	영역
Green, Green, Green	각종 세제 혜택이 많고 연비가 좋은 경치를 이용합니다.	경제
	직장 혹은 학교도 내 집처럼 생각해 깨끗이 사용합니다.	사회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환경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 참여합니다.	환경
	개인 컵을 준비하여 종이컵 사용을 줄입니다.	환경
	작업장 내 물을 아껴 사용합니다.	환경
	운전 시 경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시속 70~80km)	환경
	운전 시 급제동과 급가속을 자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환경
	자가용 차량 운행 시 냉난방을 적절히 조절하여 에너지를 아낍니다.	환경
BMW(Bus, Metro, Walk)운동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 할인을 받습니다.	경제
	대중교통 이용 시에 임산부, 노약자를 배려합니다.	사회
	차 안의 불필요한 짐을 줄여 에너지 낭비를 막습니다.	환경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환경
	혼잡한 평일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환경
Smart Giving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경제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가치(기부의 목적)를 명확히 하고 계획을 세우며, 충동적으로 기부하지 않습니다.	사회
	봉사단체와 연관하여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프로보노)	사회
	직장이나 혹은 학교에서 환경보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환경
Sustainable Career	실직 시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합니다.	경제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근로능력개발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웁니다.	경제
	지속경영인증사(CSO) 자격증에 도전해봅니다.	경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해 창의성을 키우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듭니다.	사회
	동료에게도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합니다.(전기 사용량 등)	환경
윤리가 경쟁력 입니다	내 주위의 동료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사회
	회사의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부패, 준법, 회식문화, 접대 및 향응)	사회
	교통법규 준수, 건전 납세 등 법규를 준수합니다.	사회
	거래 혹은 계약관계에서 부적절한 관행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사회
	업무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성, 인종, 장애 등)	사회

* 출처 : 산업정책연구원, 2012 Sustainable Life Diary - 더 나은 삶을 위한 나의 노력

▌지속 가능한 삶도 실천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지속가능성의 합이다. 내가 지속가능한 삶을 시작하면 사회 또한 함께 지속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산업정책연구원, '2012 Sustainable Life Diary – 더 나은 삶을 위한 나의 노력', 2012.1
- 산업정책연구원, '개인의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안내", 2011.7

제 7 호

윤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 윤리적인 제품과 서비스 평가하고 선택하기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구를 위하여 윤리적이고 사회적이며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윤리적인 제품은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모든 제품에 윤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모든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8월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여러분의 윤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어떻게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

영국의 소비자단체인 'Ethical Consumer(http://www.ethicalconsumer.org)는 소비자들이 올바르고 윤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품의 윤리성 평가 기준(Ethical Ratings)

Ethical Consumer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가이드'는 제품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주요 카테고리에 대해 19개 분야의 300여개 토픽을 다루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년간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오면서 만들어 낸 결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합니다. 5개 카테고리와 19개 부문에 대한 하위범주들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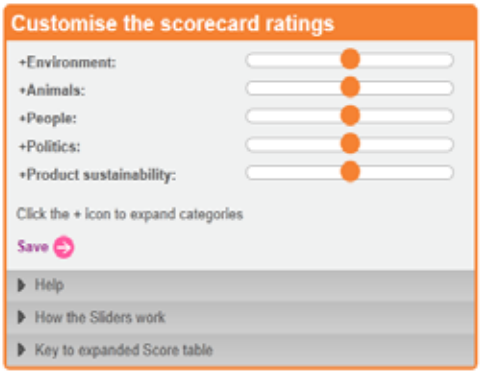
주요 카테고리	분야	하위범주
동물 (Animal)	동물실험	동물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 제공, 실험 목적을 위한 동물 제공,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업, 동물 실험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동물실험에 긍정적인 정책,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의 운송수단 등
	공장식 사육	모피, 육류, 어류, 가금류(닭 또는 계란) 등의 수확을 위한 공장식 사육, 공장식 사육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 공장식 사육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 공장식 사육을 위한 유전자 변형에 참여하는 기업 등
	동물의 권리와 잔혹행위	광고를 통한 동물학대 지원,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된 기업 또는 종업원, 모피 제품 생산 및 공급,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도살장 운영 또는 도살장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 포경산업 및 희귀동물 판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동물원 운영에 참여, 실크제품 사용 및 생산하는 기업 등
환경 (Environmental)	환경적 보고	환경적, 사회적 대체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환경관련 정책이나 2년 이내 보고서 발간이 없는 기업, 향후 목표 및 정량화된 내용에 대한 보고 여부, 탄소배출량 공개 여부, 독립적인 검증을 받은 보고 여부 등
	오염물질 및 유독물질	건강 및 안전, 나노기술에 참여, 토양, 공기,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배출 위반,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의 구매 및 사용 등
	원자력	원자력 이슈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정책, 보호복, 구조, 디자인, 핵심서비스 및 장비 제공, 핵폐기물의 무책임한 처리, 핵연료 사용 등
	기후변화	기업의 자발적인 공개, 기후변화에 대한 비판, 기후변화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항공, 자동차, 시멘트, 화석연료 부문의 산업군 등
	서식지 및 자원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사용 관련 이슈, 서식지 및 자원에 대한 이슈, 댐 건설,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인증 목재 제품 사용, 서식지 파괴, 어업, 광산업 등의 지속가능성 등
인간 (People)	인권	현재 거주자의 토지권리 남용, 모든 기업의 제품에 대한 공정 무역,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업의 공개, 성별, 성적, 인종, 민족, 신념,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인권침해, 시민의 권리 침해,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프로젝트 참여,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노동자의 권리	위험한 작업 환경,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불, 노동자 권리에 대한 대응,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고용주의 차별, 주 48시간 이상의 근무 강요, 강제노동 및 초과근무, 노동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 등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감사와 보고, 구매, 부정행위, 불법행위, 임금 등에 대한 이슈 다루기 등의 내용으로 평가

주요 카테고리	분야	하위범주
	무책임한 마케팅	식품의 무책임한 마케팅에 대한 비평, 알코올에 대한 무책임한 마케팅, 담배 산업의 마케팅, 패션광고에 있어서 지나치게 마르거나 어린 모델을 사용 등
	무기와 군사	군사 및 무기 제조업의 홍보,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화학 또는 생물무기 개발 및 생산, 공급, 무기공급, 국제법에 따른 불법구속장비 및 무기 공급, 핵무기 관련하여 개발, 제조, 공급 및 유지보수 등
정치 (Politics)	반사회적인 금융	뇌물 또는 기타 부패행위,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한 열악한 조건, 반사회적 재정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무책임한 마케팅, 도박 상품에 대한 무책임한 마케팅, 세금회피, 제3세계의 부채 등
	불매운동	해당 카테고리에서 비난받는 기업에 대한 은행, 투자사 또는 다른 금융 서비스와의 관계, 자회사 또는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보이콧, 현재 진행 중인 보이콧, 기업그룹 전체에 대한 보이콧 등
	유전공학	유전자 변형제품 및 재료의 거래, 유전자 복제 참여 기업, 유전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책, 윤리적 배경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 활동, 세계경제포럼, 세계지속가능한발전기업협의회(WBCSD) 등의 구성원으로 활동, 기업의 정치적 기부에 대한 정책 명시 등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기업 정신	모든 제품에 대한 공정거래,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는 제품, 환경적인 대안 제품, 유기농 제품, 채식주의 제품, 비영리 무역구조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	유기농 제품 인증, 유기농 제품 시장, 공정무역제품, 에너지 효율등급, 동물 복지, 채식제품 등

(2)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제품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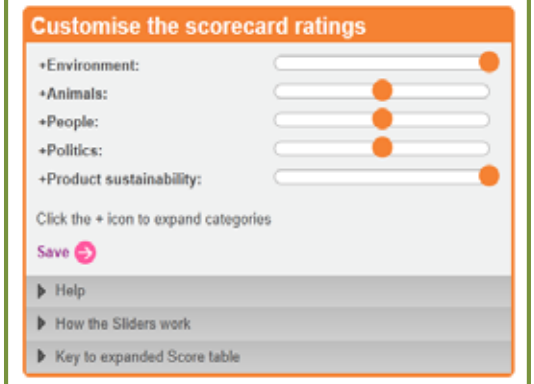
Ethical Consumer는 전자제품, 유아용품, 의류, 음료, 연료, 가사용품, 통신, 금융상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군 중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군의 어떠한 브랜드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에서 나온 랩탑(Laptop)또는 넷북(Netbook) 에 대하여 5가지 윤리성 평가 기준으로 나온 점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시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표를 비교해보면, 가중치 변동에 따라 점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또는 제품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Score table More Detail

Brand	Rating out of 20
Archos netbook	10
ASUS notebooks [E]	10
MESH laptops	10
Advent laptops	9.5
MSI laptops	9.5
ViewSonic laptops	9.5
ASUS notebooks	9
ACER notebooks [E]	8.5
Dell notebooks	8
Fujitsu Lifebook P8110 [E]	8
Lenovo IdeaPad Y460 laptop [E]	8
ACER notebooks	7.5
eMachines laptops	7.5
Fujitsu notebooks	7.5
HP notebook computers [E]	7.5
Lenovo notebooks [E]	7.5
Packard Bell laptops	7.5
Apple MacBook [E]	7
Compaq notebooks [E]	7
Compaq Presario notebooks	6.5
HP notebook computers	6.5
Samsung notebooks [E]	6.5
Samsung notebooks	5.5
Sony VAIO notebook	5
Toshiba notebooks	4.5



Score table More Detail

Brand	Rating out of 20
ASUS notebooks [E]	10
Archos netbook	8
ASUS notebooks	8
MESH laptops	8
MSI laptops	7.5
ViewSonic laptops	7.5
Advent laptops	7
Dell notebooks	7
ACER notebooks [E]	6.5
Fujitsu Lifebook P8110 [E]	6.5
Lenovo IdeaPad Y460 laptop [E]	6.5
HP notebook computers [E]	6
Fujitsu notebooks	5.5
Lenovo notebooks [E]	5.5
Compaq notebooks [E]	5
Samsung notebooks [E]	5
ACER notebooks	4.5
Apple MacBook [E]	4.5
eMachines laptops	4.5
Packard Bell laptops	4.5
Compaq Presario notebooks	4
HP notebook computers	4
Samsung notebooks	3
Sony VAIO notebook	2.5
Toshiba notebooks	1.5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수요와 공급▐

선도적인 국가들과 그 안의 정부, 지역사회, NGO, 그리고 기업들은 보다 윤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비영리조직은 Ethical Consumer Guide(http://www.ethical.org.au)를 제공하고 있으며, Ethical Consumer's Magazine은 다국적 기업들의 윤리,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기업의 윤리적 정보를 제공(http://www.corporatecritic.org)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Co-operative Bank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측정한 리포트(http://www.goodwithmoney. co.uk)를 매년 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Good Guide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의 윤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툴을 제공(http://www.goodguide.com)하는 등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소비자마다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는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윤리적 가치판단에 따라 의식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여도, 적합한 상품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나 혹은 기업이 윤리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윤리적인 소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단체들이 보다 윤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일부 또는 특정 그룹에만 퍼져있는 수준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들의 의지만으로도, 기업의 의지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이번 호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기업들은 더욱 윤리적인 생산과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윤리적인 소비를 해나가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우리 사회에도 좀 더 널리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Ethical Consumer, http://www.ethicalconsumer.org
- Ethical Consumer Guide, http://www.ethical.org.au
- Ethical Consumer's Magazine, http://www.corporatecritic.org
- Co-operative Bank, http://www.goodwithmoney.co.uk
- Good Guide, http://www.goodguide.com

제 8 호

금융투자의 새로운 지침, 녹색금융

녹색금융이란

현재 녹색금융에 대해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이다. UNEP FI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녹색금융을 정리하고 있다. 한가지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생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을 장려하는 녹색예금, 녹색펀드와 같은 상품이나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그리고 녹색기술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도 녹색금융의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녹색금융

녹색성장과 관련된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대신 투자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창기에 관련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법률의 시행과 함께 녹색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국내 금융계에서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다음 3가지 범주로 확장하여 보고 있다(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첫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끄는 금융

둘째, 기업과 개인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보급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하는 금융

셋째, 탄소시장 형성과 각종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

국내에서는 특정 녹색 성장산업(LED, 태양광 등)에 투자하려 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관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 역시 녹색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육성정책을 발표하여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 녹색금융종합포털

▌국내 녹색금융 종류▐

○ 정책금융 상품 종류

담당기관	상품명	주요 내용
한국정책 금융공사	KoFC Pioneer Champ 2010	녹색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조합으로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
KT캐피탈	경기-KT녹색성장투자조합	경기도 내 녹색성장 기업의 육성 및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조합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신성장동력 그린퓨처 사모투자전문회사	신성장동력 녹색성장분야 기업에 투자(중소·벤처기업 등 여부 불문)
한국벤처투자㈜	일신녹색신성장동력펀드	녹색인증기업(기술, 사업, 전문기업) 중 우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 민간금융 종류

은행	상품 및 지원방향	주요내용
우리은행	우리그린솔라론	태양광산업 중소기업 특화전용대출
	우리LED론	LED 산업 특화전용대출
	우리 RFID/USN 론	그린 IT산업 특화 대출상품
국민은행	Green Growth Loan	친환경보존 및 녹색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및 각종 금융 서비스를 지원
신한은행	신한솔라파워론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고자 발전소 건설자금 지원
산업은행	전력부문특별시설자금	녹색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충
하나은행	솔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특화 대출상품
기업은행	녹색성장기업대출	녹색산업에 올해 1조원 지원 계획
외환은행	마이솔라파트너론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앞 시설자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녹색성장산업지원금융	환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원, 탄소펀드 조성, EDCF 확대
대구은행	DGB Green Loan	녹색성장정책 동참 및 신사업기회 발굴, 녹색기술력 있는 중소 기업 자금 지원
광주은행	KJB Green Loan	녹색성장산업 지원 금융상품
	Hi Green 솔라론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자료 : 국내외 녹색금융 추진 사례 및 은행의 전략(2010), 에코프론티어

▌녹색금융에 주어진 과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녹색성장이 추진되면서 큰 성과를 이룩했다. 국내기업들은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세계 LED TV시장에서 최강국이 되었고,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친환경 엔진개발을 통해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시장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녹색금융을 이용한 지원이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대기업에 몰리면서 중소 · 벤처기업들은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시중 은행들의 녹색금융 관련 상품 취급액도 올해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초기 기대감이 높았던 태양광 분야의 경우는 시장의 미성숙과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2014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전혀 식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간 강세를 보였던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칠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 성장동력으로서 기술집약적인 녹색산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모든 산업을 성장,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녹색 금융을 제대로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투자를 이끌어내되 녹색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출처

- http://www.green-finance.or.kr(녹색금융종합포털)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2012
- 한국경제, 2012년 7월 8일 “골칫거리 전락한 녹색금융”
- 파이낸셜뉴스, 2011년 9월 4일 “녹색금융 돈맥경화 풀어야”
- http://www.green-finance.or.kr/app/Green_company/green_investment_fund/List1.jsp

제 9 호

국내 인권경영 실천 현황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의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인권 경영'의 현주소는 어떨까?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 지식노트에서는 2011년 〈한겨레21〉에서 국민대 노한균 교수의 '지속가능보고서 인권항목 분석'을 참조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 라인에 나오는 인권 영역 이슈들을 적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겠다.

분석 개요

이번 분석에서 활용된 GRI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성과, 환경, 사회적 성과(노동, 인권, 사회, 고객)의 세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GR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인권영역은 여섯 가지 핵심 항목과 세 가지 부가 항목 등 총 아홉 가지 항목을 통해 평가한다. 이번 분석에서 인권 영역의 6개 핵심 항목에 대해 국내 45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기업은 한곳도 없었으며 SK에너지가 6개 항목 중 4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이어 삼성SDI,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3곳이 핵심 항목 3개를 만족시켰다.

○ HR(Human Right) 1

HR1은 '주요 투자협약 가운데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협약의 건수 및 비율'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삼성SDI,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LG전자, SK에너지 등 5개 기업이 "인권 심사를 실시한 투자협약이 없다"고 밝혀 HR1의 요건을 만족시켰다. 가장 많은 20개 기업은 이 항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 HR(Human Right) 2

HR2 항목에서는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에 대해 인권 심사가 이뤄지는 비율'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한킴벌리와 신한금융그룹 단 2곳만 요건을 충족시켰다. 18개 기업은 일부 기준만을 밝혔고, 11곳은 상관없는 내용을 그리고 14곳은 언급하지 않았다.

○ HR(Human Right) 4

HR4는 '임직원들이 내부적으로나 행정기관 등에 고발한 차별 사건과 이후 조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증권, 풀무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현대건설, LS엠트론 등 7곳이 "발생 건수가 없다"고 보고하여 요건을 만족시켰다. 21개 기업은 일부 내용만 보고하였고 나머지 기업들은 관련없는 내용을 담거나 이 항목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 HR(Human Right) 5

HR5는 '직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SK에너지 등 2개 기업이 이에 대해 보고하여 조건을 만족시켰다. 기아차, 대구은행, 대한항공, 신한금융그룹, 삼성SDI, 한국타이어 등 31개 기업은 노조참여율을 밝히거나 결사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선언만 소개하여 일부만 만족시켰다. 나머지 10개 기업은 비관련 정보를 기재하였고 다음커뮤니케이션 1곳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HR(Human Right) 6

HR6 항목은 '아동노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과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10개 기업이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23개 기업은 아동노동 금지의 원칙은 밝혔으나 위반 사례 유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6개 기업은 원칙이나 위반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 HR(Human Right) 7

HR7 항목은 강제노동 금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10개 기업은 강제 노동 위험이 없다고 밝혔고, 22개 기업은 선언이나 규정만 소개하였다. 그 밖에 기업들은 상관없는 내용을 담거나 관련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다. 보다 상세한 보고 현황은 아래(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45개 기업 201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GRI 인권 항목 보고 기준 준수 실태

기업명	인권 성과지표						계			
	HR1	HR2	HR4	HR5	HR6	HR7	우수	미흡	부정확	미기재
기아자동차	×	×	△	△	△	△	0	4	0	2
다음커뮤니케이션	×	×	△	×	△	○	1	2	0	3
대구은행	▽	▽	▽	△	▽	▽	0	1	5	0
대림산업	▽	▽	▽	▽	▽	▽	0	0	6	0
대한항공	×	×	△	△	△	△	0	4	0	2
동부화재	▽	▽	▽	▽	▽	▽	0	0	6	0
부산교통공사	▽	▽	△	▽	▽	△	0	2	4	0
삼성증권	▽	▽	○	△	△	○	2	2	2	0
삼성SDI	○	△	▽	△	○	○	3	2	1	0
서울메트로	▽	△	△	△	△	△	0	5	1	0
신한금융그룹	▽	○	△	△	△	△	2	4	1	0
아모레퍼시픽	×	×	△	△	△	△	0	4	0	2
아시아나항공	×	×	×	▽	×	×	0	0	1	5
웅진씽크빅	▽	▽	▽	▽	○	○	2	0	4	0
유한킴벌리	▽	○	△	△	○	△	2	3	1	0
코레일	○	▽	△	△	△	△	1	4	1	0
풀무원	▽	▽	○	△	△	△	1	3	2	0
하이닉스	▽	△	△	▽	▽	▽	0	2	4	0
한국공항공사	▽	△	△	△	○	○	2	3	1	0
한국동서발전	×	×	△	△	×	×	0	2	0	4
한국수력원자력	▽	△	○	△	○	○	3	2	1	0
한국수자원공사	○	△	△	○	○	△	3	3	0	0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	▽	0	1	2	3
한국타이어	▽	△	○	△	△	△	1	4	1	0
현대건설	×	△	○	△	△	△	1	4	0	1
현대모비스	×	×	△	△	△	△	0	4	0	2
현대자동차	×	×	×	△	○	○	2	1	0	3
현대제철	×	△	△	△	△	△	0	5	0	1
현대해상화재보험	▽	△	△	△	△	△	0	5	1	0
호남석유화학	▽	▽	△	△	○	○	2	3	1	0
GS칼텍스	×	×	△	△	△	△	0	4	0	2
KB국민은행	▽	△	▽	△	△	▽	0	3	3	0
KT	×	×	▽	△	×	▽	0	1	2	3
KT&G	▽	△	△	△	○	○	2	3	1	0
LG생활건강	×	×	×	▽	△	△	0	2	1	3
LG전자	○	▽	▽	△	▽	▽	1	1	4	0
LG화학	▽	△	×	▽	△	△	0	3	2	1
LS엘트론	×	△	○	△	△	△	1	4	0	1
SK에너지	○	▽	△	○	○	○	4	1	1	0
SK텔레콤	△	△	▽	△	△	×	0	4	1	1
에쓰오일	×	△	×	△	×	△	0	3	0	3
삼성전자**	×	△	○	△	△	△	1	4	0	1
포스코**	×	△	△	▽	△	△	0	4	1	1
롯데쇼핑**	×	×	×	△	△	▽	0	2	1	3
STX조선해양**	×	×	▽	▽	×	×	0	0	2	4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협약 건수 및 비율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처
HR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와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
HR6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처
HR7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처
* ○ (우수), △ (미흡), ▽ (관련 없는 내용 기재), × (미기재)
** 〈한겨레21〉 자체 분석
참조 : 국민대 노한균 교수(경영대 · 지속가능 경영연구센터장) '지속가능보고서 인권항목 분석'

〈그림 1〉 GRI 가이드라인 기준 국내 기업 '인권' 항목 보고 현황(2010)

▌제언▐

소개된 분석은 GRI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국적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인권분야를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언급된 보고 여부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모든 실태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보다도 인권 경영 분야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은 세계적인 인권 경영

수준보다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권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겨레 21, 2011년 2월 11일자, "인권경영, 미흡하거나 침묵하거나"

제10호

윤리경영 진단 툴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자체적인 진단 툴을 만들어 자사의 윤리경영을 파악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데 사용하였다. 이번 호 지식노트에서는 민간기업 두 곳과 공기업 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리경영 진단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윤리경영 평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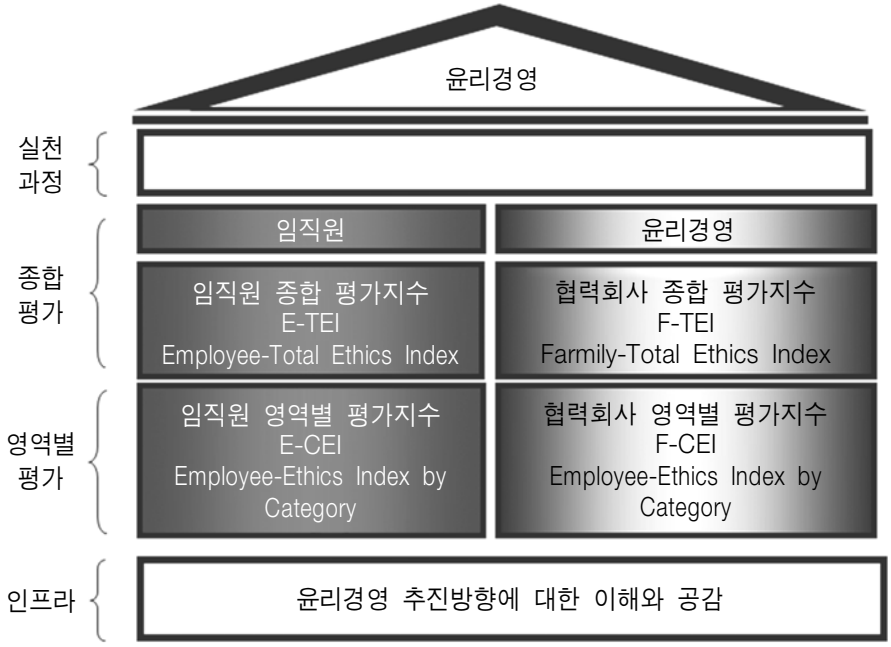
신세계의 윤리경영 평가는 자사와 전 관계사의 윤리경영 실천수준을 정량화하는 SEMDEX (Shinsegae Ethics Management Index)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경영 실천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STEX(Stakeholder Ethics Index)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SEMDEX의 경우, 총 7개의 실천테마와 29개의 평가지표, 7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된다.

〈표 1〉 SEMDEX 지표 세부항목

실천테마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고객존중	종업원 친절도, 사업장 청결, 약속 이행, 고객 불만 처리, 고객만족 제도, 고객보호 제도	14개	10
준법	기업경영 활동관련 법규준수, 공정거래 준수, 안전준법 활동	12개	15
협력회사 존중	거래 편의성, 부당부실 행위발생, 협력회사 규정준수, 윤리경영 공감노력, 상호이익 추구, 협력회사 만족도	11개	20
청결	직원 청결도, 내부 고발제도	10개	20
인재중시	장애인고용, 인재육성, 여성인력 육성, 복리후생, 노사협의	15개	10
사회봉사	사회봉사, 환경보호	5개	10
경영투명성	경영투명성 노력	7개	15
계		74개	100점

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sonlee999&logNo=20037720517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지표인 STEX(Stakeholder Ethics Index)는 임직원 종합 평가지수(E-TEI), 임직원 영역별 평가지수(E-CEI), 협력회사 종합 평가지수(F-TEI), 협력회사 영역별 평가지수(F-CEI) 네 가지를 평가한다.



〈그림 1〉 신세계의 STEX 평가 모델

▌윤리경영 평가 2▐

KB국민은행 윤리경영 진단지표(KB-EMA : KB Ethics Management Assessment)는 GRI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진단영역이 설정되었고, 설문 항목은 '2004년 KB윤리경영 평가모델'을 기초로 지식경제부와 전경련에서 발표한 윤리 자율진단지표 중 공통으로 제시하는 설문을 우선 발췌, 추가하고 검토하여 선정되었다.

〈표 2〉 윤리경영 진단지표(KB-EMA, 2010) 구성

진단영역(대분류)	진단영역(중분류)	설문문항 수
윤리경영 의식과 제도	- 윤리경영 실천의지 - 임직원 윤리의식 - 윤리교육 - 내부통제 체제 -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5문항
주주만족 경영	- 경영성과 - 투명경영	2문항
고객만족 경영	- 품질경영 - 고객존중 경영 - 공정한 업무처리 - 고객보호 활동	4문항
직원만족 경영	- 직원존중 - 인재개발 - 직원만족경영 -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 직원 다양성	5문항
사회공헌	- 부패방지(협력업체) - 공정경쟁(경쟁업체) - 사회공헌 참여 의지 - 환경보호 활동	4문항
합 계		20문항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B-EMA의 구성은 총 5개 영역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단계 선택 평가 방식(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이 적용되었다.

▌윤리경영 평가 3▐

동서발전의 윤리경영지수인 EWP-EMIx(East West Power – Ethics Management Index)는 윤리경영 상태를 측정 및 진단 후, 윤리경영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특성을 추구하였는데 단순성, 일관성, 반복성, 실행가능성을 이 지수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성은 측정방법의 단순화로 용이한 결과 도출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관성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복성은 데이터 수집 방법이 반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측정 자료 및 분석결과를 개선방안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총 5개 분야(윤리, 투명, 사회, 준법, 포괄)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세부 사항은 〈표3〉과 같다.

〈표 3〉 EWP-EMIx(East West Power – Ethics Management Index) **세부항목**

구분	세부 측정 내역	점수
윤리	○ 연간 윤리경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윤리관련 세부교육 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 사회공헌(사회봉사)활동 계획 - 환경보호 활동 계획	10 (2,5) (2,5) (2,5) (2,5)
	○ 사업소장의 윤리경영 추진의지 - 각종 행사시 윤리경영 중요성 강조 실적 : 월 1회 이상 - 교육 수강 또는 직원대상으로 교육 시행 실적 : 분기 1시간 이상	10 (5) (5)
	○ 윤리경영 교육 - 사업소 전체 집합교육 : 반기 1회 이상 (외부 및 내부 강사에 의한 교육 시행 실적) - 사업소 팀(부)별 자체교육 : 분기 1회 이상 (팀장 또는 차상위자에 의한 팀원 교육 시행 실적) -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이수 ☞ 평가산식 = { 수료인원 ÷ (대상인원 × 0.95) }× 가중치	30 (10) (15) (5)
투명	○ 청렴도 조사 - 상반기, 하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 ☞ 평가산식 = 가중치 - { 가중치 × (최고점수 – 고유점수) } ÷ 100 ※ 상반기, 하반기 각각 산출하여 산술평균 점수를 최종 적용 ※ 조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30

구분	세부 측정 내역	점수
사회	○ 사회봉사활동 - 사업소 팀(부)당 반기 1회 이상 ☞ 평가산식 = { 팀(부)별 활동횟수 ÷ (팀수 × 2) } × 가중치	10
	○ 협력사 윤리의식 향상 간담회 및 윤리교육 - 간담회 : 반기 1회 이상 - 윤리교육 : 반기 1회 이상	10 (5) (5)
준법	○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의해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 ☞ 평가산식 = 1건당 2.5점씩 차감	감점
	○ 윤리관련 민원 및 감사지적된 경우 ☞ 평가산식 = 1건당 2.5점씩 차감	감점
포괄	○ 포괄적 윤리경영 실천사항 - CEO : CEO의 윤리경영 의지 및 실천사항 -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 노력 - 환경보전 : 환경정책 및 공시, 환경성과 수상기록 등 - 기타사항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 등	-

▌분석결과 및 제언▐

이번 윤리경영평가 지수에는 각 기업별로 소속된 산업군의 특징과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에 발생하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된 SEMDEX의 경우 유통업의 특성상 협력회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청결한 매장관리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결" 항목이 들어간 것도 다른 두 개의 평가 모델과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두 번 째로 소개된 KB-EMA는 다른 두 평가 모델에 비하여 단순하게 구성하여 내부 임직원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EMDEX는 유통업체의 모델이기 때문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이해관계를 맺지만, KB-EMA는 은행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항목이 적은 편이었다. 사회공헌 영역에서 협력업체의 부패방지 항목이 있을 뿐, 내부 임직원들과 고객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EWP-EMIx 경우는 규정과 세부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공기업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다른 두 지수들이 윤리평가에 넓은 의미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평가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순수하게 윤리성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 가지 지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공헌과 투명성에 대한 강조였다. 이는 산업군과 민간기업, 공기업을 떠나 윤리경영에 있어 사회공헌과 투명성을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 가지 지수들이 주는 시사점은 윤리경영 평가가 기업이 속한 산업군과 기업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세 가지 사례로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내기는 어렵지만, 기업별로 자신들의 상황과 이해관계자 규정에 적합한 윤리경영 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이런 윤리경영 평가 지수 소개가 비슷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우수 모델들을 벤치마킹하여 자신들의 윤리경영 평가 방법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

- 신세계의 윤리경영, 2010년 윤경SM포럼 발표자료
- “2010년 KB국민은행 윤리경영 현황 및 수준진단 보고서”, KB준법지원부/시장연구부
- 한국동서발전 윤리경영지수 운영사례, 2008년 윤경SM포럼 발표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sonlee999&logNo=20037720517

윤리경영 동향

• 제 1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75
해외 윤리경영 동향 / 178

• 제 2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82
해외 윤리경영 동향 / 186

• 제 3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90
해외 윤리경영 동향 / 194

• 제 4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197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02

• 제 5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06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13

• 제 6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16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21

• 제 7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25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30

• 제 8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34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38

• 제 9 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42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46

• 제10호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250
해외 윤리경영 동향 / 256

국내 윤리경영 동향

금융투자협회, '2011 금융투자업계 사회공헌백서' 발간해

금융투자사회공헌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2011 금융투자업계 사회공헌백서'를 지난 1월 17일 발간함.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업계 처음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사회공헌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에 대한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작됨. 백서의 내용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주제로 각 금융투자회사가 진행한 사례뿐만 아니라, 업계의 분야별 실적도 포함하고 있음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新 윤리헌장' 선언

한국예탁결제원은 2012년도 시무식과 동시에 신(新)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통해 실천결의를 다졌다고 밝힘. 신(新)윤리헌장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실천해야 할 윤리규범'을 정한 것이라고 밝힘. 기존 윤리헌장의 '공동가치 창조경영'이라는 신뢰, 나눔과 동반성장, 상호존중 등 이해관계자별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청렴, 충실, 공정 등 임직원의 직무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포함됨

한전KPS,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지난 1월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공동주최한 '2011년도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에 한전KPS가 선정됨. 한전KPS는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과 채용학력 철폐 등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에 적극 노력하며 협력연구개발 및 기술품질인증 취득 지원 등 중소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강화에 앞장 서 옴. 특히 한전 KPS는 지난해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가치창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전력

그룹사 중 가장 먼저 임금협약을 체결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함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음

▌포스코, 아프리카 사회공헌활동 본격 돌입▐

포스코가 아프리카 주요 진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인근에 '포스코 어린이 개발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힘. 빈곤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80여 명이 기초교육을 받거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빈곤층 부모와 지역지도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할 예정임. 같은 장소에 농업훈련원도 착공을 시작함. 선진영농기술과 영농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임

▌세븐일레븐·롯데슈퍼, 학부모 무이자 대출 시작해▐

롯데와 IBK 기업은행이 대학생 1,000명에게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함. 롯데그룹 계열 세븐일레븐과 롯데슈퍼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 대학생 희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지난 2월 4일 밝힘. 학자금 대출은 신용상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학생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대출에 소요되는 총 3년 간의 이자비용을 세븐일레븐과 롯데슈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임

▌KB 금융그룹, 사회공헌 4대 핵심 테마 선정▐

KB금융그룹이 '2012 그룹 사회공헌 운영계획'을 확정하며 대대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섬. KB금융그룹의 4대 핵심 테마는 청소년, 글로벌(다문화), 환경, 노인복지 등으로 이를 통해 테마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특히 국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돕는 '신속드림봉사단'과 임직원의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드림봉사단'을 출범하고 그룹 대표 사회공헌사업을 '경제·금융교육'으로 정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그 중 작년 5월 출범한 KB금융공익재단에 올해에도 추가 금액 지원을 통해 'KB굿잡'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힘

▌안철수 연구소 사회공헌팀, 본격 활동 개시▐

안철수 연구소는 미래의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보안교실 'V스쿨'을 지난 1월 17일 개최하였음. 이번 행사에는 안 연구소의 김홍선 대표가 직접 나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장래 계획, 고민 등을 나누는 시간을 보냄. V스쿨은 지난 해 12월 사회공헌팀을 발족시키며 노년층 대상 컴퓨터 교육교실인 '실버스쿨'등과 함께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프로그램임

▌외국계 기업, 사회공헌 활동 강화▐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기업 및 한국 사회와 공생 발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제너럴일렉트릭(GE)은 올 해 한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본사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임. 우주항공기업 보잉코리아 또한 서울과학고를 후원하는 등 한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감시 시스템을 전수하는 글로벌 기업도 있음. 지멘스는 과거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경험했던 점을 토대로 윤리경영을 국내 기업에 전수해주고 있음

▌론스타 1000억 사회공헌 기금 유명무실해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1000억원대 사회공헌기금' 약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론스타는 5년 전 사회공헌기금으로 1000억원을 내놓기로 한 약속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인 2006년 4월 기자회견 당시 한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10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론스타 관계자는 당시 약속은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약속이므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함

* 출처 : 인터넷 기사 및 뉴스 요약 정리

해외 윤리경영 동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 다시 역설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우수 실천사례 모임인 유엔글로벌콤팩트리드(LEAD)의 발족 1주년 행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업 대표 참가자들에게 리우+20 지속가능성 정상회담 개최를 맞아 기업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함. 이날 모임에서 반 총장은 리우+20 정상회담을 통해 기업들 사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1) 동종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 지속가능성을 홍보하고 2) 지속가능성 관련 로비단체와 연대하며 3) 리우+20 정상회의의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을 제시함

* 기사전문 : http://sm_webzine.ips.or.kr/201202/gl01.html

▌리우+20, 정상회의 결과 초안 발표▐

지난 1월 26일 뉴욕에서 리우+20 정상회의에 앞서 동회의 결과 초안 리뷰 미팅이 열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업 행동 2012(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2)'에서 정책 발전과 수행에 있어 민간분야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BA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게 될 리우+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들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고팔라크리슈난 BASD 의장은 이번 초안은 녹색 경제와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들을 총괄함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힘

* 기사전문 : http://sm_webzine.ips.or.kr/201202/gl01.html

▌네슬레, FLA와 협력을 통한 아동 노동 금지에 앞장서▐

세계적인 코코아 가공업체 네슬레는 최근 공정노동협회(FLA; Fair Labor Association)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공급망인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을 조사하기로 함. FLA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네슬레는 원료 공급자들로부터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는 투명한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함. FLA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높은 지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네슬레의 공급망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03

▌유엔글로벌콤팩트, 패션업계와 최초의 산업특화 이니셔티브 발족▐

유엔과 NICE[1](Nordic Initiative Clean and Ethical)는 유엔글로벌콤팩트로서는 최초로 산업특화(sector-specific)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킴. 게오르그 켈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은 패션섬유산업이 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기에 산업별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킬 수 있었다고 밝힘. 덴마크 패션협회 및 북유럽 파트너들로 대표되는 패션산업과 유엔 간의 강한 연대는 세계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션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임. 새롭게 체결된 유엔글로벌콤팩트 & NICE 패션규약은 오는 5월 3일 덴마크 왕세자비 후원 아래 코펜하겐 패션 지속가능성 서밋[2]에서 발표될 예정임

* 기사전문 : http://unglobalcompact.kr/52.htm?ptype=view&idx=1574&page=1&code=a62#e

▌세계 지속가능성 패널, 보다 심도 있는 지속가능경영 촉구▐

유엔사무총장의 세계 지속가능성 고위급 패널(Global Sustainability Panel) 상임위원회는 1월

---

1) NICE(Nordic Initiative Clean and Ethical)
북유럽 패션사들 간의 협작 벤처이고 북유럽 패션연합이 주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패션업계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NICE의 주요 목표는 패션업계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 입니다. 새로운 고급 정보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지식 습득 역시 NICE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NICE는 참가자들에게 고급 지식과 네트워크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코펜하겐 패션 서밋
5월 3일 개최되는 '코펜하겐 패션 서밋'은 패션업계의 지속가능성 및 CSR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회담입니다. 이번 서밋은 덴마크 패션협회가 주최하며 세계 사회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 채택에 기반한 패션업계의 성공적인 발전에 대해 여러 패션기업, 전문가, NGO 및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토론합니다.

30일 '회복하는 사람들, 회복하는 지구 : 선택할 가치가 있는 미래(Resilient People, Resilient Planet: A Future Worth Choosing)'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의 구축에 있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성장을 보다 신속하게 기업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56가지 추천방안을 제시함.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는 변화를 위한 기회이고 세계 경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기업들간 극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이 기업 방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사전문 : http://unglobalcompact.kr/52.htm?ptype=view&idx=1574&page=1&code=a62#e

▌미 환경보호국(EPA), 산업별 교차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2009년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제작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환경 오염의 영향이 높은 산업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례가 됨. 조사결과 9개 산업군별 6,700개의 시설물들이 미국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악의 배출량을 보이는 시설물 100개를 선정한 결과 96개가 발전 시설임이 밝혀짐. 장소, 산업,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검색이 가능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툴로써 사용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혁신적인 개선방향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기사전문 : http://sm_webzine.ips.or.kr/201202/gl01.html

▌하스보로, 첫 CSR 보고서 발간▐

장난감과 전자 오락 제조업체 하스보로(Hasbro)는 첫 CSR을 발간함. 이 보고서에는 하스보로만의 엄격한 원칙 및 소비자들의 신뢰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함. 하스보로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 출시 중인 모든 장난감과 오락용 콘솔의 포장재에 PVC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힘. 또한 주요 협력업체(판매망 및 제품생산 공장)를 지정하여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05

▌중국의 CSR,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중국 기업들의 CSR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4년 사이에 2번이나 불량 제품

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기업이 CSR 관련 수상을 하며 더욱 이슈가 되고 있음

지난 2011년 썩은 우유와 관련해 고의성을 부정했던 한 기업은 이 사건이 불거진 몇 일 뒤 베이징 일보(Beijing Time)가 주최한 'CSR 최고상'을 수상하게 됨. 더욱 큰 문제는 불과 4년 전 똑같은 문제로 이 기업의 우유를 마신 어린이 30만 명이 아프고 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임. 이번 사건은 중국의 CSR 중 식료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시상기관인 베이징 일보도 얼마 전 고의간부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져 자체 내의 CSR도 의심받고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097

EU기업들, 지속경영 보고서에 현실 아닌 포부만 드러내

리즈(Leeds)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의 CSR보고서 6개 중 1개만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보고를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함.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FTSE에 등록된 400개 이상의 EU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기업들은 꽤 많은 탄소배출 관련 문제를 보고서에 오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영국의 통신회사 BT는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부분에는 아예 0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음. 이와 관련해 BT는 해외의 정보 수집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힘

* 기사전문 : http://sm_webzine.ips.or.kr/201202/gl01.html

핸더슨, 사회책임투자 부서 폐지 결정해

영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 업체 핸더슨 글로벌 투자(Henderson Global Investors)는 최근 기업 내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팀을 없앤다고 밝힘. 핸더슨은 SRI 펀드를 운영 중인 별도의 부서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앞으로는 아이리스(Eiris, 사회책임투자 전문기관)를 통한 외주 투자가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함. 이번 결정은 SRI 시장에 큰 충격과 반향을 불러오고 있음. 핸더슨의 SRI 팀은 약 1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영 중이었으나 이 자금은 해체가 될 예정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근시안적이며 안일한 처사라고 비난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 대중들이 윤리경영을 떠올릴 때 핸더슨의 이름은 절대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094

국내 윤리경영 동향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제회의 열려▐

한국SR전략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ISO 26000과 CSR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이번 행사에는 브래들리 구긴스 전 미국 보스턴대학 기업시민연구소장, ISO 26000 조문 작성에 참여한 한스 크뢰더, CSR 인터내셔널 설립자 웨인 비서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세계 규범으로 대두된 ISO 26000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 국내 연사로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고 하영구 씨티은행장, 김영기 LG 부사장, 남영숙 이화여대 교수 등이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의 CSR활동을 소개

▌권혁세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기관도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 권 원장은 지난 3월 9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12'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힘. 그는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모두 사회공헌이나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신경 써 달라고 하며, 단 최근의 고액배당 문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 차원의 문제라며 사회적 책임과는 다르다고 규정함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 재선임▐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2012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차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재선출. 이 회장은 지난해 열린 '글로벌 CSR 컨퍼런스 2011'에서 채택한 '서울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강조한대로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가치를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젊은 층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함. 대학생 CSR 국제회의, 대학생-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일련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4대 가치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남부발전, 20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단체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국민신문고 대상'시상식에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기업 부문 우수단체상을 수상.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노력도,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 8개 분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남부발전은 회사 특성상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료구매, 자재조달, 발전소건설 하도급 등을 4대 '레드존(Red Zone)'으로 분류해 연료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구매전담부서 운영, 하도급 불법성 모니터링 등 체계적이며 투명한 업무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 받음

▌노바티스, 포춘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제약사' 2년 연속 1위▐

한국노바티스는 노바티스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2012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제약사' 1위로 선정됐다고 밝힘. 이로써 노바티스는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제약사'에 선정됨.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및 지역, 산업 분야 별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리스트는 4천 여명의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관리자 및 금융 전문가들이 ▲혁신성 ▲재정 견실성 ▲사회적 책임 ▲글로벌 경쟁력 ▲장기 투자 ▲자산 운용 ▲품질 경영 ▲인사 관리 ▲ 생산/서비스 품질 등 9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노바티스는 위 항목 중 혁신성, 글로벌 경쟁력, 재정 견실성, 품질경영, 인사관리 등 5개 부문을 높게 평가 받아 제약 업계 1위를 차지함

▌삼미건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1억원 지원▐

㈜삼미건설은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기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 지원되는 금액은 저소득층 학생 중 급식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쓰이게 되며, 특히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될 예정

▌KT&G, 담배공장의 '착한 변신'▐

KT&G는 민영화 이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담배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대신 줄어든 수익은 건강사업

진출 및 해외 수출로 벌충.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알루미늄 박지를 사용했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 박지를 개발해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등 친환경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친환경 경영 기반을 마련함.. 보루 포장 역시 비닐 없는 소프트케이스를 개발, 연간 약 1,000톤의 펄프와 167톤의 비닐을 절약함. 그 외 에너지 재활용을 위해 인근 공장으로부터 증기를 제공받아 냉동기 가동용 연료로 사용, 연 944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성과를 가져옴

▌카페베네 청년봉사단, 인도네시아 소녀 생명 구해▐

카페베네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로 봉사활동을 위해 떠났던 카페베네의 청년봉사단이 반유앙 지역에서 만난 루미 어린이의 뇌수막염 수술을 후원. 청년봉사단은 최초 현지 병원을 찾았으나 검사장비가 미흡하였고 완치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추진함. 카페베네는 루미와 루미 아버지의 한국 방문에 드는 체류비용은 물론 수술비 전액을 지원함. 카페베네의 한 관계자는 뜻 깊은 윤리적 경영이 세계적인 경영철학이 되고 있는 시기에 카페베네도 적극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함

▌이마트, 중소협력사에 4500억 지원▐

이마트가 지난 3월 21일 '협력회사 CEO 초청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고 협력회사에 대해 3000억원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총 4500억원 가량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는 '이마트 동반성장 4대 강화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이마트는 중소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동반성장상품을 개발하고 이마트 바이어, 마케팅, 판매본부 담당자가 중소협력사 상품 판로확대와 매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00억원 이상의 동반성장상품을 50여 중소 협력회사로부터 전량 현금으로 매입할 예정.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던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올해에만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생플러스론,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해 협력회사 자금지원 규모를 연 3000억 이상으로 더욱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

▌삼성그룹, 법 · 윤리 위반 임직원에 무관용▐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방해 혐의로 법상 최고 금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삼성전자가 윤리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강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힘. 3월 21일 삼성사장단협의회에서 이번 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

이며,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계열사 평가시 정량적인 경영실적 외에 얼마나 법과 윤리에 맞춰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조사방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더 강한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출처 : 인터넷 기사 및 뉴스 요약 정리

해외 윤리경영 동향

▌유럽연합(EU), 공급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강화키로▐

유럽연합은 최근 다국적 물류업체들의 입찰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을 더욱 강화할 예정. 이에 따라 천연 자원의 분배에 대한 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율 할 수 있을 전망. 공급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강화해 관세를 낮춰 원가 절감을 이루기보다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만드는데 목적을 둠. 선관주의 의무의 강화를 통해 국가간의 무역장벽 보다 천연 자원이 공급망을 비롯한 전체 사용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숨겨진 부조리들을 해결하고자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힘. 이번 발언과 관련해 다수의 NGO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방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38

▌미국 공정무역협회, 국제 공정무역 협회 탈퇴▐

세계 공정무역협회(Fair Trade International) 산하 미국 지부였던 미(美)공정무역협회(Fair Trade USA)가 최근 독립을 결정. 자국 기준에 비해 높았던 규정을 완화하고, 보다 더 넓은 분야에 공정무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미 공정무역 협회는 '공정무역(Fair-trade) 상표 부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현행 '첨가물의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세계 협회에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독자행동을 택한 것으로 보임. 세계 협회와의 분리를 통해 미국 협회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무역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미국 협회의 결정은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미국 협회 관계자 또한 이번 결정은 투명성, 공정성, 진실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정무역의 추세와 반대되는 일이라고 비판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43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 GRI 가이드라인 채택▐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조직위원회는 최근 GRI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행사 가이드라인(Event Sustainability Guideline)를 최초로 적용 할 예정. 행사 가이드라인의 구성(The Event Organizers Sector Supplement)은 소규모 회의부터 스포츠 행사 및 음악회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새로운 GRI 가이드라인의 추가로 인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을 전망. GRI의 관계자는 어떠한 행사건 분명히 경영 활동에 중요한 투자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밝힘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41

▌일본 기업인들, 사회공헌 배우러 한국 방문▐

주바치 료지 소니 부회장을 비롯한 일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절단이 지난 2월 27일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배우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 일본기업의 CSR 지원체인 기업시민협의회(CBCC)가 파견한 사절단은 소니, 오무론, 일본손해보험협회, 아지노모토, 도요타, 파나소닉 등 일본 주요 기업 CSR 관계자 20여명이 참여. 이날 전경련은 임직원 지식 · 재능 봉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경·제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등을 소개함. 주바치 소니 부회장은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에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

* 기사전문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03053

▌중국 항공사들,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세금 지불하지 않기로▐

중국은 최근 자국 항공사들에게 새로이 부과되는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세를 지불하지 말 것을 주문. 중국 항공국(The Chinese aviation authority) 또한 자국 항공사들이 유럽연합 내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세를 지불하지 말 것을 당부. 중국의 항공사들은 당국과 관계없이 이미 부과되는 세금을 무시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민간국적 항공기의 타국 영공 비행에 따른 탄소 배출은 위법이라 주장할 수 없음을 근거로 이와 같은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음.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의 운송수단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39

▌영국 통신사 O2, 40가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도입▐

영국의 대형 통신 회사인 O2는 CSR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3개년 계획 발표. 이 계획에는 탄소 배출부터 탄력 근무제까지 전 범위를 포괄하는 40가지 목표가 담겨 있으며. O2의 'Think Big Blueprint'는 지구를 둘러싼 3가지 이슈를 테마로 정하고 테마 아래 40가지 목표 중에는 모든 사업장 내 100% 재활용 에너지 사용, 수자원 사용의 25% 절감, 통신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의 50% 절감 등이 있음. 이 모든 계획은 O2의 최고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성 TF(Sustainability Task Force)에 의해 점검될 예정. 이들은 6주에 한번 정기 모임을 통해 계획의 진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37

▌물류 업체들, 재해·재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해▐

세계적인 물류 업체 AP몰러(AP Moller-Maersk)와 UPS(United Postal Service)는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UN World Food Program)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재앙 대책 마련 프로그램을 지원.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로, 다리, 공항, 항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물류 운반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35

▌테스코, 카본트러스트제도 제외하기로 밝혀▐

영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테스코(Tesco)는 최근 비용, 시간, 다른 납품 업체들간의 활용도 저조를 이유로 'Carbon Trust certification label'과의 파트너십을 폐기. 지난 2004년 테스코는 '카본트러스트(Carbon Trust)'의 도입을 열렬히 지지하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약 500여 개의 상품들을 인증하였으나 기존 방침을 뒤엎고 독자 노선을 택함. 그간 여타 소매상들을 통해 납품하는 물건들을 일일이 검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었으며 테스코 내의 모든 물건을 인증하려면 적어도 25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32

▌맥도날드, '12년 최고의 지속가능한 체인업체 발표▐

지난 3월 15일,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출처와 환경, 지역사회. 직원의 복리 개선에 기여하며 문제를 해결한 공급 체인 파트너의 51개 사례를 강조하며, 2012년 최고의 지속 가능한 공급업체(Best of Sustainable Supply) 체인 수상업체를 발표. 맥도날드는 172개의 공급업체로부터 400개 이상의 제안을 받았으며,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012년 최고의 지속 가능한 공급 수상업체를 선정

* 기사전문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10069&ected

국내 윤리경영 동향

▌재벌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힘. 이는 재벌 소속사의 거래상대방 선정 등과 관련한 거래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계열사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대기업 계열사 간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기업 집단 내의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치임. 이 모범기준에는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사에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포함됨. 공정위는 내부거래위원회 혹은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4월 1일부터는 대규모 내부거래 때 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20곳 지원▐

한화그룹은 3월 28일 '함께 일하는 재단',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가짐. 한화는 본 사업이 내년 2월까지 15억 원을 투자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돕는 내용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한화는 4월 13일까지 친환경 사회적기업 20곳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에 사업 지원과 함께 인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 한화그룹은 지난 해 11월 상생과 친환경, 복지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관련한 '한화 공생발전 7대 종합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하였는데, 본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한화 공생발전 7대 종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

▌SK그룹, 국내 최대 규모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출범▐

SK그룹은 3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MRO) '행복나래'(옛 MRO코리아)의 사회적기업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 현재 국내 640여 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은 10억원 안팎이지만 행복나래의 지난해 매출액은 1250억 원으로 대기업의 경영모델을 결합시킨 국내 최대 규모임. 행복나래는 최근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 절차를 거쳐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행복나래 수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한편 행복나래는 3월 16일 주주총회를 열어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의 사외이사를 사회적기업 분야 전문가 출신들로 선임하여, 투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배구조를 확립함

▌LG전자, '동반성장 아카데미' 출범▐

LG전자는 3월 28일 임직원과 협력회사 대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아카데미' 출범식을 개최. 지난해 시작된 '동반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본 행사에서 평택 러닝센터 내의 건물 한 동을 '동반성장 아카데미' 전용 건물로 지정하여 협력회사 임직원이 30여 개 강의실을 갖춘 건물에서 수시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LG전자는 지난해에 500여 개였던 교육대상 협력회사를 올해에는 600여 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프라인 강의를 지난 해 60개 과목에서 올해 약 90개 과목으로 다양화시키고 협력회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회사들에게 필수적인 과목들을 신설하기로 함.

▌민·관 손잡고 '착한 기업 육성'▐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17일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함. 본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두 기관이 ▲기업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 ▲윤리경영 저해요인 발굴 개선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소통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양자간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함. 두 기관은 수도권의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상·하반기 1회씩 지방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윤리경영 정책을 알리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기로 함

▌포춘코리아 주최 '가장 윤리적인 기업' CEO상에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포춘코리아가 주최하는 제2회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CEO 부문상에 김춘선 사장이 선정되었다고 밝힘. 김 사장은 작년 8월 IPA 사장으로 취임한 후 윤리경영을 모토로 내세우며 윤리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를 선언하였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옴. 인천항만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 경영공시 만족도가 10년 대비 11.2% 향상되었다고 밝힘. 올해로 2회 째 인본 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한 윤리경영 사례를 보여준 기업과 CEO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음

▌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탄소감축 인증제도 'CTS 인증' 획득▐

현대건설은 지난 4월 12일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글로벌 탄소감축 인증제도인 CTS(Carbon Trust Standard)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힘. CTS는 지난 해 11월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영국의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사 주관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우수하게 대응하는 기관임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함께 온실가스 및 에너지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제도로 세계적으로는 지멘스, 도요타 등 6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이 인증을 획득함. 현대건설은 CTS 인증 획득을 통해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산업정책연구원, 제9회 윤경SM포럼 CEO 서약식 개최▐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후원을 받아 '제9회 윤경SM포럼 CEO 서약식'을 개최. 본 행사는 국내외 공·사 기관을 막론하고 윤리·지속경영에 관심을 둔 다양한 산업계 CEO 및 시민단체와 학계 등 70여명의 인사가 서약자로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약식 이었고,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축사자로 참석하여 본 행사의 의미를 더함. 또한 1회부터 9회까지 개최한 본 행사에 빠짐없이 개근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의 소감 및 제6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의 홍보대사 위촉식 그리고 "윤리화분"을 심는 기념행사와 함께 CEO들이 〈우리의 다짐〉을 낭독함으로써 대내외에 윤리적 기업문화 확산과 지속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시간을 가짐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년 임직원 청렴결의대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월 2일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함. 공단은 본 행사를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피력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수준에 머물렀었지만 작은 부패행위에도 직위를 바로 해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률이 감소되었고 청렴도도 크게 개선됨

▌SK, 中서 사회적기업 모델 전략 전수▐

SK그룹은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열린 제 11차 보아오포럼에서 'SK식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소개. 보아오포럼 공식 개막에 앞서 SK 그룹은 초청된 중국의 정·관계 인사와 기업인, 학자들과 SK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이해-이슈와 도전'을 주제로 조찬회를 개최. SK는 이 날 일자리,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부문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행복나래' 사례를 포함하여 SK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례와 성과를 소개. 보아오포럼의 이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에서도 SK식 사회적기업 모델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출처 : 인터넷 기사 및 뉴스 요약 정리

해외 윤리경영 동향

▌Ethisphere 발표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들' 수익률 S&P500 평균 상회▐

Ethisphere Institute는 지난 3월 2011년도 '세계에서 가장 윤리기업(WWE: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리스트를 발표함. 본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들의 수익률은 S&P500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 리스트에는 2007년 처음 집계 후 가장 많은 145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기업윤리와 준법정신 우수 실천기업이 선정되었음. 특히 General Electric, Patagonia, Starbucks 등 23개 기업은 6년 째 본 리스트에 등재됨. Ethisphere는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인 Ethics Quotient(EQ)를 적용하여 총 5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겼으며, 2011년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에 선정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재무적으로도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줌. S&P500 연간 주가 수익률과의 비교에서도 본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연구, 조사하는 국제적 씽크탱크(Think Tank)인 Ethisphere Institute는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한 윤리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3480.html

▌애플, 아이폰 생산공장 팍스콘 근로자 처우개선대책 발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3월 28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대부분을 조립하는 중국 팍스콘 공장을 둘러본 뒤, 공장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함. 애플은 미국의 노동감시단체인 공정노동위원회(FLA)와 팍스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만 홍하이(鴻海) 정밀공업이 중국 현지법에 따라 주간 근무시간을 60시간에서 49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 공정노동위원회(FLA)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

팍스콘 공장은 애플의 공급망에서 핵심 부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현재 12만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공장 근로자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근로환경이 비인간적이라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20330022205& subctg1=&subctg2=

UN, 아동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원칙 제시

UN산하 국제기구인 유니세프(Unicef),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아동을 위한 국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공동으로 아동권리와 기업의 경영 원칙을 제시하였음. 이번 원칙에는 기존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모델 중, 아동 노동에서부터 사회적 책임 마케팅까지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이슈를 정당한 배려, 위기관리 경영, 정책적인 헌신 등을 통해 어떻게 실제로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들까지 함께 다룸. 이번에 발표된 10대 원칙은 수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동권리와 삶의 기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곽 수립을 목적으로 함. 반기문 총장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아동들을 돕고 아동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데 헌신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65

높아지는 중국 기업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인식

중국 NGO단체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중국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됨. 중국 NGO단체들의 CSR 아젠다 채택과 CSR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함. 오염정보투명성지수(The Pollu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Index)에 따르면 500여 개의 기업들이 현재 NGO단체들과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지난 12개월 간 투명성지수는 평균 9% 상승하였고, 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1년 전과 비교하여 환경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조사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168

▌지속가능투자 관련 기관들 공동 보고서 발간 계획▐

4월 2일자 영국 지속가능투자 포럼(UK Sustainable Investment and Finance, UKSIF)은 올해 말 발간될 보고서에서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전략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본 계획에 따르면 Africa Sustainable Investment Forum Project, 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the European Sustainable Investment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2012년 말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 아프리카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투자 포럼이 공동으로 글로벌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함. 하지만 ESG 조사 비용이 종전의 SRI 회사들의 예산보다 훨씬 상회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기사전문 :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3491.html

▌미국 경영학과의 위기와 윤리교육 도입▐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대학 경영학 교육에 위기가 찾아왔으며 그 위기는 경영학과 수업이 금융과 회계 지식에 집중되면서 시작됐다고 보도함. 이에 지난 3월 미국과 유럽의 경영대학 및 관련 기관 20여 곳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경영학 커리큘럼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인문학 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은 다음 학기부터 심리학, 철학 교수들을 영입해 비즈니스 윤리학 과목을 가르치기로 하였고, 조지타운 대학교와 산타클라라 대학교 등도 윤리학 수업을 강화하기로 함. 덴버 대니얼스 대학교도 봄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윤리학,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강좌를 추가하기로 함

* 전문기사 :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4072004577323754019227394.html?KEYWORDS=ethics+management+washington

▌새로운 국제 환경기구 창설 가시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집중적으로 다룰 국제 환경기구 창설이 가시화 되고 있음.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에 따르면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브라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140여개국이 유엔환경계획을 새로운 환경기구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는 6월 리우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는 유엔환경계획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표성을 갖춘 유엔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함

* 기사전문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1

국내 윤리경영 동향

▌식약청-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청렴활동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와 지난 4월 30일 식약청 청사에서 '반부패 · 청렴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임. 식약청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반부패 청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과 교육지원, 식 · 의약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 등이 포함됨. 올해 하반기에는 청렴활동 협력의 한 일환으로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반부패 퀴즈대회'도 개최할 예정임

▌금융감독당국, 은행권의 사회공헌 차별화 활동 독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며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차별화를 독려함.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KB스타 드림봉사단'을 출범하여 청소년, 글로벌, 환경, 노인복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음. 우리금융그룹은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IBK 참! 좋은 무료 컨설팅 프로젝트', 'KDB산은금융그룹'은 드림뱅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을 핵심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각각 펼치고 있음. 이 밖에 기부형 공익상품 판매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되는 현상도 나타났음. 하나은행은 '바보나눔 적금'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는 0.5%, 만기 해약금 일부 기부자에게 0.3%의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하며, 메리츠화재는 수입보험료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지기관에 출연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보임

▌한화그룹, 사회적기업 18곳 지원▐

지난 13일, 한화그룹은 사회적기업 18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한화는 지정된 사회적기업에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와 브랜드 마케팅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으로 대상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 및 제품 개발, 마케팅, 기타 경영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임. 이번에 포함된 백두리싸이클링은 새터민들을 고용해 폐어망 · 폐로프 등을 수거 · 가공하여 재판매 하면서 해양폐기물 증가 및 소각처리에 따른 환경적 문제와 새터민들의 고용 및 자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삼성 인력개발원, 전문성보다 인성 · 윤리 초점▐

삼성 인력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의 초점을 '인성'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힘. 지난 5월 17일 삼성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계열사별 대리, 과장급 교육 내용은 부정부패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짐. 지난해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준법경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름.

삼성은 임직원들이 '준법윤리경영 임직원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음. △제반 법규와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경쟁사와 불법적인 협의를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금전, 금품, 향응 등 위법한 수수행위를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각 계열사별로 준법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임직원 교육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4일부로 공포▐

지난 5월 14일 부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 공포된 법률은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이번에 공포된 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기업에게 준비기간을 주기로 함. 앞서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 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현대차, 유럽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미래를 위한 기술' 런칭▐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26일, 벨기에 브뤼셀 광장 행사장에서 유럽 최대 경제교육 NGO인 'JA-YE 유럽'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차의 범유럽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인 '미래를 위한 기술'을 발표함. '미래를 위한 기술'은 현대차가 2014년까지 3년간 15개국의 400개 학교와 연인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9월부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 50개 학교에서 우선 시작될 예정. 이 프로그램은 유럽 각국의 직업학교 재학생들이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임.

참여 학생들은 산업별, 직군별로 기술교육을 1주일 2~3시간씩 1년 동안 받고 팀을 이뤄 직접 가상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모의 경영실습을 통해 실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됨. 또한, 유럽 전역의 현대차 법인 및 대리점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군을 소개하고 상담자로 나서기로 하여 유럽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산업과 현대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기관 최초 '윤리헌장' 선포▐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최근 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의료기관 최초로 '윤리헌장'을 선포했다고 밝힘. 이번에 발표한 윤리헌장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4부 경영 부문에서는 의료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경제활동,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을 명시하였음. 또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절대 비밀로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음. 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이번에 발표된 윤리헌장을 통해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원리와 지침, 판단규범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음

▌2012 은행산업 지속가능지수 발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는 지난 5월 8일 '2012 대한민국 은행산업 지속가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평가 결과, 신한은행이 평가대상 13개 은행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신한은행은 1000점 만점의 지속가능지수에서 649점을 맞았으며, TBL과 명성 부문에서 각각

378.39점, 270.97점을 획득하였음. 이번 평가 결과 경제 부문에서는 점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은행의 경제 부문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 하나, 대구, 부산 은행이 2~5위까지 랭크 됨

▌지속가능경영의 실질적 성과 나타내는 보고 잇따라▐

지속가능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높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음. 지난 5월 10일 내놓은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글로벌 기업의 지속성장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속가능경영 실천도 상위기업들의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비상위 기업은 평균 3.2% 상승했음. 국내 400개 상장기업을 조사한 서스틴베스트의 조사에서도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25개 기업의 주가수익률은 36.8%를 기록하였으나 최하등급에 속한 기업들은 -8%를 기록하였음. 삼성경제연구소는 과거에는 단기 성과에 주목하였던 글로벌 펀드의 주식투자 기준이 지속가능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문제로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며 지속가능경영 투자대비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외부와의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중소기업, 사회공헌 실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활동은 낮게 나타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참여 기업의 92%는 "중소기업이 이윤창출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 · 실천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49%로 나타났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은 연간 평균 15회, 5,6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중 23.1%는 "사회공헌을 경영이념 및 방침에 명문화"하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사내 동아리나 전담부서 등의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은 27.9%로 집계되었음. 사회공헌활동 미실시 기업들의 79%는 그 이유로 회사재정 등 경제적 여건의 부족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이마트, 장애우 채용규모 확대▐

이마트는 올해 장애인 별도채용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우 계산원 300명을 신규사원으로 채용

한다고 5월 1일 발표함. 이번에 선발하는 장애우 사원은 하루 5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주 4일 또는 5일 근무 중 선택할 수 있음. 이마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을 늘렸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입사하는 사원들의 조기 적응을 돕는 강의 프로그램을 점포별로 운영하고, 별도의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윤명규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이번에 채용하는 캐셔직 외에 향후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대형마트 내 직무를 다양하게 발굴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2012 공기업 지속가능지수 발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는 5월 22일 '2012 대한민국 공기업 지속가능지수'를 발표함. 국내의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 환경 · 사회 · 명성의 4개 부문에 걸쳐 성과를 조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00점 만점에 829.58점으로 2010년, 2011년에 이어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음. 한국전력공사가 816.08점으로 2위를 기록하여 800점대엔 두 회사만 포진했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00점 만점의 지속가능지수에서 829.58점을 받아 ERISS 지속가능지수 공기업 분야에서 3연패를 달성했음. 은행 · 증권 · 생명보험 · 손해보험 등 최근에 발표된 ERISS의 다른 분야 지속가능지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2012 대한민국 공기업 지속가능지수'도 국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와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ISO26000을 바탕으로 경제 · 환경 · 사회 등 3개 부문이 포함된 TBL지수에 명성지수를 합산해 산출한 것임

* 출처 : 인터넷 기사 및 뉴스 요약 정리

해외 윤리경영 동향

▌애플의 세금회피 전략▐

지난 4월 29일, 뉴욕타임즈(NYT)는 애플이 미국의 네바다 주 리노 지사와 해외 조세 회피지역에 자회사를 만들어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함. 애플은 법인세율이 제로인 네바다 주의 리노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림. 리노 지사 외에도 룩셈부르크나 영국의 버진군도와 같이 조세회피가 용이한 지역에 자회사를 두었는데, 애플은 이 덕분에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거둔 342억 달러의 순익 중에서 세금으로는 33억 달러를 납세함(이와 대조적으로 월마트는 지난해 244억의 순익을 거두고 세금은 59억 달러를 납세함). 애플의 주요 수입원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음악은 세계 어디서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애플은 이를 이용하여 순익의 70%를 해외에 할당시키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누림.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온라인 제품의 경우, 그것이 결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가 만들어 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사전문 : http://www.nytimes.com/2012/04/29/business/apples-tax-strategy-aims-at-low-tax-states-and-nations.html?_r=1&pagewanted=all

▌미국상공회의소, 인도 내 미국 기업들의 CSR 활동 소개▐

인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왕성한 CSR 활동이 미국상공회의소의 카탈로그를 통해 소개됨. 이번 CSR 활동 사례에는 Bank of America, Cargill, Microsoft, Walmart 등 약 60여 개 회사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음. 가장 혁신적인 노력이 기울여진 부분은 교육 분야로 나타났는데, 한 사례로 Bank of America의 "Million Hour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약 백만 시간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음. 인텔(Intel)은 150만 명에 이르는 인도 선생님들에게 기술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였다고 밝힘. 그 밖에도

의료, 사회 인프라, 수자원 보존, 재해 구호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CSR 활동들이 진행되었다고 함. Johnson & Johnson Medical India의 Annaswamy Vaidheesh는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며, 기업의 CSR 활동이 해당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한 가지 전략으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14

▌하이네켄, 아이티에 학교와 병원 설립 계획▐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맥주 양조 업체인 하이네켄(Heineken)이 지난 지진으로 충격을 받은 아이티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계획 중임. 이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에서의 국제적인 개발과 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확장 움직임으로 하이네켄은 아프리카에서 이미 에이즈 퇴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아이티에서 활용하고자 함. 이번 프로젝트는 그 동안 민간 부문에서 개발에 관한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한 UN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됨.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최근 글로벌 콤팩트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에서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음. 하이네켄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떠한 투자에서든지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만이 목표가 아님을 강조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13

▌EU-ETS, 2010년 대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2.4% 감소▐

EU는 EU-ETS(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ystem)에 속한 1만여 개의 발전 플랜트와 산업 시설에서 온실가스가 2010년 대비 2.4% 감소했다고 밝힘. EU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환경에 좋은 것은 맞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 탄소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탄소배출 거래 시스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TS의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을 수 있음. 게다가 ETS는 이미 탄소 배출권의 과다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corp.com/communications-reporting/sustainability-news-roundup—may-2012

▌미디어 황제 머독, 세계적 기업경영에 적합치 않다는 평가▐

세계적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영국 하원으로부터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음. 영국 하원의 문화 · 미디어 · 스포츠 위원회는 5월 1일 보고서에서 스코프의 회장 머독은 지난해 7월에 일어난 불법도청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지난해 7월 뉴스코프 소유의 일요신문 NoW가 수년 동안 유명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기록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해당 신문은 폐간 되었고 편집장이었던 레베카 브룩스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 윤리 감시 단체가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서한을 보내 머독이 소유하는 폭스 뉴스의 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제이 록펠러 회장 또한 영국의 언론윤리 조사위원회의 레버슨 판사에게 뉴스코프가 미국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문의를 담은 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해짐

* 기사전문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4022031
  -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20502022775&subctg1=&subctg2=

▌일본, 시니어의 사회공헌 새로운 사회·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단카이세대*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시니어의 사회공헌'이 새로운 사회 ·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함. 이 신문은 지난 15일 이들 단카이세대의 소비 성향과 삶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이라는 의외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고 전했음. 이 신문은 '시니어(연장자)+사회공헌'이 침체된 일본 소비시장을 이끌 새로운 열쇠라고 전망함. 니혼게이자이의 또 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60대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식이 가장강한 것으로 드러났었음. 일본 리서치 종합 연구소의 후지와라 연구원은 실제로 기업들도 '윤리적 소비'의 타켓으로 20,30대가 아닌 단카이세대로 삼고 있으며 시니어층이 젊은층보다 윤리적 소비 붐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 함

* 단카이세대(団塊世代, 團塊世代) :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를 가리킴(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기사전문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1601070932023001

▌미국 소비자들, 기업의 친환경 제품에 대해 의구심▐

미국의 PR회사인 Cone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기업이 소비자들을 속였을 경우 제품에 대하여 보이콧할 것이라고 대답함. 80%의 미국인들은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75%에 이르는 사람들은 구매 전에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미국 소비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불만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응답자의 71%는 제품의 용기나 라벨에 사용된 환경관련 용어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사전문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07

국내 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선도클럽' 구성하여 반부패 정책 '싱크탱크'호 활용▐

지난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과 우수시책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선도클럽'(CC Club)을 결성하고 창립식을 개최함. 한국공항공사, 관세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3곳을 창립멤버로 선정하였으며, 청렴선도클럽 참여기관들은 청렴포럼과 함께 각종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등 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사례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등 공공기관 및 국가청렴도 제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

창립식에 참석한 김영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청렴도 정체 등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반부패 · 청렴정책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렴 선도 클럽(CC Club)'과의 정책공조와 함께 성공사례를 청렴도가 낮은 기관들과 널리 공유한다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창립행사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달성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공공기관(기관 유형별 1위 기관)에게 기념패도 수여함.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결과로 기념패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해당기관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다른 기관들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임

▌한화그룹, 사회적 기업 18곳 지원▐

지난 13일, 한화그룹은 사회적 기업 18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한화는 지정된 사회적 기업에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사회적 기업의 조직문화와 브랜드 마케팅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제품개발, 홍보 · 마케팅, 판로 개척, 멘토링, 기타 경영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에 한화그룹에서 지원하게 된 백두리싸이클링은 경북 구미 어촌지역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 폐어망, 폐로프 등을 수거·가공해 재판매하고 있는 기업임. 해양폐기물 증가 및 소각처리에 따른 환경적 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자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임. 또 다른 지원 기업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나눔가게는 기부·수거를 통해 모은 의류 및 잡화를 리폼, 재사용, 판매하고 남은 수익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임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 브라질서 '사회적 책임' 강조▐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장은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에 참석해 '자본주의 4.0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주제로 강연을 함. 이 자리에서 환경사랑, 나눔사랑, 지역사랑, 가족사랑을 강조하는 홈플러스의 모델을 사례로 발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사회, 환경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핵심사업과 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 다자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함

▌SK그룹, UN과 손잡고 '전세계 사회적 기업 플랫폼' 만들 예정▐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 폐막총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자가발전적인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SK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인 '글로벌 액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함. 이는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 포털을 만들어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 등 국제기구의 자원과 전세계 사회적 기업가, 투자자 등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것임

SK가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와 주축을 이뤄 진행하게 되는 허브 구축은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단체 등 함께할 파트너를 추가로 확보하여, 오는 2014년 말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제공돼 사회적 자본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호남석유화학, 동반성장펀드 규모 870억원으로 확대▐

호남석화는 협력업체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87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지난 6월 18일 밝힘. 실제로 이달에만 SK그룹, 신세계그룹 계열의 이마트 등이 해당 펀드를 새로 결성하거나 규모를 늘린 바 있음

호남석유화학에 따르면 이 펀드는 호남석화에서 기업은행에 일정금액을 예탁하는 형태로 조성되며, 중소 협력사에 저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기금임. 호남석유화학은 지난 해부터 중소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옴. 협력업체는 이 펀드를 이용해 시중 금리보다 2~3% 낮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이 펀드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이번 펀드 규모 확대를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은 좀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호남석화 측은 기대하고 있다고 함

아울러 호남석화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생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한 '패밀리기업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해 협력사의 자금대출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성그룹, 카자흐스탄 오지에 전기 및 식수 공급▐

대성그룹의 대성에너지㈜는 카자흐스탄 오지마을 사리블락에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완공했다고 6월 22일 밝힘

대성에너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글로벌 CSR 프로그램의 카자흐스탄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0년 6월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사리블락 마을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배전선로를 설치해 각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지하 130m 관정을 개발해 태양광으로부터 얻은 전력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됨.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용해 건설한 관리동 일부는 전기실로 사용되고, 일부 시설은 마을 회관으로 쓰이게 됨. 사리블락 마을은 구소련 시절 병원과 학교가 있을 만큼 번성했지만 카자흐스탄 독립 후 전기와 식수 공급이 끊어지며 상당수 주민이 마을을 떠나 20가구, 70여명만이 남아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음

▌사노피아벤티스, 계열사 통합 CSR 브랜드 '희망씨앗' 발족▐

프랑스계 제약회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한국 내에 진출한 4개 계열사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통합하여 CSR브랜드인 '희망씨앗'을 발족함. 이를 기념해 사장단 및 경영진이 올해 첫 임직원 릴레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초록산타 커밍데이 (Green Santa Coming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힘

'희망씨앗'은 사노피의 4개 사업 부문(제약, 백신, 희귀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공모전과 투표를 통해 채택됐으며, 자발적인 직원참여에 기반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 CSR 브랜드임. '희망씨앗' 브랜드 발족을 기념해 지난 6월 16일 아름다운가게 초록산타점(강남구청역점)에서 진행된 '초록산타 커밍데이'에서는 300여 점의 물품 기증과 더불어 사노피 전 계열사의 사장단 및 경영진 13명이 판매 자원봉사자로 나섬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로보노 재능기부단' 발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6월 18일, 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를 위한 '프로보노 재능기부단'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힘.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자문, 봉사활동 형태)하게 됨. 중진공의 '프로보노 재능기부단'은 6월 12~13일 양일간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 약 13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경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실시함. 재능기부단은 앞으로 인덕대학, 신성대학, 제일이천고등학교 등 청년 예비사회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취업역량 강화'와 관련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진공의 약 30년간의 산업교육 강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경영, 기술, 품질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재능기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함

▌뚜레쥬르, 우수가맹점 대상 상생협력단 운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가맹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실천을 더욱 구체화 및 가속화하기 위해 우수가맹점 대상으로 '뚜레쥬르 상생협력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6월 14일 밝힘. 이에 따라 '뚜레쥬르 상생협력단' 1기로 선정된 30명의 가맹점주 및 본부 임원진과 함께 '우수가맹점 상생캠프'를 개최함. 상생캠프에서는 본사와의 소통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맹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매장 경영 교육 등이 포함됨

▌롯데마트, 녹색생활 실천 우수 사례 발표 기업으로 선정▐

롯데마트는 지난 6월 13일 에너지 절감 노력과 그린카드 도입 및 녹색제품 확대 운영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 활동을 인정 받아, 녹색생활 실천 우수 사례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힘

롯데마트는 2009년 평택점을 시작으로 총 230억원 가량을 투자해 현재 영등포점, 중계점 등 39개 점포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감축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2100톤 가량

으로, 소나무 75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함. 또한 매장 내 고발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건물 외벽 유리에 태양열을 차단하는 열차단 필름을 설치하는 등 매장 내외부 시설에도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갖춰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롯데마트는 최근 5년 간 점포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가량 줄이고, 총 6만1000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함

또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넥타이 풀기', '냉방온도 지키기', '계단 걷기', '냉방 중 출입문 닫기' 등 6가지 생활 수칙을 실천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에너지 절감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이외에도 2011년 12월, 유통업체에선 처음으로 구매 금액의 3%를 그린카드 포인트(에코머니)로 적립할 수 있는 '녹색 PB(Private Brand)상품'을 70개 가량 선보였고, 현재 품목 수를 대폭 확대해 300여 개의 녹색 PB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삼성전자, '동반성장 소통의 장' 개최▐

삼성전자는 효과적인 동반 성장을 위해 지난 6월 13일 '동반성장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힘. 이 자리에서 올해 대내외 경영환경 전망과 상생협력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협력사의 궁금증 해소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짐. 특히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들도 실질적인 동반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1, 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와 소통의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포스코, 성과공유제 기금 1600억 조성▐

지난 6월 11일 포스코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6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철강 관련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함. 특히 철강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에 우수한 중소기업에 '성과공유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함. 포스코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강건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소통, 창의 활성화를 위한 열린 협력 등 모범적인 동반성장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기금 제도' 역시 다른 대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45개 주요 대기업, 성과공유제 자율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 45개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자율 확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힘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배준동 SK텔레콤 사장, 김종식 LG전자 사장 등 45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함. 45개 대기업들은 협력사와 공동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다양한 공동혁신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협력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함. 이들 대기업들이 향후 1년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성과공유 추진과제 건수는 지난 2년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평균 268건보다 4배 늘어난 1073건이며,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협력사도 연평균 75개사에서 654개사로 8.7배 늘어날 전망임. 협약 체결에 따라 이들 45개사는 성과공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추진실적을 임직원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과제 제안제도 마련, 사전약정 체결, 준수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성과공유제 자율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임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통해 인증 받은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정부조달 및 연구개발(R&D) 과제지원 평가 시 우대,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함

KB금융 등 9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지난 6월 19일 서울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시상식을 가짐. 대상에는 KB금융이 선정됐으며 최우수기업에는 코스피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코스닥에서 다음이 각각 이름을 올림. 우수기업으로는 코스피 상장사 중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Oil이 선정되었으며 코스닥에서는 SFA, 포스코켐텍, 코오롱생명과학이 선정됨. CGS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 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환경 책임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올해 기업별로 지배구조(ESG) 등급을 조사한 결과 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92사에서 125사로 늘어남. 기업별로는 롯데가 지난해 2개사에서 7개사로 늘어났으며 SK, 삼성, 현대자동차, 두산 계열사의 기업들도 소폭 증가함

▌중소기업계, 문화예술 활용한 사회적 기부 이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예술단체(인)가 함께하는 기부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6월 29일까지 참여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했다고 밝힘.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진행해 왔던 현금, 현물, 자원봉사 등의 기부활동에 문화예술단체(인)들의 재능기부를 매칭, 연계한 이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색됨. 특히 연중 1회로 끝나던 단발성 기부행사가 아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하는 공연단체에는 공연을 위한 실비를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기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경우 50%, 개인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짐. 이외에 자원봉사를 하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확인증도 받을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원의 2011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양호 등급을 받아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힘.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기구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감사활동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감사조직과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이 평가대상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IT 및 기금 운용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시스템 감사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함. 또 RM(위험 관리)협의회 신설, 반부패 추진 기획단 운영, 부조리신고 무기명 완전 개방체제로 개편, 방만경영 및 경영지침 준수 여부 체크 리스트를 개발해 리스크관리 체제로 감사시스템도 개편함. 이 밖에도 최근 내외부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시행하는 등 감사시스템에 대한 공유체제도 강화함

* 출처 : 인터넷 기사 및 뉴스 요약 정리

해외 윤리경영 동향

▌월마트,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위기 봉착▐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멕시코법인의 뇌물 수수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수사를 받음.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월마트의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함. 월마트는 지난 2005년 멕시코에서 점포 확장을 위해 현지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파일을 통해 월마트가 FCPA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월마트 측은 이와 관련 법무부 및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짐

월마트는 뇌물 수수 법률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제프 기어하트 월마트 법률 고문은 이번에 밝혀진 뇌물 제공 사건은 6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월마트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대변함. 마이크 듀크 월마트 대표이사 또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지난 10년간 월마트는 멕시코 법인 '월마트 드 멕시코' 확장을 통해 세계 최대 유통업체 자리를 공고히 했으며, 월마트의 멕시코 시장점유율은 20%에 달하는 상태임. 멕시코의 월마트 매장은 현재 2,088개로 지난 2008년 이후 2배 늘어남.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월마트의 멕시코 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뉴욕주식시장에서 월마트의 주가가 소폭 하락한 상태임

* 기사출처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3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99&idxno=575841

▌기업들의 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인증 정책 실행▐

기업윤리연구소(IBE: the Institute of Business Ethic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원들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인증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함. 또한 FTSE100의 대다수

기업들은 직원들이 매년 또는 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인증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함

각 기업별로 누가 서명에 동참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 직원의 71%가 서명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2%의 관리자와 94%의 고위관리자도 서명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몇몇 기업들은 협력업체, 임시계약 직원들에게도 윤리강령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임직원들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조사 대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서명한 윤리강령 하에서 어떠한 징계절차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힘

* 기사 출처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39

▌유럽의 기업들, EIRis등급에서 미국 및 아시아 기업을 선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EIR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있어서 미국과 아시아의 기업들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지속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20%의 영국기업이 5개 등급 중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으며 상위권 기업의 12%가 영국 기업이었음. 상위권 중 고작 2%가 미국 기업이었으며, 아시아 기업은 1%뿐이었음. EIRis보고서의 저자이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마크 로버트슨(Mark Robertson)은 글로벌 관점과 지역 관점. 우수 기업으로는 독일의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인 푸마(Puma)를 비롯해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 등이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음

▌Barclays와 MSCI, ESG 투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 소개▐

영국의 은행인 Barclays와 MSCI가 공동으로 글로벌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표를 소개함. 투자관련 지수를 제공하는 NSCI와 는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위해 ESG 투자 전략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함. 이 지표는 ESG와 함께 지수와 연계된 투자 상품과 별도의 관리 계정, 구성 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기사 출처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48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240

▌이탈리아 하원, 부패 정치인 차기총선 출마 금지법 가결▐

범법자의 정계 진출을 차단하는 반부패 법률이 이탈리아 하원을 통과함. 반부패법은 마피아 등 조직범죄와 테러 같은 범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내년 3월 예정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탈리아 의회에서 세 차례나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되는 등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반부패법은 하원 표결에서 찬성 354표, 반대 25표, 기권 102표로 통과됐고, 앞으로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정치인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마피아 조직 관련 범죄에 연루돼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어 옴

* 기사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2773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베트남 녹색성장전략 수립▐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정부의 국가 녹색성장전략 수립 자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이번 워크숍은 베트남 녹색성장전략(VGGS) 수립을 주관하고 있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요청에 따라 연구소의 전문 연구위원들과 한국 내 녹색성장 전문가 및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자문을 제공함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가로는 처음으로 자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선도 국가로, 기획투자부 주도의 범정부적인 '녹색성장전략 수립 위원회'를 조직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해 옴. 앞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원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됨

* 자료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26

국내 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295개 공공기관 평가 계획 확정▐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반부패 인프라 구축이나 부패 유발 요인,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 등 부패방지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주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기관 등도 정부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받게 됨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2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계획을 발표함. 평가계획은 대상 기관이 모두 295개로 전년에 비해 87개 늘어남. 세부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대상에 포함시켰음. 또한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 31개 지방공기업과 서울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4개 지자체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평가지표도 대폭 개정하여 소규모 기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66개에서 44개로 대폭 축소하고 지자체 출연기관은 16개 핵심지표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기관의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성과를 비롯해 청렴도 실천 성공사례와 부패행위자의 처벌 강화 여부,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도 평가지표로 새로 추가함

한편,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해 각 기관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임. 평가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렴도 측정과 실태조사,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청렴컨설팅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함

▌국민권익위원회-KOICA, 콜롬비아에 한국 반부패정책 전파▐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콜롬비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함.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직감찰원, 국가

감사원, 국가검찰청 등 콜롬비아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함. 연수에 참가하는 콜롬비아 공무원들은 부패예방 정책과 사건처리에 대한 강의 및 토론, 감사원 · 관세청 등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반부패 정책에 대해 학습했으며, 콜롬비아 주요 부패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짐

권익위는 이번 콜롬비아 반부패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부패 역량강화 교육대상을 아프리카 · 중남미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지난 2006년에 인도네시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반부패 정책을 전수한 이래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전파하고 있음. 특히 '청렴도 측정'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현지에 도입돼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한층 강화▐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과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의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지난 7월 4일 자카르타에서 'CSR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양국 기업의 CSR 활동 강화를 공식 선언함. 이날 MOU 서명식에는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국제노동기구(ILO) 자카르타 사무소 피터 반 루이스 소장, 인도네시아 무역부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함

양해각서 서명식에 이어 한국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CSR포럼을 개최함.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CSR 포럼에서는 한국 학계, 국제기구, NGO, 컨설팅 기업의 CSR 전문가, 다국적 브랜드 바이어, 인도네시아 업계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CSR 기업전력과 우수 사례들을 소개함

▌LG전자, 예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LG전자는 지난 7월 6일~7일 제주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공유 및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김민석 LG전자 CSR 팀장과 이경실 사회연대은행 본부장,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함

워크숍에 앞서 지난 7월 5일에는 LG전자가 지원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인 ㈜금자동이와 에코시티서울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짐. LG전자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대표 등을 초대해 '녹색성장 사회적기업 월간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리경영 가이드북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임직원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함

윤리경영 가이드북에는 윤리경영 체계와 청렴의 필요성, 행동강령 및 위반사례, 내부공익신고 제도 등의 내용을 실어 임직원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손쉽게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특히 자기부패 진단,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자답, 청탁에 대한 대응방법 등도 소개되어 있어, 청렴에 대한 자가인식 및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이드북을 임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사내 인터넷망에 등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가이드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현대중공업, 대기오염의 주범 잡는 친환경 선박 첫 공급▐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선박용 배기가스 저감설비'를 해외 선주가 발주한 선박에 처음으로 공급하며 친환경 설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함.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시추전문회사인 로완사와 계약을 맺고, 오는 8월부터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드릴십 3척에 총 18기의 저감설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설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촉매를 이용해 질소와 물로 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존보다 95%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사용되는 촉매는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함. 2016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의 'TIER III(대기오염방지 3차 규제)'가 발효되면 선박용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설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여기에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선박용 배기가스 저감설비에 대한 선주사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

▌중소기업청과 생산성본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CSR 대안 제시▐

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청은 한국생산성본부와 '제11회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은 CSR 관련 전문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민간중심 자율협의체로 지난 2007년 말에 발족돼 중소기업 CSR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옴

포럼의 주제는 '중소기업 CSR,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정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CSR을 제시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CSR 전문가 그룹 50여 명과 중소

기업 100여 명이 참석, 주제발표, 연구발표, 사례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됨.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CSR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적극 검토될 예정임

아울러 중소기업청 CSR 홈페이지(www.csr.go.kr)를 통해 포럼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일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한국공항공사, 반부패 청렴 순회특강 실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7월 2일 본사 ·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 청렴 순회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힘. 이번 청렴순회특강에서는 그 동안 역점 추진한 공사의 반부패 청렴활동을 되돌아보는 한편, 지난 6월 선정된 청렴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공유함

특히 앞선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직원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청렴실천 당부사항 등도 전달했다고 함.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강에서는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을 전파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비리직원 무관용 원칙 등을 설명함

▌보령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보령시가 부정 · 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 공무원 원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부정 · 부패 뿌리 뽑기에 나섬. 보령시는 공직자 비리발생 시 징계양정 개별 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한도로 징계조치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사법판단 이전에 먼저 인사조치(직위해제)하기로 하는 등 기관장 의지가 포함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함

이번 종합대책에는 부패 공무원 소속 감독자 연대책임제(신분상 조치 및 인사조치), 사소한 관행적 비위 행위 엄중 문책, 부패공무원 제재 및 청렴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되어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사이버 청렴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음주운전 및 검 · 경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현장근무제는 계속 시행하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토록 함. 시는 이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공무원 원아웃제'를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서명 받고 7월 2일 청렴 결의문을 낭독해 청렴실천을 다짐함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 동아시아 지방정부 지원▐

한국환경공단은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와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ICLEI는 지난 1990년 UN과 세계자치단체연합(UCLG)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국제환경기구로, 세계본부(독일), 대륙본부(유럽 등 6개소), 국가사무소(한국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ICLEI의 주요 활동은 전 세계 환경 유관기구와의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수행, 지방정부 환경캠페인 실행 등임

공단과 ICLEI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ICLEI 회원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방정부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상호간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속가능개발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주요 협력범위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카본도시기후등록(cCCR)부문임.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정부와의 환경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전국 16개 광역, 230개 기초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2009년~2012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계 ICLEI 회원 지방정부와의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한편, 국내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과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출처 : 인터넷 기사 및 뉴스 요약 정리

제 6 호

해외 윤리경영 동향

▌올림픽 후원사 논란이 있었던 코카콜라·맥도날드, 친환경·사회적기업 이미지를 위해 노력▐

올림픽 후원사 가운데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는 고칼로리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기업이 건강을 상징하는 올림픽 후원사로 부적합하다는 비난을 없애고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928년부터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해 온 코카콜라는 '쓰레기 제로 올림픽'을 위해 100% 재활용 가능 용기를 쓸 예정이며, 제품의 22.5%를 식물성 용기에 담고, 런던에 코카콜라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함. 또한 14대의 바이오가스 트럭을 동원해 올림픽 기간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태양광을 이용한 자가발전시설과 자연채광을 활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한 친환경 창고도 운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영국에서 자선단체와 3년 후원계약을 맺고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 11만 명을 돕고 있음

맥도날드 역시 올림픽 기간에 운영하는 4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올림픽 후 철거해 건축자재의 75%를 재활용하며, 매장 안의 장비, 가구 등은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다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함. 올림픽 기간에 에너지 고효율 기기와 절수장치를 사용하고, 조리에 사용한 기름을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등 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농장 1만여 곳과 계약해 소고기와 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기로 함. 한편으로는 전 세계 어린이 200명을 런던으로 초청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게 하고 유명 선수들과 함께 운동하는 '챔피언스 오프 플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함

▌IBM,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5백억 원 절감▐

IBM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중등 교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이용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힘. 특히 IBM은 에너지 절약,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환경보호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둠.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약 5백억 원(4천백만 달러) 이상의 전기료(약 3만 4,0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를 절감함

또한 전세계 364개소 이상의 IBM 시설과 2천 3백 개의 에너지 절감 사업,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7.4%에 해당하는 양을 절감하여 연간 목표인 3.5%를 초과 달성함. 앞으로도 수십 년간의 환경보호 활동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계속하여 2012년 말까지 110만MWh의 에너지를 줄일 계획이라고 함

IBM은 세계 환경 센터(World Environment Center)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 분야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자원, 물, 인프라, 물류를 비롯한 주요한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보잉사, 코카콜라, 다우 케미컬, 존슨앤존슨, 월트디즈니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 위원회(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uncil)를 설립하기도 함

이러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을 통해 1990년에서 2011년까지 기업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58억Kwh의 전기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80만 톤 줄이고 4억4,2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함

▌GRI, G4 공개 초안에 대한 대중 코멘트 기간의 실시▐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및 단체들은 새롭게 공개된 GRI G4가이드의 초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현재 진행중인 GRI G4 개발과정의 일환으로 1차 대중 코멘트 기간을 가졌으며, 대중의 견해를 공유하고 G4의 구조와 컨텐츠에 대해 논의된 바를 대중에게 공개함. GRI G4의 개발은 적용 수준, 경계 범위, 지배구조, 공급망, 경영접근방식 공시에 관한 5대 분야에 집중되었음. 현재 진행 중인 2차 대중 코멘트 기간에는 새로운 GRI G4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초안의 텍스트 편집 제안과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피드백에 참여할 수 있음

* 출처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The-next-generation-of-GRI-Guidelines-comment-on-the-G4-Exposure-Draft.aspx?dm_i=4J5,V7AZ,64GYS0,2KM40,1

▌마이크로소프트사, 탄소 중립 선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자사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보여줌. 에너지 효율 대책을 통해 회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의 달성과 함께 신 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100개국 이상에 포진되어 있는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 중 하나는 "내부 탄소 요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각 비즈니스 그룹에게 부가하기 위해 마련함.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즈니스 그룹들은 예산에 대한 탄소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실험실, 오피스 빌딩 및 직원운영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됨

* 출처 : Ethical Corporation

▌보험산업계, UN의 ESG(경제, 사회, 지배구조)원칙 지지▐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보험사들이 보험산업계에서 책임있는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지하기로 함. 3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는 경제, 사회, 환경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한 원칙에 서명함. 그리고 보험산업계의 자산 및 위험관리 서비스의 세계적인 공급자들 또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을 승인하였음

지속가능성 원칙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물부족, 식량부족과 전염병을 포함한 수많은 위기상황을 포괄함.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보험들이 저소득 지역, 에이즈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고령화 인구를 포괄하는 보험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고 함. 서명한 기업들은 원칙에 따른 성과와 진행사항을 매년 공개해야 함.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환경계획의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UN Environment Programme - 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실시되어 6년간 개발해 온 글로벌 프로세스의 결과임

* 출처 : Ethical Performance

▌영국, 슈퍼마켓의 공급업체 착취를 끝낼 법률 제정▐

영국에서는 슈퍼마켓 체인들이 그들의 공급업체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됨. 정부는 농부, 소규모 생산자, 공급업체와 대형 슈퍼마켓 체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경쟁위원회 보고에 대응하여 식료품 규약 판단 조항(Groceries Code Adjudicator Bill)의 초안을 발표함. 이는 영국

슈퍼마켓 체인에 법적인 행동강령을 제공함. 영국의 자선단체인 ActionAid의 대표인 Meredith Alexander는 이러한 조항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겼을 경우 과중한 벌금형 등의 제도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 출처 : Ethical Performance

▌국제투명성기구, 부패방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기업 운영상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명성기구(TI)에서 준비한 '기업의 뇌물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반부패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됨. 이 프레임 워크는 독립적으로 기업운영을 검토하게 하는 기업 가이드의 표준이며, 부패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으로 제공됨.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프레임워크가 기업의 반부패 및 뇌물 수수방지 시스템을 강화화고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 Ethical Performance (http://www.ethicalcorp.com/business-strategy/sustainability-news-roundup-julyaugust-2012)

제 7 호

국내 윤리경영 동향

▌정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 규제는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고 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무 고용 인원의 50% 이상, 75% 미만을 채용한 경우 1인당 73만 7,000원, 75% 이상일 경우 59만원을 부담해야 함. 현재는 의무 고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59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인원 중 50%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기준은 완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1316137021239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적발▐

지난 5월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다 회생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회장인 대주주 김모씨에게 지난해 5억원의 연봉을 지급함. 김씨는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서도 5억원의 연봉을 받아 총 10억원을 챙김. 지난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18억원 적자였고,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은 261억원 적자였음. 김씨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지분 55%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면서도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고 비(非)등기 임원인 상태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임

이런 사례들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대주주 등에게 5억원대의 초고액 연봉을 지급해온 10곳의 저축은행과 대주주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있는 9곳의 저축은행을 적발하면서 드러남.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신라, 공평, 세람, 푸른, 신안, 모아, W저축은행 등 9곳은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있었음. 5곳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등기된 임원조차 아니었으며, 등기 임원인 경우에도 결재를 하지 않아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운영하면서도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경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6/2012080600348.html

▌패션가에도 뜨는 '착한 소비', 운동화·핸드백 구매가 이웃 위한 기부로 연결▐

패션가에는 스타일도 살리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착한 소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 제품을 구매하면 기부나 기증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소비가 가능한 것은 이익금을 나누는 착한 기업이 있기 때문임

운동화와 안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탐스(TOMS)'는 상품이 1개 팔릴 때마다 1개를 기부하는 일대일 기부를 실천하고 있음. '탐스'는 지난 8월 24일까지 서울 동교동 에이랜드 홍대점 5층에서 '원 포 원 스토어'를 열고, 한 켤레의 신발이 어떻게 한 아이에게 전달되어 건강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한 개의 안경을 통해 시력을 되찾는지를 보여줌

남성 패션 브랜드 '지오지아'도 최근 착한 브랜드 대열에 동참하였음. 전세계 유명인들의 아트 워크를 기증받아 상품을 제작해 판매수익의 일부를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국제 비영리조직인 WIT(Whatever It Takes)와 함께 패션 캔버스 백을 제작 판매하고 있음. 특히 이번 백 제작에는 영화배우 피어스브로스넌, 샤를리즈 테론, 디자이너 팔로마 피카소, 도나카란, 락 그룹 콜드플레이 등이 참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522259

▌새 유통시스템 'iCOOP 생협' 상주에 첫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라는 새로운 유통체제로 주목 받고 있는 '아이쿱(iCOOP)생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경북 상주에서 첫 선을 보임.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조합 사업체인 아이쿱생협은 경북지역 친환경 생산자 50여 명이 총 건립기금 23억원 중 7억원을 출자했으며 다양한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키로 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생활협동조합 연대센터로 주목받고 있음. 아이쿱생협 상주생산자회 박석원 회장은 "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윤리적 생산과 소비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센터의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상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힘. 1998년 설립된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16만여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 전국에 120개의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879&yy=2012

STX, 다문화 가정-임원 '1대 1 자매결연'

STX그룹이 나눔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 경영을 펼쳐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STX는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인 '모두'가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9월 국내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문을 연 뒤 경남 창원, 부산, 경북 구미, 대구, 충북 충주, 경기 안산 지역에 차례로 개관함.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인 '모두지기'들이 각 국의 동화들을 한글로 읽어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편하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네팔,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등 13개국의 아동도서 6만여 권이 7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STX 임원 145명은 서울 거주 다문화 가정과 1대 1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10만 원씩 연간 1억920만 원을 후원함

http://pann.news.nate.com/info/253915636

소아내분비학회, 1형 당뇨환아들과 함께 '상상력학교' 개최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8월 14일부터 이틀간 충남 논산에서 제1형 당뇨병 소아 ·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상력학교' 행사를 열었음. 소아 당뇨 환아들이 '상상력과 친해지는 미술동작 치료 교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상상력학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기업사회공헌(CSR) 활동인 '희망씨앗' 일환으로 마련됨. 1박 2일간 진행된 '상상력학교'는 제1형 당뇨병으로 꾸준한 자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소아 ·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생활방식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 시기의 소아 ·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됨. 상상력학교의 다양한 콘텐츠는 여성환경연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 서울문화재단-성북예술창작센터 등 다양한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됐으며, 의료, 인문, 영양, 아동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여함

http://health.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6352161&code=46111301

▌국민은행,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정도경영 선언▐

고객 대출 서류를 조작해 금융권에 논란을 일으킨 KB국민은행이 정도경영을 선언하며 신뢰 회복에 나섬. 국민은행은 1일 민병덕 국민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힘. 사회적 책임경영, 윤리·정도경영, 고객중심경영 등 세 분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윤리경영 실천, 불완전 업무처리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국민은행은 이날 경영진과 부점장 등 1260명 전원이 천안연수원에 모여 고객 중심의 정도경영 실천 서약식을 가짐. 이들은 선언문에서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인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480754&relatedcode=&sID=300

▌대림산업, '사이버신문고'로 협력사와 남다른 상생▐

지난 2000년 5월 임직원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공포한 대림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그해 바로 회사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문고'를 개설함. 최근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다른 기업의 프로그램과 달리 대림산업의 '사이버 신문고'는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 의견 수렴 창구로써 외부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협력업체는 물론 일반 고객과 민원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혹은 부조리한 청탁 요구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함.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 접수도 내부 관계자와 감사실에 다이렉트로 신고가 돼 제안과 건의사항 등을 홈페이지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음.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림산업과 계약을 맺은 협력사 직원 또는 내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만·고충사항 등을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며 "고충사항 등이 바로바로 시정하는 등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75650

▌한중일 대학생의 한 목소리, Y-CSR 컨퍼런스 개최▐

8월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는 "착한 기업과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미래 세대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논의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됨.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된

청춘 CSR 카페 행사에선 LG, SK텔레콤, 홈플러스, 에스케이홀딩스 등 개별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회책임 경영 사례를 발표하고 대학생 패널 토론이 이어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최초로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협회가 협력해, 세 나라 대학생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547145.html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CSR 공모전' 실시▐

중소기업청과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 CSR경영 활성화 및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 '2012 중소기업 CSR경영 실천사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개최를 8월 19일에 밝힘. 공모 주제는 CSR 실천사례와 CSR 정책 아이디어 등 두 분야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온실가스·에너지), 친환경 공급망 구축, 전략적 CSR 활동(사회공헌, 상생경영,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등임. 공모 대상은 대학(원)생 및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임.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는 중소기업 CSR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됨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344

해외 윤리경영 동향

▌애플, 녹색 인증제도로의 복귀결정▐

컴퓨터 거대 기업인 애플(Apple)사가 매출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후, 녹색 인증제도를 복귀하기로 결정함. 전자제품 환경평가(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EPEA)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도된 애플 보이콧 운동은 이러한 복귀 결정을 촉구하는 역할을 함. EPEA의 창단 멤버였지만, 애플은 최근 전문가들에 의해 해당 장치를 분해, 업그레이드 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방지, 어렵게 하기 위하여 제조 기술을 도입함. 바로 이 기술이 새로운 제품의 EPEA 최고 등급 달성을 막은 것임. 미국 녹색인증의 핵심은 전자제품이 분해되기 쉽고, 부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애플의 현재 신제품들의 구조와 조립방식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 출처 : Ethical Performance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310

▌지속 가능한 의류연합(SAC), 환경적 자기평가도구인 Higg Index개발▐

재료, 설비, 프로세스 그리고 제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방안이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에 의해 개발되어 리바이스(Levis)나 나이키(Nike)와 같은 대규모 브랜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에서 개발한 Higg Index 지수는 환경지속가능성의 프로세스 단계의 식별을 통해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평가 도구로 이는 의류나 신발 제조공정에서의 브랜드 공급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음. Higg Index를 사용하는 기업은 개선을 위한 행동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SAC 회원인 ▲아디다스(Adidas) ▲갭(GAP) ▲막스앤 스펜서(Marks & Spencer) ▲월마트(Wal-Mart) 등이 있음

* 출처 : http://www.ethicalcorp.com/environment/sustainability-news-roundup-august-2012

▌영국정부, 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고서 가이드라인 공개▐

영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영국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과를 명료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보고하여 환경과 재무적인 낭비를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이 가이드라인으로 기업들은 대기질, 탄소배출, 수자원, 폐기물, 생물다양성, 천연자원 등의 부문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해야 함

* 출처 :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317

▌IKEA, 태양광 발전기의 추가설치 결정▐

스웨덴 다국적 가구기업인 IKEA는 1개당 4.29mw을 생산하는 옥상 태양광 발전기를 메릴랜드(Maryland)와 뉴저지(New Jersey)의 유통 센터의 지붕에 설치하기로 결정함. 이를 계기로 미국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에서의 가장 큰 사용자 중 하나가 될 예정임. IKEA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17개의 시스템에서 추가되어 20개 이상의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추가 설치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미국 지역에 위치한 IKEA의 89%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용할 수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IKEA는 약 510개의 가구 에너지 사용량을 충당하는 38mw을 생산할 것임

* 출처 : ethical performance

▌영국 소매업체, 파트너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에 매장 숙박시설을 제공▐

영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인 존 루이스(John Lewis)백화점은 현재 지역 사회 및 자선과 예술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 매장에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직원들은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지역 사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소매 업체 정책의 일환임. 이를 위해 직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어 이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모든 존 루이스 백화점들은 매장과 지역 사회 단체 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연락 담당자를 두고 있음. 또한 존 루이스와 그 자매 소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지역 사회의 공헌을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매장 내 숙박시설을 제공하려 함

* 출처 : Ethical Performance
http://www.ethicalperformance.com/news/article.php?articleID=7312

▌독일 태양광 시장의 성장▐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독일 태양광 발전시장에서 건설붐이 일고 있음. 태양광 신축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상반기만큼은 실패했음을 의미함. 그러나 여전히 태양광 설비 신축은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방의 국가인프라를 관리하는 연방 네트워크 관리기구인 BNetz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300MW규모의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린에너지 붐은 차세대 발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설치와 유지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을 전력 사용자가 분담한다는 점에서 함정을 갖고 있음. 급속한 건설을 통해 전력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보조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임

*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430

▌GRI, G4 초안의 업데이트 항목에 대한 코멘트 실시▐

현재 GRI 전문가 워킹그룹은 G4 가이드라인을 위해 반부패, 온실가스 배출관련 항목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에 8월부터 90일간 대중에게 코멘트를 받을 예정임. 2012년 5월 9일에서 6월 7일까지 4개의 워킹그룹 후보(반부패, 생물다양성, 직업안전 및 보건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검토 및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그 중에서 GRI 적법절차에 따라 반부패와 온실가스 배출 항목에 대한 워킹그룹이 선발되었음. 워킹그룹에 대한 선발기준은 ▲전문지식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지역균형 ▲가용성이 포함되며, ▲기업 ▲시민단체 ▲금융시장 ▲노동중재기관 등을 대표해야 함. GRI 사무국은 G4 초안 업데이트 항목에 대한 코멘트 실시와 함께 새로운 워킹그룹 선발에 더욱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Suppolt-GRls-Global-Corterence-Becane-a-Conterence-Partner

▌GRI, 2013 글로벌 컨퍼런스의 파트너·스폰서 모집▐

GRI는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위해 미디어 파트너와 네트워크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전세계 리더들을 초청하여 혁신적인 솔루션 및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임. 미디어 파트너는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글로벌 컨퍼런스를 홍보하게 되며, 컨퍼런스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프레스 패스가 지급됨. 또한 네트워크 파트너는 웹사이트에 컨퍼런스의 배너를 표시하고, 현지어로 된 기사와 보도 자료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컨퍼런스

홍보를 맡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지속가능보고서와 표준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라면 모든 조직과 기업이 파트너 · 스폰서를 지원할 수 있음

* 출처 :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Support-GRIs-Global-Conference-Become-a-Conference-Partner-or-Sponsor.aspx?dm_i=4J5,WJ6K,64GYS0,2OZWD,1

국내 윤리경영 동향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식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표▐

지난 9월 4일 현대차는 캐나다에서의 첫 공식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현대하키헬퍼(Hyundai Hocky Helpers)'를 발표했음. '현대하키헬퍼'는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지만 고가인 장비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캐나다의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하키 장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임.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에서 유래란 캐나다 최고의 인기 스포츠임. 현대차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차 1대 판매 시 캐나다의 딜러들이 2달러를 적립하고 다른 모금 금액들을 모아 지원기금을 조성할 예정임. 조성된 모금액은 비영리 후원 단체인 키드스포츠(KidSport)를 통하여 대상 유소년들에게 전달 될 예정임

*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65967

▌2012년 저탄소 그린캠퍼스 5개 대학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 저탄소 그린캠퍼스'에 계명대, 상지대, 안양대, 인천대, 전주비전대 5개 대학을 선정하였음. '저탄소 그린캠퍼스'는 지난해 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10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올해에 신규 5개 대학이 추가됨. 이번에 선정된 상지대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9개 건물에 태양광이나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았음. 국내 대학 중에서 드물게 환경경영 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2002년에 획득하였음. 계명대는 교내 녹지공간을 매년 1%씩 늘려갈 계획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그린카드'를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에게 발급해 친환경 소비활동을 유도하기로 함.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기술 지원도 받게 될 예정임

*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20829/48946106/1

▌농어촌 재능기부 참여자 증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시민 재능기부자와 농어촌 마을을 연결하는 '스마일재능뱅크'에 최근 재능기부 신청자가 2만 명을 돌파함.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이란 경영, 마케팅, 지역개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재능 기부를 요청한 539개 마을 분석결과 실제 농어촌에서는 마을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능 기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마을에 부족한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재능기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될 예정임

*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426035&cp=nv

▌LG-삼성의 녹색경영 노력▐

LG그룹은 태양광 발전으로 '녹색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함. 지난 6월 LG전자는 최근 자사 공장 두 곳에 각각 3M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모듈을 공급했다고 밝혔음. 두 공장에 설치된 발전소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LG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971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59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힘. LG그룹은 이번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열사의 주요 공장에 태영광 발전소 건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함. 삼성그룹도 지난 6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스마트 그린경영'을 제시했음. 스마트(SMART)는 녹색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녹색경영을 지속가능 핵심전략으로 전개(Sustainability),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신시장 확보(Market), 환경보전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모색(Advantage), 친환경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Restructuring), 사회적 소통과 협력을 위한 투명성 강화(Transparency)를 의미함. 백재봉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은 "스마트 그린 전략은 기업이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지구환경 문제 해결과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연결하며,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20906/49184192/1

▌한국선급, 친환경선박 인증서 최초 발급▐

한국선급은 현대상선 'M/V Pacific Pride'호에 대해 처음으로 친환경선박 인증서를 발급했음. 친환경선박인증이란 선주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선박의 관리, 운항 및 국제해사기구 환경 관련 협약의 세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성과 선사의 관리역량을 평가하고 달성 정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임. 이번에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M/V Pacific Pride'호는 내년 1월 1일 국제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2단계 온실가스 규제를 만족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이라고 함. 한편 세계 여러 항만에서는 친환경선박에 대해 항비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함

*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8/h2012083114342721950.htm

▌SK텔레콤, '동반성장AMP' 과정 개설▐

9월 13일 SK텔레콤은 협력업체의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동반성장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새롭게 개설, 운영한다고 밝힘.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협력사의 핵심리더를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해당 회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음.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닌 기업의 핵심 리더가 갖춰야 할 경영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기획됨. 해당 프로그램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리더간 소통과 교류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0913021755&subctg1=&subctg2=&OutUrl=naver

▌사회적기업도 '양극화'▐

취약 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103곳의 총 매출액은 893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상위 1,2위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45.8%인 408억 원이었고,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647억 원으로 72.6%를 차지하였음.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 영업 외 이익이 영업이익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 없이는

자생이 힘든 것으로 분석됨. 취약계층 고용도 물류택배에서 91.3%, PC 소모품 80%, 보건은 73.3%로 높았으나 문화, 예술 20%, 보육 27.3%, 교육 35.3%에 그쳐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혜택도 취약계층보다 일반인이 두 배 가량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 =0006434129&cp=nv

▌'안전지킴이' 사회적 기업 육성▐

제주 올레길 탐방객 살해사건과 학교 주변 아동 성범죄의 급증으로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안전지킴이' 육성에 나섰다고 함. 고용노동부는 '나홀로 관광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과 아동 성범죄 등 학교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단체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1일에 밝혔음. 해병전우회와 시니어클럽이 1차대상이며, 선발된 노인층 안전지킴이들은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의 주요 거점별로 관광객과 동행하며 안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될 예정임. 학교 안전지킴이 제도도 지역 단체를 활용하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함

*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 =0006430065&cp=nv

해외 윤리경영 동향

SEC, 분쟁광물과 지불에 대한 법안 통과

지난 8월 24일,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은 기업이 분쟁지역에서 들여오는 광물과 해당 국가에 지급하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음. 이번 법안은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들이 자원을 채취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채취한 국가 정부에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 이번 규정으로 공개되는 자료는 자원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자원 채굴국가들의 소수 엘리트들이 아닌 지역사회로 유입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의 Lauren Compere는 이 규정의 도입이 기업 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증대시켜 결국 투자자들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기사전문 :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sfArticleId=3613

EPA, 스포츠 연합과 환경 문제 해결 위한 협약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그린 스포츠 연합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맺음.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국 환경청과 그린 스포츠 연합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수질 및 에너지 보전, 지속가능성 등을 달성하는 데 상호 협조하는 것이라고 함. 또한 미국 환경청은 '에너지스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같은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툴을 공유하여 건물주들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나 물 소비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미국 환경청은 스포츠 기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 스포츠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보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함

* 기사전문 :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0/F73305102CDE89EC85257A71004C6D46

▌셰일가스 등장, 국가 간 분쟁 감소 예상▐

최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발간한 '비전통가스 개발 동향'이란 보고서는 에너지 자원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을 부추기고, 분쟁을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함. 그러나 셰일가스의 등장은 세계 에너지공급 안보를 안정화시켜 국가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그 동안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했던 국가들은 이를 무기로 주변국가나 갈등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해왔으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렸음. 예를 들어, 수송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되던 석유는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천연가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수송 연료를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셰일가스의 개발로 중동에 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고 따라서 중동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악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함

* 출처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4

▌물 관리 프로젝트 플랫폼 개발▐

지난 8월 29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수자원 관리 책무(Water Mandate Initiative)"는 특정 유역의 중대한 수자원 프로젝트에 기업, 정부, NGO,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세계 첫 온라인 플랫폼인 글로벌 워터 액션 허브를 발족함. 수자원 문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사업체들, 특히 특정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수자원 관련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 필요함. 워터 액션 허브는 기업 및 기관들이 어느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유역과 수자원 관련 계획에서 활동적인지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고 함. 워터 액션 허브는 국제 비즈니스 리더즈 포럼, 딜로이트, GIZ(독일국제협력공사) 대표하는 독일 경제협력 개발 연맹국과 퍼시픽인스티튜트의 CEO수자원 관리 책무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음

* 기사전문 : http://www.unglobalcompact.org/news/257-08-29-2012
* 참고 : http://unglobalcompact.kr/52.htm?ptype=view&idx=1712&page=1&code=a62

▌말레이시아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발표▐

유니세프, 유엔 글로벌콤팩트, 세이브더칠드런은 말레이시아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비즈니스 원칙의 밑그림을 그렸음. 말레이시아에서 CSR 이슈는 그 동안 눈에 띄게 중요해졌으며 민간 기업

들과,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CSR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CSR 전략을 개발하였지만 아동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음. 대부분의 지속경영보고서도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함. 하지만 말레이시아에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이 95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미래 고객임. 말레이시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원칙은 작성되었으며, 기업들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받아들이고, 위험상황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며 제정된 원칙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음.

* 기사전문 : http://news.asiaone.com/A1Business/General%2BNews/Story/A1Story20120916-371767/2.html

▌인도 주조 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중소기업들은 인도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그 중 주조 기업은 5,500여 개에 달하고 이들은 47개 도시에 모여있는데, 이들 중 90%는 소규모 사업체라고 함. 주조업은 에너지 소비, 환경 및 직업 보건, 안전 등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중요함. 인도 MSME 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개발 확대 사업은 해결해야 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적 비즈니스 사례의 적용에 대해 소개함. 이번 프로젝트는 MSME 클러스터 재단이 진행하고, 아시아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EU프로그램인 Switch Asia에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조업 분야의 500여 개 영세 및 소기업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GRI는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 내 주조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150개 영세 및 소 기업의 훈련과 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로 함

* 기사전문 : https//www.globolreportr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Sustainable-development-in-Indias-foundry-sector.aspx

▌APEC 회원국, 녹색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합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은 지난 9월 6일 54개 녹색기술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2015년부터 5% 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함. 이번 합의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수질처리장비, 환경측정 기기 등이 포함되었음. 미국 무역대표로 나선

Demetrios Marantis는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 없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 각 국은 합의하였으며 이번 성과는 무역의 자유화와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매우 중요한 성취라고 밝혔음

* 기사전문 :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07/apec-usa-trade-idUSL6E8K700920120907

EU에서 백열등 완전히 사라져

100년이 넘도록 대표적 조명기구로 애용되었던 백열등이 유럽연합(EU)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함. 9월 1일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는 백열등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음. 앞서 EU 집행위는 회원국에서 2009년 9월부터 백열등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에너지 절감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100W짜리 백열등부터 25W짜리까지 범위를 확대해 올 9월부터 완전히 퇴출한 것임. 집행위는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광등이나 할로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면서 2020년까지 39TWh를 절감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것으로 기대함. 한편 백열등 퇴출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으며, 호주는 지난해부터 백열등 사용을 전면금지하였고 미국은 2014년까지 백열등 생산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

*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20902021780&subctg1=&subctg2=

국내 윤리경영 동향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이 실적도 좋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실적도 좋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함. 지난 10월 4일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제 1회 CSR 국제포럼에서 제프리 홀렌더 파트너스 최고경영자는 CSR의 중요성을 알고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회사들의 주식 수익율을 보니 지난 7년간 MCSI 세계지수보다 평균 16% 앞섰다고 소개했음. CSR 항목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직원 만족도도 성과로 연결되었는데, '일하고 싶은 100대 글로벌 기업'에 선정된 회사들의 투자수익률은 S&P 500지수보다 2~3배 웃돌기도 한다고 함. 그에 따르면 CSR을 잘하는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투명성) 등의 가치에 관심을 두며 소비자와 직원들의 만족감도 높고 대외적으로 회사 평판도 좋다고 함. 포천지에 따르면 기업의 평판 등 '보이지 않는 자산'이 회사 가치의 75%를 차지하는데 우수한 CSR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함

*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42866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와 상생경영 강화 나서▐

아시아나항공이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고 함.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구매 협력업체 관계자 140여명을 초청해 '2012 협력업체 상생간담회'를 가졌음. 이날 간담회에서 윤영두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늘 힘써주는 협력업체에 전 직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이며 그 경쟁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해 나가자"고 밝혔음. 이날 아시아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상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협력업체의 만족도 향상 및 구매 프로세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함

* 출처 : http://news.sportsseoul.com/read/economy/1094130.htm

▌해외진출 기업 사회공헌 정부 차원서 적극지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회 CSR 국제포럼' 개회사에서 "일부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철수, 환경오염,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등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저해하기도 한다"며 "CSR은 단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으로 매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함. 이어 CSR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면서 국제표준화기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규정한 일종의 국제적 책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CSR 활동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0401072924104002O

▌소셜+기부로 연 2000% 성장한 콩스토어▐

해피빈 콩스토어 운영대행사인 이재현 에이코어 대표는 '소셜'한 방식으로 쇼핑과 기부를 접목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10월 재단법인 해피빈과 함께 콩스토어를 런칭하였는데, 월 매출이 현재 10억 원 정도로, 1년 새 2000%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이 대표는 일반인은 기부가 어렵고 돈이 많아야 한다는 등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기부에 쇼핑을 접목시켰으며 아직까지 온, 오프라인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 주요 카페 및 커뮤니티들과 '수익'이 아닌 '기부'로 제휴하여 입소문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고 함. 이 대표는 다른 쇼핑몰의 가격 경쟁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공익 쇼핑을 틀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밝혔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들을 설득해 기부를 하도록 한 뒤, 소비자들은 파격적 가격에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여러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0401072924104002O

▌오비맥주 사회공헌 활동 국제회의에서 주목▐

오비맥주가 국제회의에서 자사의 '건전음주 캠페인'과 '친환경 녹색경영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고 함. 오비맥주는 지난 12일 브라질 페트로폴리스에서 개최된 세계맥주제조업연합회(WBA) 연례회의에서 자사의 사회공헌활동 실행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수능시험일을 전후로 조기음주의 폐해를 경고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가두캠페인'과 주류 판매 소매점을 대상으로 주류 구매 시 신분증 확인을 습관화하자는 'Show ID'

캠페인이 회원국의 맥주업계도 협회차원에서 추진해 볼만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함

* 출처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70062

▌사회복지공동모금 기부액 가장 많은 대기업은 KT▐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기업은 KT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함. 2010~2011년 연속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기부순위가 12위에 머물렀다고 함.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과 부산은행이 가장 많은 기부를 했고, 증권업계에선 대우증권과 동양증권의 기부가 많았다고 함. KT 다음으로 기부를 많이 한 기업은 2위 한국가스공사, 3위 SBS 순이었음.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그룹의 STX팬오션, STX에너지, STX복지재단, STX전력과 웅진그룹의 웅진씽크빅도 기부액 상위 100위권안에 들었으며 영업정지를 당한 대부업체 산와머니도 2억 4212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음

*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86776u

▌금융공기업 14곳 중 11곳 내부출신 CEO 0명, 모피아 출신이 53명▐

금융 공공기관과 특수은행 14곳 가운데 11곳은 지금껏 내부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모피아'로 불리는 구 재무부 출신 경제 관료들이 퇴직 후 CEO직을 싹쓸이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과 특수은행의 역대 CEO의 절반이 모피아 출신이었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업데이터, 코스콤, 거래소, 예탁결제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및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4곳의 역대 CEO 196명 중 순수 내부 출신은 6명(3%)에 불과했다고 함. 관행처럼 돼 버린 모피아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명무실한 사장추천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사추위가 경제 관료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기준대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금융위가 임명 또는 제청하는 형태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임

*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0/h2012101516001721500.htm

▌혁신형 제약기업 15곳 인증 취소 위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15개 기업이 리베이트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위기에 놓였음.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은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제약, CJ제일제당,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오츠카 등 15개 기업이 있음. 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하는데, 제약사의 리베이트 여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함.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후 발생된 리베이트 처분의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503369&cp=nv

해외 윤리경영 동향

▌美 친환경 부양 효과 놓고 '분분'▐

2009년 미국에서 실시된 친환경 부양으로 약 2만 7726명의 개인이 에너지와 환경 분야 부양 지출 혜택을 받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지만 CNN머니는 이같은 친환경 부양이 실제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함. 브루킹스연구소는 연초에 친환경 부양 지출 규모를 510억달러로 추산했으며 2009~2014년 사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연료전지 등과 같은 친환경 산업에 1500억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함. 이 연구소는 친환경 부양이 에너지 분야 혁신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다이애나 퍼츠고트-로스 맨해튼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실절적으로는 부양이 되지 못하는 셈"이라고 언급함. 특히 미국 정부가 지원했다 파산한 태양광패널업체 솔린드라 사례도 잘못된 친환경 부양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함

* 참고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1&newsid =02699446599689640&DCD=A00303&OutLnkChk=Y

▌美 도시, 지속가능 디자인으로 새포장▐

미국 환경청은 켄터키, 아이오와, 루이지애이나, 몬테나, 인디아 주의 도시 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최근 밝혔다고 함. 미국 환경청의 '그린 아메리카 캐피탈(GAC, Greening America's Capitals) 프로그램은 주도들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개선된 주거 및 수송을 지원하며 인프라와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함. 예를 들어, 아이오와 주의 주도인 디모인은 6번가에 조성될 거리풍경계획에 녹색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지원받을 예정이고 루이지애나 주의 주도인 배턴루지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와 도심지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계획에 녹색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지원받을 예정임. 그린 아메리카 캐피탈은 미국 환경청과 도시주택개발부, 수송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에 비즈니스를 유인하여 커뮤니티가 더욱 좋은 주거 및 수송 환경에서 살고 투자를 높이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함

* 참고 :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148&r=view&uid=240618

▌글로벌 유통업체들 태양열 발전 설비▐

미국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와 Vote Solar Initiative(지구 온난화 대응과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이 시설물에 태양열 발전 설치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앞서나가고 있다고 함. 현재 월마트의 경우 65,000k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였고 코스트코는 38,900kW 규모의 설비를 갖춘 반면 영국의 유통업체인 세인스버리는 16,000kW 규모에 그쳤음. 한편 태양열 발전 설비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설치한 업체로는 스웨덴의 가구 회사인 이케아로 나타났으며 이케아는 전체 매장의 80%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 참고 : http://www.ethicalcorp.com/stakeholder-engagement/sustainability-news-roundup-october-2012

▌윤리경영 스타벅스, 영국서 세금 회비 관련 청문회▐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지난 3년동안 12억 파운드(약 2조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함. 1998년 영국에 처음 진출해 현재 약 75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는 그동안 영국에서 약 30억 파운드(약 5조3천억 원)의 매출실적을 냈지만 세금은 매출액의 1%도 안되는 800만 파운드(약 142억원)에 불과했음. 게다가 2009년 부터는 점포 증가로 매출도 급증했으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함. 이에 마거릿 호지 상원 공공회계위원장은 영국 관세청에 스타벅스 세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내달 청문회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음.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주주나 투자자들에게는 영국에서 큰 이익이 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영국 세무 당국에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함. 로이터 통신은 스타벅스가 다른 유럽 국가의 계열사 매출을 높게 잡는 식으로 영국 매출을 줄인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에 대해 스타벅스 영국 법인의

크리스 엥스코브 사장은 지난 3년간 영국 내 종업원 8500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포함해 각종 세금과 복지 분담금 1억 6000만 파운드를 부담해왔다고 해명했다고 함

* 기사원문 : http://www.reuters.com/article/2012/10/15/us-britain-starbucks-taxidUSBRE89E0EX20121015
* 참고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3059

▌인도 대기업들 부패방지 조치 잇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인도지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대기업들이 뿌리깊은 사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고 함. 보고서에서는 인도 최대 가스업체인 GAIL 등 9개 대기업의 사례가 포함되었음. 이에 따르면 GAIL은 요금 고지서 발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했고 인도의 국영 갈탄채굴 및 발전업체인 '네이벨리 리그나이트'는 전자구매 제도를 도입하였음. 타타그룹 계열인 철강업체 타타스틸은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선물을 받거나 기부를 했을 경우나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등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음. 또 다른 타타그룹 계열 화학업체인 타타케미컬은 직원이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사내비리에 대한 내부자 고발제도를 도입하였음. UNGC 인도지부의 A,K. 발리안 행정위원장은 인도상공회의소와 인도산업연합회도 부패관행 고리를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함

* 참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873082

▌BASD, Rio+20 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기업 차원의 실천 촉구▐

지난 10월 4일, BASD(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2는 'Rio+20에서의 지속 가능한 길: 실무적 관점'을 발간하였다고 함. 주요 사업 및 산업군에서 Rio+20 UN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에 제시한 최종 사항들은 2050년까지 세계 90억명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혁신과 투자의 원동력으로서의 비즈니스의 역할을 중점으로 한 전략적 비전을 권고하였음. BSAD의 의장인 Kris Copalakrishnan은 "Rio+20은 민간 부문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주요 제공자로 조명하였고, 이 회의에서 녹색 경제와, 민간부문 각계각층의 참여와, 기업과 국가 양측의 지속 가능성 보고를 촉진시킬 필요를 인식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전진해 나감에 따라, 국가들은 Rio+20 회의로부터 여세를 얻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지구적 비즈니스

공동체의 잠재력에 대한 현명한 규제 및 반부패·청렴 정책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음. BASD백서는 기업과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협력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주요 영역 혁신, 지도, 투자에 대해 조언하였다고 함.

(* BASD 2012는 RIO+20회의에 기업 측의 최종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진보적인 비즈니스기관들의 임시조직임)

* 참고 : http://unglobalcompact.kr/52.htm?ptype=view&idx=1732&page=1&code=a62#p

▌애플 하청업체 팍스콘, 미성년 노동자 고용 물의▐

지난 16일, 애플의 하청업체인 팍스콘이 미성년자를 대거 고용해 물의를 빚었다고 중국 국영 CCTV 등의 중국언론이 보도하였음.팍스콘의 중국 산둥성 옌타이 공장은 지난달부터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실업고 학생 수천 명을 생산라인에 배치하였음. 실습생 중 16세 미만도 50~60명에 이른다고 함. 이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 배정된 것은 물론 야근에도 투입되었음. 팍스콘은 앞서 2010년 방학 기간 광둥성 선전 팍스콘 공장에서 약 10만 명의 미성년 '실습생'들이 근무시켰으며,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팍스콘의 미성년 학생 근로자의 비율이 36.2%를 점유하였다고 함. 한편, 중국에서는 2002년 발표된 국무원 '아동노동금지규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 참고 : http://news1.kr/articles/854450

▌마이크로소프트 공급업체에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교육▐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프리카의 하드웨어 공급업체들에게 분쟁 광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함.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업업자들이 어떻게 각 재료에 들어간 주석, 탄탈륨, 텅스텐 들이 분쟁 광물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함. 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광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콩고 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의 대호수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였음. 브라이언 토비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있는 강력한 공급망 관리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참고 : http://www.supplymanagement.com/news/2012/microsoft-educates-suppliers-on-conflict-minerals/

국내 윤리경영 동향

▌포스코, 불필요한 관행을 버리고 '윤리' 강화▐

지난 7월 포스코에 따르면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하객 및 화환 수 제한 등 호화 결혼식을 막기 위한 윤리 규범을 만들었다고 함. 또한, 업무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버리기 운동'을 실시해 직원 업무 몰입도 제고에 나섰음. 포스코는 결혼식 실천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하객의 규모는 신랑 및 신부 측 각각 100명 이하, 화환은 양측 각각 3개씩 총 6개 이하, 예식장은 사내시설이나 공공기관 혹은 종교시설 등 이용, 축의금 수수 시는 포스코 윤리규범 관련 규정 준수 등을 포함하였다고 함. 이는 임원에게는 준수사항이며 직원은 권장사항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함. 이와 함께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에게 감사메시지를 전하는 '감사의 마음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추석, 설날 등 명절에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는 등 윤리적인 명절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고 함. 앞서 포스코는 2003년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업 최초로 선물반송센터를 개설하였고 매년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마다 운영한 선물반송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총 1천193건의 물품을 접수해 처리하였다고 함

* 출처 :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76776

▌국민권익위,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개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단체와 기업의 윤리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해 발간하였음. 본 책자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최근의 국제적 윤리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경영에 도입,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음. 이번에 개발한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ISO26000, GRI가이드라인 등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였고, 4개 산업(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모델개발에는 약 6개월여 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했으며,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감수를 맡았음

*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0486&call_from=naver_news

▌포스코, MRO 자회사 사회적 기업 전환 검토▐

지난 10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엔투비는 2000년 포스코와 KT, 한진, KCC, 현대 등 5개 그룹이 설립한 MRO 업체인데 2010년 KT와 현대가 철수하면서 포스코가 최대주주가 되었음. 지난해 대기업들의 MRO 사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삼성그룹이 이 분야에서 철수하고 SK그룹은 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바 있음. 당시 포스코는 3,200여개 중소기업들이 거래처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MRO 사업을 유지하는 대신 동반성장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3110133061216

▌한국MSD, '한국 사회공헌 리더'로 선정▐

한국MSD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2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이노베이션리더십 부문 '한국의 사회공헌(CSR) 리더'로 선정됐다고 밝혔음. 한국MSD는 의료진 대상 무료 의학정보 사이트 'MD 패컬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브인액션'을 통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 활동,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보건복지부 R&D 투자 업무 협약을 통한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였다고 함. 현동욱 한국MSD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직원 모두가 사회공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책임 활동에 힘써 가장 존경받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음

*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03

▌반기문 총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업이 나서달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서울 총회에서 환경 문제에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음. WBCSD는 1992년에 창설된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연례 재계 회의로 60여 개국 200여 개 글로벌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개막식에는 반 총장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허동수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및 GS칼텍스 회장, 후지오 조 도요타 회장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음. 반 총장은 WBCSD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모범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야말로 아이디어와 비전으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번 총회 결과물은 오는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8)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논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12294

▌기업인 40.1%, "한국 사회 부패했다"▐

국내 기업인의 40.1%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음. 반면 외국기업인의 경우에는 13.6%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 12.4%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해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우리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기업과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 비교 분석 결과임.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기업인의 13.3%, 외국기업인의 5.2%가 직간접으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음.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제공 경험 유무에는 국내기업인 1.6%, 외국기업인 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기업인은 5.1% 감소하고, 외국기업인은 0.6% 증가한 수치임.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국내 · 외국 기업인 모두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국내 40.3%, 외국 41.6%), 다음으로 국내기업인은 개인윤리의식 부족(21.7%), 고비용 정치구조(21.6%)를, 외국기업인은 불합리한 법 · 제도(16.4%), 개인윤리의식 부족(15.2%)순으로 답했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사회의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기업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출처 :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21022163903080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어 임직원 윤리적 책임 및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힘. 그동안 중진공은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직무윤리와 청렴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지속가능경영 인식이 확대되면서 윤리경영 범위를 지속가능경영 범주로 확대해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함.중진공은 각 부서 윤리 리더들을 통해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임직원 기본윤리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가, 지역사회 등 각각 이해관계자 윤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함. 사회공헌과 환경보전,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등을 강령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음

*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2913553997041&outlink=1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각종 연구기관에 '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천여 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630개) 대비 약 690%가 많은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되었던 IRB 설치 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 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출처 :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04831_2906.html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 '사회적 책임' 비상▐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탈피, 복지와 분배를 강화함에 따라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함.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사회적 책임이행은 현지기업 및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젠 관시(關係 · 인맥)로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인 CSR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2011년도 기업들의 CSR활동을 평가한 결과, 중국 내 국내기업 CSR 지수는 평균 8.4점으로 중국 국유기업(31.7점), 외자기업(12.5점)을 크게 밑돌았음. 최근 대한상의가 중국 내 국내 기업 1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CSR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3.4%였고 '중국어 · 영어 등의 간행물을 발간한다'는 기업은 고작 18.3%에 그쳤음. 지난 7월 주칭다오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미나'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장언 연구원은 "한국 기업 가운데 아직 전문적인 CSR보고서를 자체 발간하는 곳이 없다"며 "자선과 공익사업 외 다양한 CSR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2021035721540.htm

▌효성,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효성은 12일 본사에서 사회적기업 9개사와 경영컨설팅 지원 협약식을 갖고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이날 협약식에서 효성 조현택 사장은 "오늘 협약에 참여한 여러 사회적기업들과 같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효성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해 나가겠다"고 함.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개 사는 공부의 신(자기주도학습법 전파), 딜라이트(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청기 판매), 시지온(온라인 소통 활성화, 악성 댓글 감소 기술 구현), 에코팜므(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 오방놀이터(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커뮤니케이션 우디(마케팅과 공익사업을 결합), 터치포굿(재활용 소재를 패션으로 승화), 트리플래닛(나무심기 게임을 실제 나무심기로 연결), 폴랑폴랑(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등이 포함되었음. 효성은 이번 경영컨설팅 제공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경영 솔루션 매뉴얼'도 제작, 배포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적기업들에게 '경영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출처 :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7086

▌카드는 '공공재', 카드사 사회적 책임 커져▐

카드사들의 공익적인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신용카드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이용액은 271조 1558억원으로 민간최종 소비지출(335조 6636억원) 대비 65.3%에 달했음. 2009년 말 52.1%, 2010년 말 56.8%, 지난해 말 62%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이젠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음. 지난 6월 말 기준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6.02%로 지난 3월 말(33.96%)보다 2.06%포인트 상승하였음. 지난 2008년에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껌 한 통조차 카드로 결제할 정도로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된 것이라고 함. 이에 따라 카드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는 '모든 소비자들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함. 시장논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개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카드사들 스스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출처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8536

해외 윤리경영 동향

UNPRI 서명 기관 1,100여 개 돌파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한 기관이 1,100여 개가 넘었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총자산의 규모는 3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함.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가능한 투자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인 UNPRI가 최근 새롭게 작성한 참여 기관들의 명단을 보면, 리스트에서 제외된 기관들도 있었지만 지난 14개월간 미국계 기관 41개가 서명함으로써 미국계 기관은 총 156개에 달하게 되었다고 함.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자회사인 GSAM(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도 이번에 새롭게 UNPRI에 참여하였다고 함. 한편 이번 리스트에서 제외된 숫자는 61개였고, 새롭게 서명된 기관, 기업, 투자자 등이 254개라고 함

* 출처 :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3682.html
* 참고 : 유엔의 사회책임투자원칙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우리는 PRI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상황을 외부에 보고한다.

중국 대기업들, 사회적 책임 외면

중국의 300대 기업 가운데 62%는 사회적 책임(CSR)에 방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유, 민영, 외자 등 부문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기업사회책임남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신경보 등이 22일 전함.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185개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15개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지수(100점 만점)가 '0'인 것으로 평가됐음. 중국 100대 기업의 평균 발전지수는 지난해 19.7에서 23.1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수 20 이하는 '방관', 20~40은 '초보단계'로 분류됨. 발전지수 상위 20개 기업 명단에는 중앙 국유기업이 16개, 민영기업 2개, 외자기업과 기타 국유기업 각 1개 등이 이름을 올렸음. 외자기업 중에는 일본계와 한국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전력, 은행, 통신 등 업종이 상위권을 형성한 반면 부동산, 자동차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음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947982

▌록히드마틴, 쿠바식 부회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고▐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 부회장이자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크리스토퍼 쿠바식이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해 9일(현지시간) 해고됐다고 함. 사내 윤리위원회는 내년 1월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할 예정인 쿠바식 부회장이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들어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함. 쿠바식은 "언제나 지켜왔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서도 자신의 사임이 록히드마틴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로버트 스티븐슨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 크리스의 행동이 매우 실망스럽고 슬프지만 이에 대한 재빠른 대응을 모든 직원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록히드마틴사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음. 록히드마틴사 이사회는 이후 마릴린 휴슨 전자시스템부문 부사장을 사장 겸 COO에 선임하고 내년 1월 CEO직도 넘기기로 함

* 출처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4129

▌중국 사정 바람 예고, 고위층 부패 '정조준'▐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고위층의 부정부패 척결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정 당국인 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대규모 사정을 예고하였다고 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는 지난 11월 19일 베이징에서 제18차 당 대회 결과 업무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고위층 부정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음. 업무보고회에는 차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유력한 '왕치산' 정치국 위원도 참석하였음. 중앙기율검사위는 우선 "고위 간부의 부패 사건을 발생하기도 쉽고 빈도도 잦을 뿐더러 금액이 크고 연루자도 많다"며 "한마디로 그 영향이 악질적"이라고 규정했음. 그러면서 "향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다스리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갈 것"이라면서 "이는 당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엄중한 정치 투쟁"이라고 강조했음. 중앙기율검사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64만 3천 759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해 고위공직자 만 8천 227명을 비롯해 66만 8천429명을 처벌했다고 공개하였음. 여기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류즈쥔 전 철도부장, 쉬쭝헝 전 선전시장이 포함되었음. 시진핑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은 취임 후 연일 부정부패 척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함

*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3817

▌BP, 원유유출 배상금 45억 달러▐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일대에 유출시킨 원유로 인해 기소되었던 세계적인 정유업체 BP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배상금인 45억 달러(한화 약 5조원)를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였다고 함. 당시의 원유유출 사고는 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유출 사고로 기록되었음. 이번에 BP가 배상하는 45억 달러는 이전에 2009년에 화이자가 냈던 미국 최대 규모 배상금액인 12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는 환경복원과 피해지역 청소와 보상 그리고 해외유전 기름 유출 방지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함. BP는 5년에 걸쳐 배상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이 밖에 다른 민사소송 또한 아직 남아있다고 함

* 출처 : http://www.aim.org/newswire/bp-receives-record-amount-4-5-billion-fine-for-gulf-oil-spill/

▌세계은행, "기후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 경고▐

세계은행은 최근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며 그 중 가난한 국가들이 식량고갈,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함. 이번 보고서는 "Turn Down the Heat(온도 낮추기)"라고 명명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온이 4도 오르면 세계를 황폐화시킬 충격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함. 보고서는 4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으며, 비록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약을 성실히 따른다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2100년까지 3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가난을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음. 이어서 김용 총재는 97%에 달하는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 현실화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밝히며 이 보고서가 사람들을 필요로 하여금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2012/11/19/us-worldbank-climate-idUSBRE8AI00520121119

▌세계 탄소시장 6년간 16배 팽창▐

지난 10월 24일 금융투자업계와 세계은행(WB)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지난해 1천760억달러에 달했다고 함. 교토의정서가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05년 108억 달러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규모임.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제규약임.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탄소시장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시장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해도 30.3% 늘었으며 작년 탄소 거래량은 약 100억 3천만톤이었음. 이는 한국의 20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임. 현재 세계 탄소시장은 유럽연합(EU)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U의 작년 탄소시장 규모는 1천480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84.0%를 차지하였고 거래량 기준으로도 세계 시장의 76.4%에 달했다고 함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stock/2012/10/23/1301000000AKR20121023214600008.HTML

▌일본 에너지 소비량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2011년도 에너지 수급실적 및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현황 수치를 공표하였음. 에너지 수급실적은 각종 에너지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최종 에너지 소비는 생산량 감소와 절전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에너지원별로 보면 앞의 이유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6.2% 감소했으며 이것이 전체 소비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도시가스 소비량은 반대로 2.4% 증가하였음. 1차 에너지 국내 공급량은 원자력이 전년 대비 64.5% 줄었고, 원자력 대체를 위한 화력발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천연가스와 석유는 각각 전년 대비 15.9%와 2.9% 늘어났음.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CO_2배출량은 원자력발전의 순차 정지,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4%가 늘어났다고 함.

또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운전을 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발전 출력은 115만5000㎾로 전월보다 약 24만㎾가 늘어난 수치라고 함. 이 가운데 주택 설비 88만6000㎾, 비주택 설비 24만㎾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총 112만600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출처 :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52&r=view&uid=245775

윤리경영 관련 행사

• 제 1 호(2 ~ 3월) 행사 / 263
• 제 2 호(3 ~ 4월) 행사 / 267
• 제 3 호(4 ~ 5월) 행사 / 272
• 제 4 호(5 ~ 6월) 행사 / 276
• 제 5 호(6 ~ 7월) 행사 / 281
• 제 6 호(7 ~ 8월) 행사 / 285
• 제 7 호(8 ~ 9월) 행사 / 288
• 제 8 호(9~10월) 행사 / 291
• 제 9 호(10~11월) 행사 / 294
• 제10호(11~12월) 행사 / 297

제 1 호

2~3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2월 〉

◎ 2011 한국경영학회 동계통합 학술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경영교육선진화, 경영교육소프트웨어개발, 동반성장, 사회적 기업경영, 통일경영, 투명사회 등의 연구포럼들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연구내용과 미래 연구방향에 대하여 토론

- 주최 : 한국경영학회
- 주관 : 매일경제, LS
- 일시 : 2012년 2월 17일(금) 10:0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SUPEX HALL

〈 3월 〉

◎ 라임글로브 '2012 사회공헌 혁신 포럼' Spring Seminar

기업의 사회공헌 〈진단 및 평가〉 핵심 포인트 해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동향과 평가 등 2012년 기업 및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

- 주최 : ㈜라임글로브, 기획재정부
- 주관 : ㈜라임글로브, 기획재정부
- 일시 : 2012년 3월 9일(금) 14:00~18:00
- 장소 : 파티오나인 6층 나인하우스
- 링크 : http://www.limeglobe.com/forum/seminaring.html

◎ ISO26000 및 CSR 국제 컨퍼런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업의 노력 제시를 통해 대대적인 대국민 선언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및 경제계 차원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따른 기업의 CSR 정보 수집 및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컨퍼런스

- 주최 : 한국SR전략연구소
- 주관 : UNGC 한국협회,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굿네이버스
- 일시 : 2012년 3월 14일(수) 09:00~17:30
- 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 2012년 교육기부 박람회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기업, 대학, 출연(연)등 교육기부 참여 기관의 우수 교육기부 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KBS
- 주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일시 : 2012년 3월 16(금)~18(일)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10홀
- 링크 : http://교육기부.kr/article.do?todo=getDnArticleView&articletype =COM243100&articleidx=5305&mode=V

▌해외▐

〈 2월 〉

◎ 2012 Sustainable Food Summit

음식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장, 음료, 음식 등 다방면에 걸친 환경적 영향, 사회적 발자취, 친환경 농업 등을 공유하는 회담

- 주최 : Organic Monitor
- 일시 : 2012년 1월 17일(화)~2월 18일(토)
- 장소 : San Francisco, USA
- 링크 : http://www.sustainablefoodssummit.com/

◎ Corporate Responsibility + Social Media: Are They Aligned in your Organization?

소셜 미디어 사회에서 기업의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

- 주최 : CSRwire
- 일시 : 2012년 2월 15일(수) 9:00~10:30
- 장소 : Manhattan, New York, USA
- 링크 : http://socialmediaweek.org/event/?event_id=1866

◎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A Context-Based Approach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워크숍.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방법인 context-based sustainability (주변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개 및 구체적 방법 공유

- 주최 : Center for Sustainable Organizations
-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17일(금)
- 장소 : Burlington, Vermont, USA
- 링크 : http://www.sustainableorganizations.org/context-based-sustainability.html

〈 3월 〉

◎ Responsible Business 2012

기업과 비영리단체(NGO)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적 관계 모색 및 효율적으로 협동하는 법 등을 소개하는 박람회.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충족시키며 기업체를 지속가능한 환경에 맞게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 주최 : UBM, Business in the Community
- 일시 : 2012년 3월 14(수)~15(목)
- 장소 : London, UK
- 링크 : http://www.responsiblebusinessevent.org/

◎ Australia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and Integrated Reporting

호주와 아태지역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및 통합적인 지속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지속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주최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 일시 : 2012년 3월 26일(월)~28일(수)
- 장소 : Melbourne, Australia
- 링크 : http://www.australiangriconference.org/

◎ FT Investing in a Sustainable Future

경제 위기 속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모델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성장 발판 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회의

- 주최 : Financial Times
- 일시 : 2012년 3월 29일(목) 8:00~17:30
- 장소 : Manhattan, New York, USA
- 링크 : http://www.ftconferences.com/sustainableinvesting

제 2 호

3~4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3월 〉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국제기구 포럼

- 주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주관 : 한국환경공단
- 일시 : 2012년 3월 9일(금) 9: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라임글로브 '2012 사회공헌 혁신 포럼' Spring Seminar

2012년 사회공헌의 길을 제시하는 그 첫 번째 시간! 기업의 사회공헌 〈진단 및 평가〉 핵심 포인트 해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동향과 평가 등 2012년 기업 및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

- 주최/주관 : ㈜라임글로브, 기획재정부
- 일시 : 2012년 3월 9일(금) 14:00~18:00
- 장소 : 파티오나인 6층 나인하우스
- 링크 : http://www.limeglobe.com/forum/seminaring.html

◎ ISO26000 및 CSR 국제 컨퍼런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및 경제계 차원의 상생 노력제시 필요성에 따른 기업의 CSR 정보 수집 및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컨퍼런스

- 주최 : 한국SR전략연구소

- 주관 : UNGC 한국협회,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굿네이버스
- 일시 : 2012년 3월 14일(수) 09:00~17:30
- 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 2012년 교육기부 박람회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교육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기업, 대학, 출연(연)등 교육기부 참여 기관의 우수 교육기부 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KBS
- 주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일시 : 2012년 3월 16(금)~18(일)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10홀

◎ Better Work Korean Supplier Meeting in Seoul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파트너십으로 정부, 고용자, 근로자 및 해외바이어들이 모두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체인 (Global Supply Chain) 내의 노동기준 준수 향상 및 기업 경쟁력 증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Better Work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과 사례, 토론의 장 마련

- 주최 : Better Work (the partnership programme of ILO and IFC)
- 일시 : 2012년 3월 20일 (화) 09:00 am~13:30 pm
- 장소 : 플라자 서울 호텔
- 참가대상 : 한국의류수출기업

◎ 윤경 CEO 서약식

CEO의 윤리경영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해 CEO의 윤리서약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에 윤리적 문화를 전파시키고자 하는 자리

- 주최 : 윤경SM포럼 사무국
- 주관 : 산업정책연구원
- 후원 : 국민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윤경CEO클럽, 지속경영학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일시 : 2012년 3월 27일(화) 14:00~15:2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링크 : http://www.ips.or.kr/site/IPS/mail/best/20120228/01.html

◎ 미래가치평가 결과 발표 및 평가체계 발전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기업의 미래가치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지속가능경영의 현주소, 성과와 명암을 짚어보며, 난무하는 지속가능경영 시상, 지수 및 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도 논의하는 자리

- 주최 : Two Tomorrows Asia
- 주관 : Two Tomorrows
- 일시 : 2012년 3월 28일(수) 13:00~18:00
- 장소 : 주한 영국대사관 Aston홀
- 링크 : http://www.csr-korea.net/Kor/Service/News/appl/EventView.asp

〈 4월 〉

◎ 국내외 ISO 50001 인증 현황과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년 6월 15일에 표준을 제정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해 BSI(영국표준협회)와 SR코리아가 공동으로 ISO 50001 구축과 인증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 주최 : BSI(영국표준협회), SR코리아
- 일시 : 2012년 4월 30일(월) 14:00~18:00
- 장소 : BSI 교육장
- 참가대상 :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해외▐

〈 3월 〉

◎ Responsible Business 2012

기업과 비영리단체(NGO)간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모색 하고 효율적으로 협동하는 법을 소개하는 박람회

- 주최 : UBM, Business in the Community
- 일시 : 2012년 3월 14(수)~15(목)

- 장소 : London, UK
- 링크 : http://www.responsiblebusinessevent.org/

◎ Australia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and Integrated Reporting

호주와 아태지역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및 통합 지속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지속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모든 기업 대상

- 주최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 일시 : 2012년 3월 26일(월)~28일(수)
- 장소 : Melbourne, Australia
- 링크 : http://www.australiangriconference.org/

◎ FT Investing in a Sustainable Future

경제 위기 속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가능 모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성장 발판 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회의

- 주최 : Financial Times
- 일시 : 2012년 3월 29일(목) 8:00~17:30
- 장소 : Manhattan, New York, USA
- 링크 : http://www.ftconferences.com/sustainableinvesting

〈 4월 〉

◎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Fraud Ethics and CSR

제4회 기업 지배구조, 부패, 윤리 및 CSR에 관한 학술 토론회

- 주최 : Trakya University Social Graduate School
- 일시 : 2012년 4월 4일(수)~7일(토)
- 장소 : Antalya, Turkey
- 링크 : http://www.icongfesr2011.gominisite.com/

◎ Engaging Hearts and Minds: An Agenda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기업의 국제 시민화(Global Corporate Citizenship) 동참, 방법, 노력, 노하우를 논의하는 회의

- 주최 : Institute for Global Citizenship and Equity, Centennial College
- 일시 : 2012년 4월 16일(월)~17일(화)
- 장소 : Toronto, Canada
- 링크 : http://www.centennialcollege.ca/citizenshipandequity

◎ ICCSR 10th Anniversary Conference – CSR Futures: Knowledge and Practice

ICCSR 10주년, CSR 관련 8가지 주제에 대한 학술 발표 회의. 아시아의 CSR과 발전상, CSR과 기업의 지배구조, CSR이 회사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과 리더십 등의 주제에 대한 논문 발표 및 토론 개최

- 주최 : International Centr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ottingham University, UK
- 일시 : 2012년 4월 26일(목)~27일(금)
- 장소 : Nottingham, UK
- 링크 : http://www.nottingham.ac.uk/business/ICCSR/

4~5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4월 〉

◎ 국내외 ISO50001 인증 현황과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년 6월 15일에 표준을 제정한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해 BSI(영국표준협회)와 SR코리아가 공동으로 ISO50001 구축과 인증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 주최 : BSI(영국표준협회), SR코리아
- 일시 : 2012년 4월 30일(월) 14:00~18:00
- 장소 : BSI 교육장
- 참가대상 :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 윤경SM포럼

한국IBM의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IBM의 대표적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 창조)전략인 Smart Planet(똑똑한 지구) 전략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소개함

- 주최 : 산업정책연구원
- 일시 : 2012년 4월 26일(목) 07:00~08:30
- 장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참가대상 : 윤경SM포럼 회원 및 윤리·지속경영 관련 업무 담당자

〈 5월 〉

◎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대상으로 국제 윤리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및 비전 설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일시 : 2012년 5월22일(화), 09:00~18:00
- 장소 : 청렴교육관(국민권익위원회)
- 대상 : 60명(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 과목 : CEO 특강, 윤리경영 사례분석,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개발, 윤리경영 실천프로세스, 한국의 전통적 윤리경영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02-260-2777)

◎ 2012년 제주포럼

2012년 제주포럼이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를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 총 60여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 및 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보를 비롯한 지속경영,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 정세와 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 동향을 분석,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조명함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 일시 : 2012년 5월 31일~6월 2일
- 장소 :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서울 지속가능성 스튜디오 2012

디자인 학술단체 Project.E가 '서울 지속가능성 스튜디오 2012'를 개최. 서울 공공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기회를 갖는 '서비스 디자인 워크샵'으로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탐색할 예정

- 주최 : Project. E
- 일시 : 2012년 5월 4일~5월 6일
- 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 서울여성플라자
- 대상 : 서비스 디자인 디렉터를 희망하는 디자인쟁이들, 저탄소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픈 환경쟁이들, 열정과 상상력이 있는 모든 대학(원)생들
- 링크 : http://blog/naver.com/sss_2012

▌해외▐

〈 4월 〉

◎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Fraud Ethics and CSR

4번째로 열리는 기업의 지배구조, 부패, 윤리 및 CSR에 관한 학술 토론회

- 주최 : Trakya University Social Graduate School
- 일시 : 2012년 4월 4일(수)~7일(토)
- 장소 : Antalya, Turkey
- 링크 : http://www.icongfesr2011.gominisite.com/

◎ Engaging Hearts and Minds: An Agenda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어떻게 하면 기업의 국제 시민화(Global Corporate Citizenship)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어떠한 기업이 국제 시민화를 잘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

- 주최 : Institute for Global Citizenship and Equity, Centennial College
- 일시 : 2012년 4월 16일(월)~17일(화)
- 장소 : Toronto, Canada
- 링크 : http://www.centennialcollege.ca/citizenshipandequity

◎ ICCSR 10th Anniversary Conference – CSR Futures: Knowledge and Practice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CSR 관련 8가지 주제에 대한 학술 발표 회의. 아시아의 CSR과 발전상, CSR과 기업의 지배구조, CSR이 회사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과 리더십 등의 주제에 대한 논문 발표 및 토론 개최

- 주최 : International Centr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ottingham University, UK
- 일시 : 2012년 4월 26일(목)~27일(금)
- 장소 : Nottingham, UK
- 링크 : http://www.nottingham.ac.uk/business/ICCSR/

〈 5월 〉

◎ The Responsible Business Summit 2012

올해로 11년차를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유럽 내 행사로 CSR에 대한 지식 공유와 산업계의 네트워킹 경험을 제공할 예정임.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5월 8일(화)~9일(수)
- 장소 : London, UK
- 링크 : htttp://events.ethicalcorp.com/rbs/

◎ Impactt Conference 2012

모두를 위해 더 스마트면서 윤리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Impactt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임. 이 회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근로자 주도이며 비즈니스에 초점 맞춘 변화에 관한 이슈를 다룰 예정임

- 주최 : Impactt Limited
- 일시 : 2012년 5월 24일(목)
- 장소 : London, UK
- 링크 : http://www.impacttlimited.com/conference

5~6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5월 〉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2년 제주포럼이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도에서 개최됨. 총 60여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와 CSV등 지속경영에 대한 다양한 세션들도 포함됨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 일시 : 2012년 5월 31일~6월 2일
- 장소 :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2012 CSR Workshop '전략적 CSR을 진단하다'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전략적 CSR 트랜드, 글로벌과 한국의 CSR 비교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트랜드인 CSV의 명암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됨

- 주최 · 주관 :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후원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 일시 : 2012년 5월 21일
- 장소 : 임패리얼 팰리스 호텔 세레나홀

◎ 제5차 국제환경규제대응 엑스포

국내 수출 기업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국제환경규제와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함. 국제환경규제 최신 동향과 대응가이드를

제시하며,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1:1 규제 상담, 규제 대응 성공사례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주최 : 지식경제부
- 주관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지속가능경영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일시 : 2012년 5월 24일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2)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2는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경제와 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녹색성장과 녹색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

- 주최 : 대한민국 정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주관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협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orld Bank)
- 관련부처 :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 일시 : 2012년 5월 10일~11일
- 장소 : 롯데호텔 서울

◎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 WORKSHOP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 동향, 통신 및 도로 등 인프라 활용 분야, 기상정보 활용 분야, 적응형 친환경 신건축 분야 및 보험산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워크샵을 진행함

- 주최 · 주관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일시 : 2012년 5월 24일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서울 지속가능성 스튜디오 2012

디자인 학술단체 Project. E가 '서울 지속가능성 스튜디오 2012'를 개최. 서울 공공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기회를 갖는 '서비스 디자인 워크샵'으로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됨

- 주최 : Project. E
- 일시 : 2012년 5월 4일~5월 6일
- 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 서울여성플라자
- 대상 : 서비스 디자인 디렉터를 희망하는 디자인쟁이들, 저탄소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픈 환경쟁이들, 열정과 상상력이 있는 모든 대학(원)생들
- 링크 : http://blog/naver.com/sss_2012

〈 6월 〉

◎ 제2회 국제나눔컨퍼런스

대한민국 나눔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나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나눔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의 발전과제와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함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국민운동본부
- 후원 : IBK기업은행
- 일시 : 2012년 6월 13일~6월 14일, 10시 30분~17시 4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링크 : http://www.nanumnet.or.kr

◎ SUMMER 사회공헌 세미나

라임글로브가 주최하는 '2012 사회공헌 혁신 포럼' 두 번째 포럼. 이번 포럼의 주요 테마는 교육분야의 사회공헌으로 교육기부부터 다문화, 어린이 대상 그리고 교육분야 사회공헌의 트렌드 등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주최 : 라임글로브
- 일시 : 2012년 6월 14일, 14:00~18:00
- 장소 : 파티오나인, 6F 나인하우스

▌해외▐

〈 5월 〉

◎ The Responsible Business Summit 2012

올해로 11년차를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유럽 내 행사로 CSR에 대한 지식 공유와 산업계의 네트워킹 경험을 제공함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5월 8일(화)~9일(수)
- 장소 : 영국 런던
- 링크 : htttp://events.ethicalcorp.com/rbs/

◎ Impactt Conference 2012

모두를 위해 더 스마트하면서 윤리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Impactt Conference가 개최됨. 이 회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근로자 주도이며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변화에 관한 이슈를 다룸

- 주최 : Impactt Limited
- 일시 : 2012년 5월 24일(목)
- 장소 : 영국 런던
- 링크 : http://www.impacttlimited.com/conference

〈 6월 〉

◎ Rio+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CSF) 소개

Rop+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CSF)은 Rio+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된 테마를 다루는 60여 개의 세션들로 구성되어, 각 테마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 및 기회를 모색할 예정임. 또한 그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최 : UN Global Compact
- 일시 : 2012년 6월 15일(금)~18일(월)
- 장소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링크 : http://www.unglobalcompact.kr/22.htm?ptype=view&idx=1647

◎ The 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

유럽 내 대표 CSR 행사의 미국판인 The 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임.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CEO들과 CSR 전문가들이 모이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컴플라이언스 등의 이슈가 포함됨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29일(금)
- 장소 : 미국 뉴욕
- 링크 : http://events.ethicalcorp.com/rbsusa/index.php

제 5 호

6~7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6월 〉

◎ 제7회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유럽의 지속가능경영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CSR 정책관련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 유럽 최신 CSR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지식경제부의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 마련

- 주제 :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책 전략 방향
- 주최 : 지식경제부
- 주관 : 한국표준협회
- 일시 : 2012년 6월 12일(화) 13:30~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 관련 임직원

◎ SUMMER 사회공헌 세미나

라임글로브가 주최하는 '2012 사회공헌 혁신 포럼' 두 번째 포럼. 이번 포럼의 주요 테마는 교육분야의 사회공헌으로 교육기부부터 다문화, 어린이 대상 그리고 교육분야 사회공헌의 트렌드 등 읽어보는 시간을 가짐

- 주최 : 라임글로브
- 일시 : 2012년 6월 14일(목), 14:00~18:00
- 장소 : 파티오나인, 6F 나인하우스

◎ 제34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국내기업의 CEO들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함

- 주최 : 윤경SM포럼 사무국
- 주관 : 산업정책연구원
- 일시 : 6월 27일(수) 7:00~8:30
- 장소 :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연사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주제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 7월 〉

◎ 2012 기후정보공시위원회(CDSB) 워크샵

글로벌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SB(기후정보공시위원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리

- 주최 : CDP한국위원회 / CDP / CDSB
- 후원 : 주한 영국대사관
- 주제 : 녹색경제의 핵심 경쟁력: 사업보고서와 기후변화 정보의 통합
- 참석대상 : 환경, 기후변화, 재무, 전략 관련 임직원, 투자기관, 정부 등
- 일시 : 2012년 7월 3일(화) 14:00~17:10
-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중구 수하동 소재)

◎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공개특강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의 주최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짊어질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가 위해 삼성사회봉사단, 경기도, 성균관대학교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교육 특강임

- 주최 :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주제 : 사회적기업 왜,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일시 : 2012년 7월 13일(금), 10:00~12:00
- 장소 : 삼성생명 본사 1층 컨퍼런스홀

▌해외▐

〈 6월 〉

◎ Rio+20, 기업지속가능성포럼(CSF) 소개

Rop+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CSF)은 +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된 테마를 다루는 60여 개의 세션들로 구성되어, 각 테마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 및 기회를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짐

- 주최 : UN Global Compact
- 일시 : 2012년 6월 15일(금)~18일(월)
- 장소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링크 : http://www.unglobalcompact.kr/22.htm?ptype=view&idx=1647

◎ the 3rd Ethical Corporation Award 2012

영국의 윤리경영, 지속경영 관련 잡지인 Ethical Corporation에서 개최하는 시상식. Marks & Spencer, SAB Miller, Coca, Anglo American, Abbott, BAA, Boots 등의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며, 각 부문별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됨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6월 25일(월)
- 장소 : London, UK
- 링크 : http://events.ethicalcorp.com/awards/

◎ The 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

유럽 내 대표 CSR 행사의 미국판인 The 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됨.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CEO들과 CSR 전문가들이 모이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Compliance 등의 이슈가 포함됨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29일(금)
- 장소 : New York, USA
- 링크 : http://events.ethicalcorp.com/rbsusa/index.php

〈 7월 〉

◎ World Sustainable Agriculture Congress 2012

식품과 농업관련사업의 모든 가치사슬, 아이디어, 전략 그리고 CSR 이니셔티브를 탐구해볼 수 있는 세계 지속가능 농업 콩그레스 2012(World Sustainable Agriculture Congress 2012)가 개최될 예정. 본 행사는 식품의 안전과 경영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준비됨

- 주최 : IMAPAC
- 일시 : 2012년 7월 10일(화)~12일(목)
- 장소 : 싱가포르
- 링크 : http://www.imapac.com/index.php?page=WorldSustainableAgricultureCongress2012

제 6 호

7~8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7월 〉

◎ 2012 기후정보공시위원회(CDSB) 워크샵

글로벌 기준에 따라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SB(기후정보공시위원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자리 마련하였음

- 주최 : CDP한국위원회 / CDP / CDSB
- 후원 : 주한 영국대사관
- 주제 : 녹색경제의 핵심 경쟁력: 사업보고서와 기후변화 정보의 통합
- 참석대상 : 환경, 기후변화, 재무, 전략 관련 임직원, 투자기관, 정부 등
- 일시 : 2012년 7월 3일(화) 14:00~17:10
-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 중구 수하동 소재)

◎ SGS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공개특강

SGS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의 주최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짊어질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삼성사회봉사단, 경기도, 성균관대학교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교육 특강이 진행하였음

- 주최 : SGS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 주제 : 사회적기업 왜,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일시 : 2012년 7월 13일, 10:00~12:00
- 장소 : 삼성생명 본사 1층 컨퍼런스홀

◎ 지속경영보고서 작성법 1일 특강

지속경영보고서 발간 기업과 산업정책연구원 및 연구 기관의 지식기부를 통해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기업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작성 업무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리였음

- 주최, 주관: 산업정책연구원(IPS)
- 후원 : 윤경 SM 포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주제 : 사회적기업 왜,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일시 : 2012년 7월 18일, 09:30~17:30
- 장소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층 2강의장

〈 8월 〉

◎ 제 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착한 기업과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대학 CSR 컨퍼런스 행사를 펼친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첫째 날은 한·중·일 학생 대표단을 주축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둘째 날은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행사가 열릴 예정임

-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주제 : 착한 기업과 따뜻한 세상
- 일시 : 2012년 8월 13일~2012년 8월 14일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해외▐

〈 7월 〉

◎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의 반부패 프로젝트 진행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 관련 워크샵으로 '국제자금이동추적, 자산회복, 자산세탁방지를 통한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에 관한 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되었음

- 주최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일시 : 2012년 7월 10일(화)~11일(수)
- 장소 : 태국 푸켓

◎ World Sustainable Agriculture Congress 2012

식품과 농업관련사업의 모든 가치사슬, 아이디어, 전략 그리고 CSR 이니셔티브를 탐구해볼 수 있는 World Sustainable Agriculture Congress가 개최됨. 본 행사는 식품의 안전과 경영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 주최 : IMAPAC
- 일시 : 2012년 7월 10일(화)~12일(목)
- 장소 : 싱가폴
- 링크 : http://www.imapac.com/index.php?page=WorldSustainableAgricultureCongress2012

〈 8월 〉

◎ Interface Asia CSR Forum 2012

인도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NGO, 정부, 학계 등의 CSR 관계자들이 모이는 "Interface Asia CSR Forum"이 인도의 Odisha에서 열릴 예정임. 이번 행사에서 언론, 기업, 정치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인도의 CSR 활동에 대하여 생각을 나눌 예정임

- 주최 : Tefla's Times of India
- 일시 : 2012년 8월 25일(토)~26일(일)
- 장소 : Odisha, India
- 링크 : http://www.karmayog.in/events/interface-asia-csr-forum-2012-day-2

8~9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8월 〉

◎ 제 1회 대학생 Y-CSR 컨퍼런스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주최로 "착한 기업과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대학 CSR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함.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첫째 날은 한중일 학생 대표단을 주축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둘째 날은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행사가 열림

-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주제 : 착한 기업과 따뜻한 세상
- 일시 : 2012년 8월 13일(월)~2012년 8월 14일(화)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 GRI G4 가이드라인 워크숍

GRI에서는 2013년 새롭게 발표될 G4 가이드라인에 대한 워크숍을 한국에서 진행함. 이번에 공개한 초안은 2011년 말 공개 코멘트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작한 내용임. 워크숍을 통해 공개초안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로 마련됨

- 주최/주관 : GRI, 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 일시 : 2012년 8월 21일(화) 9:30~17:00
- 장소 :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 9월 〉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 최대 환경기구인 세계보전연맹(IUCN)이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환경관련 국제회의로 180여 개국에서 1만명의 정부기관, NGO,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분야의 올림픽으로 개최됨

- 주최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주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 일시 : 2012년 9월 6일(목)~9월 15일(토)
- 장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주제 : 자연의 회복력(Resilience of nature)

▌해외▐

〈 8월 〉

◎ Interface Asia CSR Forum 2012

인도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NGO, 정부, 학계 등의 CSR 관계자들이 모이는 "Interface Asia CSR Forum"이 인도의 Odisha에서 개최함. 이번 행사에서 언론, 기업, 정치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인도의 CSR 활동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짐

- 주최 : Tefla's Times of India
- 일시 : 2012년 8월 25일(토)~26일(일)
- 장소 : Odisha, India
- 링크 : http://www.karmayog.in/events/interface-asia-csr-forum-2012-day-2

〈 9월 〉

◎ 2012 Global Compliance Summit

제4회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정상회담은 40여개의 다국적기업 제조업체들과 그들의 공급망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함. 2일간 펼쳐지는 이번 회담에서는 산업계 리더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실행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함

-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13일(목)
- 장소 : 중국 장쑤성 New City Garden Hotel

◎ The Necessary Transition 2012

저탄소, 평등주의, 인권, 부패, 투명성 등의 다양한 문제와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 주최 : Asia Pacific Centre for Sustainable Enterprise
- 일시 : 2012년 9월 26일(수)~28일(금)
- 장소 : 호주 브리즈번
- 링크 : http://www.griffith.edu.au/conference/necessary-transition

제 8 호

9~10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 9월 〉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 최대 환경기구인 세계보전연맹(IUCN)이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환경관련 국제회의로 180여 개국에서 1만명의 정부기관, NGO,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분야의 올림픽으로 개최됨

- 주최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주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 일시 : 2012년 9월 6일(목)~9월 15일(토)
- 장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주제 : 자연의 회복력(Resilience of nature)

◎ 2012 Global Compliance Summit

제4회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정상회담은 40여개의 다국적기업 제조업체들과 그들의 공급망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함. 2일간 펼쳐지는 이번 회담에서는 산업계 리더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실행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함

-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13일(목)
- 장소 : 중국 장쑤성 New City Garden Hotel

◎ The Necessary Transition 2012

저탄소, 평등주의, 인권, 부패, 투명성 등의 다양한 문제와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 주최 : Asia Pacific Centre for Sustainable Enterprise
- 일시 : 2012년 9월 26일(수) ~ 28일(금)
- 장소 : 호주 브리즈번
- 링크 : http://www.griffith.edu.au/conference/necessary-transition

〈 10월 〉

◎ 제1회 CSR 국제 포럼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CSR 국제포럼이 열릴 예정임. 이번 포럼에서는 CSR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스피커 및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의 CSR 요구와 대응, 국제사회(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의 CSR활동과 사례, 해외진출 기업의 CSR확산을 위한 정책토론 세 가지 세션으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임

- 주최 : 외교통상부
- 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09:30~17:20
- 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 주제 : 글로벌 CSR 활동:사회적변화, 그리고 기업 및 정부의 역할

◎ Carbon Forum North America

Carbon Forum North America는 북미 지역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책이나 경영활동에 대한 가장 최근의 흐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함.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 가장 치명적인 주제를 살펴보고 각 주에서 어떤 저탄소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최 : IETA(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 일시 : 2012년 10월 1일(월)~2일(화)
- 장소 : Washington DC, US
- 주제 : North America's 2012 Cornerstone Carbon Event
- 링크 : http://www.justmeans.com/events/center-for-resource-solutions/1467.html

◎ 7th Sustainable Supply Chain Summit

제 7회 Sustainable Supply Chain Summit이 런던에서 열릴 예정임. 200명 이상의 지속가능성 리더들이 모이고 최고의 사례들과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논의 될 예정임. 마크&스펜서, 네슬레, 나이키 등 유수 기업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실제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23일(화)
- 장소 : London, UK
- 주제 : Global sourcing trends and supply chain resillince 등
- 링크 :http://events.ethicalcorp.com/supplychain/conference-agenda.php

◎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대상으로 국제 윤리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및 비전 설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일시 : 2012년 11월 27일~28일(1박 2일) 예정
- 장소 : 청주 청렴교육센터(국민권익위원회)
- 대상 : 60명(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 과목 : CEO 특강, 윤리경영 이론 및 실무, 교양, 분임토의 등
-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기업윤리 프리프스)

☞ 교육내용, 신청방법 등은 10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통해 공지

10~11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10월 〉

◎ 제1회 CSR 국제 포럼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CSR 국제포럼이 열릴 예정임. 이번 포럼에서는 CSR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스피커 및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의 CSR 요구와 대응, 국제사회(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의 CSR활동과 사례, 해외진출 기업의 CSR확산을 위한 정책토론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됨

- 주최 : 외교통상부
- 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09:30~17:20
- 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 주제 : 글로벌 CSR 활동:사회적변화, 그리고 기업 및 정부의 역할

◎ 윤경SM포럼 10월 정례모임

윤경SM포럼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다짐]운동을 통한 윤리적 기업 문화 정착을 도모함. 윤리경영을 실천함에 있어 CEO의 의지와 역할이 막중함에 따라 CEO차원의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가야 함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윤경SM포럼을 개최함

- 주최 : 산업정책연구원
- 일시 : 2012년 10월 25일, 07:00~08:30
- 장소 : 서울 프라자호텔
- 주제 : 윤리경영, 추세와 도전(가제)
- 연사 : 경희대학교 장영철 교수

〈 11월 〉

◎ 글로벌콤팩트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 CEO 정례 조찬회를 개최함. 연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 KPMG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부문 글로벌 대표 이브 드 보어(Yvo de Boer)가 나설 예정임. 이번 간담회에서 Rio+20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문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구현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 2012년 11월 2일(금) 07:30 ~ 09:30
- 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 주제 : Global Mega Trend & Climate Change

▌해외▐

〈 10월 〉

◎ Carbon Forum North America

Carbon Forum North America는 북미 지역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책이나 경영활동에 대한 가장 최근의 흐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함.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 가장 치명적인 주제를 살펴보고 각 주에서 어떤 저탄소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최 : IETA(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 일시 : 2012년 10월 1일(월)~2일(화)
- 장소 : Washington DC, US
- 주제 : North America's 2012 Cornerstone Carbon Event
- 링크 : http://www.justmeans.com/events/center-for-resource-solutions/1467.html

◎ 7th Sustainable Supply Chain Summit

제7회 Sustainable Supply Chain Summit이 런던에서 열릴 예정임. 200명 이상의 지속가능성 리더들이 모이고 최고의 사례들과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논의 될 예정임. 마크&스펜서, 네슬레, 나이키 등 유수 기업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실제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23일(화)
- 장소 : London, UK
- 주제 : Global sourcing trends and supply chain resillince 등
- 링크 : http://events.ethicalcorp.com/supplychain/conference-agenda.php

〈 11월 〉

◎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 Clean Energy Investor Summit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 Clean Energy Investor Summit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 Clean Energy Investor Summit은 산업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영향력있는 의사결정자들 금융업자, 기업 리더들, 창업가들 그리고 기술의 선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매우 저명한 행사임.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상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술 기업들과 전략적인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임

- 주최 : Newnet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8일(목)
- 장소 : London, UK
- 주제 : essential deal leads & new business opportunities
- 링크 : http://www.envirotechinvestorsummit.com/2012/

◎ TBLI Conference Europe 2012

TBLI Conference는 매년 열리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임팩트 투자에 관련된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학습 행사임. 최고의 기조연설과 ESG 이슈를 다루는 18개의 완벽한 세션들에서 지속가능한 투자와, 통합 보고, 신재생에너지, 인권 등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뤄질 예정임

- 주최 : TBLI CONFERENCE
-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9일(금)
- 장소 : Zurich, Switzerland
- 주제 : Why Occupy? Try TBLI!
- 링크 : http://tbliconference.com/tbli-europe-2012.html

제10호

11~12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안내

국내

〈 11월 〉

◎ 글로벌콤팩트 비즈니스 리더스 조찬 간담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 CEO 정례 조찬회를 개최함. 연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 KPMG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부문 글로벌 대표 이브드 보어(Yvo de Boer)가 나섰음. 이번 간담회는 Rio+20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문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구현방안을 논의함

-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 2012년 11월 2일(금) 07:30~09:30
- 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 주제 : Global Mega Trend & Climate Change

◎ 국제 CSR전략 포럼

지식경제부는 혁신적 CSR 및 공유가치 창출과 관련한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및 CSR전략 업그레이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 CSR전략 포럼을 개최함. 미션매저먼트(Mission Measurement LLC) 설립자 제이슨 사울과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글로벌 자문서비스 총괄대표인 스티븐 로크린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며, 행사 중에 지속가능경영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됨

- 주최 : 지식경제부
-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10:00~17:00
- 장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 주제 : International Forum For New CSR Strategy

◎ 윤경SM포럼 11월 정기모임

윤리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믿는 기업들이 모여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 나갈 다자간 포럼으로 2002년 발족된 "윤경SM포럼"의 2012년 11월 정기모임. 11월 주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직문화와 윤리경영-글로벌 CSV 사례"임

- 주최 : 지식경제부
-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07:00~08:30
- 장소 : 서울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직문화와 윤리경영-글로벌 CSV 사례

〈 12월 〉

◎ 개발협력연대 제2차 정기회의

지난 8월 출범한 개발협력연대의 제2차 정기회의임.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연대 회원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현재의 민관협력사업을 뛰어넘는 보다 전략적인 민관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주최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연대(DAK)
- 일시 : 2012년 12월 5일(수) 09:00~12:30
- 장소 : 국립외교원 외교사료관 강당(서울 양재)
- 주제 : 향후 "개발협력연대(DAK)"라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될 정부의 혁신적 민관협력사업 추진 방안

▌해외▐

〈 11월 〉

◎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 Clean Energy Investor Summit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 Clean Energy Investor Summit

New Energy World Network's Envirotech & Clean Energy Investor Summit은 산업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영향력있는 의사결정자들인 금융업자, 기업 리더들, 창업가들 그리고 기술 선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매우 저명한 행사임.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상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술 기업들과 전략적인 이슈들이 논의됨

- 주최 : Newnet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8일(목)
- 장소 : London, UK
- 주제 : essential deal leads & new business opportunities
- 링크 : http://www.envirotechinvestorsummit.com/2012/

◎ TBLI Conference Europe 2012

TBLI Conference는 매년 열리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임팩트 투자에 관련된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학습 행사임. 최고의 기조연설과 ESG 이슈를 다루는 18개의 완벽한 세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와 통합 보고, 신재생에너지, 인권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주최 : TBLI CONFERENCE
-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9일(금)
- 장소 : Zurich, Switzerland
- 주제 : Why Occupy? Try TBLI!
- 링크 : http://tbliconference.com/tbli-europe-2012.html

〈 12월 〉

◎ Institute On Corporate Citizenship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기업시민이라는 것이 마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졌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음.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부상하는 기업시민 비전 및 전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Boston College가 준비한 전문 교육을 통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과 툴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임

- 주최 :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2년 12월 12일(수)~14일(금)
- 장소 : Los Angeles, CA, United States
- 주제 : Institute on Corporate Citizenship
- 링크 : http://www.bcccc.net/index.cfm?fuseaction=cmc_calendars.view&course_ID=5818

윤리경영 100문100답

• 제1호 - 기업의 국제 시민화와 윤리경영 / 303
• 제2호 - 윤리경영에 대한 CEO 의지 / 305
• 제3호 - 동반성장과 윤리경영 / 307
• 제4호 -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 309
• 제5호 -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구성원의 참여 / 311
• 제6호 - 개인의 윤리의식 / 313
• 제7호 - 공정무역 / 315
• 제8호 -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 317
• 제9호 - 파견인력의 인권 · 산업재해와 인권 / 319
• 제10호 - 개인의 윤리 판단 / 321

제1호

기업의 국제 시민화와 윤리경영

기업의 국제 시민화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 윤리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칫 기업들이 국내·외의 활동에서 빚어질 수 있는 윤리경영 위반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공무원에게 감사 선물 증정

Q 나윤리 사원의 회사는 공공부문으로부터 OO청 입찰 제안을 돕도록 요청 받았다.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장시간 XX기관 직원들과 회의를 하였다. 일이 끝나고 힘들고 고된 회의 동안 XX기관 직원들이 보여준 성의와 도움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한다.

나윤리 사원은 선약이 있는 관계로 사용할 수 없는 뮤지컬 공연 관람권 2매(약 20만원 상당)가 있어 이를 XX기관 직원들에게 감사 표시로 주고자 한다.

A 공무원, 준공무원 및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부 직원이나 정당 또는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일체의 지급이나 선물은 사전에 법률고문실 등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라 함은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나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에서는 감사 표시 등의 이유로 공공연하게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직무 윤리 및 경영 윤리 위반 사례이다.

▌사례 2.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고아원 등에 기부▐

Q 나윤리 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품 또는 상품권을 고아원 등 사회 공공기관에 기부하려고 한다. 수수한 금품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윤리규범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이면 아무리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이 된다.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소비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기관에 기부 또는 직원 회사에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반사례에 해당된다. 탈세를 한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해도 탈세를 한 사실은 분명한 위법인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한 지역 사회에 이루어지는 기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업의 국제 시민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윤리경영 100문 100답(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제 2 호

윤리경영에 대한 CEO 의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데 있어 최고경영자(CEO)의 목표 의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CEO의 의지가 기업의 윤리의식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1. 거래처 선정에 대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

Q 나윤리 사원은 팀에서 필요한 물품을 평소 거래해온 A거래처로부터 1천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김부패 차장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고가의 회를 사주면서 물품을 B거래처로부터 1천2백만 원에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알고 보니 B거래처는 김부패 차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A거래처는 타 거래처와 비교를 해 봐도 품질과 가격이 적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거래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고민된다.

A 이러한 경우, 설사 팀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계획대로 A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용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등을 이유를 들어 B거래처로부터의 물품 구입은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물품, 용역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식적 수준 이상의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CEO의 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부패행위를 뿌리부터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손해를 무릅쓴 윤리규범 실천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지 궁금하다.

A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한다면 이익과 윤리가 상충되는 경우 이익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윤리강령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발각되었을 때,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까지 같이 폭로되면서 비윤리적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경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CEO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높은 윤리수준을 갖추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CEO의 의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CEO가 스스로 강력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익을 추구할 때 더욱 더 큰 이익으로 기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 출처 : 윤리경영 100문 100답(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제 3 호

동반성장과 윤리경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들을 겪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거래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보자.

사례 1. 특정 거래처의 전문지식 조언

Q 나윤리 사원은 이번에 신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나윤리 사원의 그 동안의 경력은 그런 전문성 가지고 있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나윤리 사원은 특정기업의 조언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추후 시스템을 발주하여 기업을 선정해야 할 때 공정하게 모든 지원 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일단 특정기업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경우, 기업 선정 시 공정성 시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기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받는 조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공정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례 2. 거래처 불공정 입찰

Q 김원칙 부장은 며칠 전 본사 신축 공사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느 날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칸막이벽 시공 입찰을 곧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공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큰 관심을 보였다. 입찰 신청 공고 전, 그 친구는 계약을 낙찰시켜 주면 인기 있는 골프 회원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실 김 부장의 친구 회사는 다른 건설회사보다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고, 실적도 중간 정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 만일 김원칙 부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골프 클럽 회원권이라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입찰을 조작한다면, 그것은 윤리규범의 행동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 친구 회사가 건축 비용을 초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김 부장은 고용주와 고객의 이익 보호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대가수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낙찰 시 대가를 받고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는 뇌물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대가를 제공한 친구도 기소 대상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친구의 요청에 응하면 안 된다.

* 출처 : 윤리경영 100문 100답(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제 4 호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기업들은 경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자

사례 1.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자도 윤리규범 준수의 대상인가?

Q 회사에는 정규직 사원 외에도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직원이 근무한다. 윤리규범의 적용이 되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이나 파견 근로자들도 해당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A 답은 "Yes" 이다. 정식 직원이든 임시직이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거래업체 역시 당사의 윤리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거래 혹은 구매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입찰자에게 통보가 되므로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업체만 입찰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 · 외부 이해관계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가 기업에게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의 윤리규범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례 2. 접대비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Q 나윤리 사원과 그의 동료는 정부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회사가 정하고 있는 접대비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 해결이 가능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러나 초대받은 공무원들은 모두 배우자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 명은 배우자의 여동생까지 대동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값비싼 요리와 와인까지 주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접대비 명목으로 이들을 접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A 정부기관 또한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접대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선물, 식사, 오락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일지라도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것도 접대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임직원은 회사규정에 맞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관리자에게 접대과정에서 발생한 규정위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점심과 저녁 접대에 적합한 비공식 규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거나, 사전에 초대받는 이해관계자에게 해당사항을 공유하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하고, 접대 받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윤리경영 100문 100답(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제 5 호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구성원의 참여

기업이 아무리 부패 근절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여도 구성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기업의 반부패 노력은 무용지물이다. 여기서는 임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례 1. 거래처의 뇌물수수 및 환경법 위반 적발

Q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 대표가 뇌물수수 및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가장 싼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납기를 잘 지켜준 상황이라서 굳이 거래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러한 경우 꼭 거래처를 바꿔야 할까?

A 우리 기업과 무관한 문제일지라도, 거래처가 뇌물수수 및 환경법 위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었다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중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제사유 중에 불법,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청렴 조항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사와의 관계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청렴계약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아래 사례 참고).

[사례] 청렴계약 조항 사례

①'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갑'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갑'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갑'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례 2. 스스로에게 발생한 일에 대한 신고

Q 나윤리 사원은 친한 거래처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 받았다. 비윤리적인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지금은 뇌물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자기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제보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거나, 비윤리적인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라도 본인이 뉘우치고 스스로 그 사실을 제보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내부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출처 : 윤리경영 100문 100답(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제 6 호

개인의 윤리의식

개인의 윤리의식은 개인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이 윤리적인 판단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1.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의 한도

Q 나윤리 사원은 최근 사내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강의를 듣고 사내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경조사에 대하여 5만원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선물의 수수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 기준이 3만원 정도라고 한다. 나윤리 사원이 생각하기에 선물수수 허용범위가 현재의 경조사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선물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A 윤리규범에 대하여 처음 교육받는 사람의 반응 중 대부분이 선물수수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다'라고 반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국가일수록 경조사의 선물한도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IBM은 심지어 한도를 10달러로 하고 있다. 물론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50달러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어서 기업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물의 금액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고받는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2. 팀내 사기진작을 위한 상사의 선물

Q 나윤리 사원은 현재 팀에 근무한지 일 년 쯤 되었다. 이전 부서와는 달리 팀 분위기가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주는 분위기였다. 지난 달 김원칙 부장은 팀원 아들의 생일에 케익이나 사주라며 상품권을 주었다. 이전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의아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나윤리 사원의 생일에 김원칙 부장은 이메일 카드와 장미꽃 한다발을 선물했다. 김원칙 부장은 팀원의 사기를 위해 직원의 생일에 항상 선물을 하곤 한다면서 부담 없이 받으라고 했다. 나윤리 사원은 생일이어서 받은 선물이긴 하지만 윤리규범에 보면 직원 간 선물수수를 하지 말라는 조항을 본 것 같은데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됐다. 혹시 상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사내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A 상사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간소한 선물을 주는 것은 윤리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사의 이메일 카드나 장미꽃 한다발 정도는 직원들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며 화기애애한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임직원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명절, 결혼, 생일, 돌잔치 등 기념일에 제공받는 간소한 선물이나 음식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물론 대가를 바라는 과도한 선물은 사양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나윤리의 경우는 대가를 바란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다.

* 출처 : 윤리경영 100문 100답(대한상공회의소, 2007)의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제 7 호

공정무역

Q 공정무역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과 어떻게 다르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정한 가격을 보장합니다. 즉,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시세대로 거래하지만 시장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저 가격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 가격 이외에도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는 생산자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사회발전 기금인데 주로 사회적 투자나 환경 또는 지역 개발 사업 등에 쓰입니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건강보장 사업, 교육지원 사업, 농업기업 활성화 등의 용도로 이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 융통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생산자를 위해 유통업자들이 구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며, 장기 거래를 보장하여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단호히 금지하며, 고용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과 결사의 자유 및 협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FAIRTRADE Guarantees a better deal for Third World Producers

* 출처 : 한국공정무역연합(http://www.fairtradekorea.net/),
YES 24(http://www.yes24.com/24/goods/7031952?scode=032&OzSrank=1)

Q2 공정무역을 통한 제품으로 생산자와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윤리적 소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거래품은 무엇이고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요?

A 1997년 21개국이 참여한 세계공정무역 상표기구(FLO)가 발족되어 공정무역 제품의 표준, 규격, 생산자 단체 지원, 검열 등의 일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공정무역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무역연합에 따르면 1994년 세계 공정무역 인증 상품은 3종이었으나, 2008년에는 3000여 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고 윤리적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량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무역의 규모는 2004년 8억유로(약 1227억원)에서 2007년 23억 8000유로(약 3조 8066억원)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커피, 초콜릿, 수공예품, 문구, 화장품 등 10종에 이르며, 소비자들이 의식 있는 소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출처 : 인터넷 뉴스(http://www.etnews.com/news/special/2626001_1525.html)

제 8 호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Q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야기할 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부가 할당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무상할당 방식과 유상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무상할당이란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에게 무료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해당업체의 부담이 적어지는 반면, 경기 불황 및 생산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줄어든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할당이란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체의 배출권 구입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배출권 할당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경매 수입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 대상산업에 재투자되므로 산업계의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Q&A(환경부, 2011)에서 인용, 수정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Q 제가 결혼할 때 사온 냉장고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좋을까요?

A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이며, 구입 시 전기냉장고 전면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므로 에너지가 절약되어 경제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 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6&onhunqueSeq=2208)

제 9 호

파견인력의 인권 · 산업재해와 인권

파견인력의 인권

Q 사내 협력업체의 직원들의 건강권까지 원청에서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다. 이는 국내법에도 없는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A 최근 여수산단에서는 화학공장의 대정비보수작업에 투입되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장치산업에서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장치를 소유한 원청사업주가 작업허가나 출입허가까지 발급하고 실질적인 보수공사에 대한 감독까지 수행한다. 그런데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환경측정은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하청회사의 사업주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이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도 모르는 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여수지역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백혈병, 림프종,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대형마트에는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노동조건이나 근무의 방식은 대형마트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으며 마트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똑같이 받고 있다. 하지만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쉬는 마트 직원과는 달리 협력업체 직원들은 매장 후방 창고에 박스종이를 깔고 쉬고 있는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법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건강권 보호에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통념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원청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만큼 하청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필요하다.

▌산업재해와 인권▐

Q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주 다치는 것은 부주의 때문인가?

A '1989년 엑손 발데즈라는 유조선이 암초에 걸려 주변 해안을 원유로 오염시켰다. 그 배의 선장은 사고 당일 저녁부터 술을 먹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여기까지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 더 진행된 조사에서 유조선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이중벽 장치가 되지 않았고, 위험지역 항해를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졌으며, 빙산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원인을 알 수 있게 재해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문서로 남겨라. 이는 산재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한 직원이 근무 중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자. 그 직원의 사망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의 질병력과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는 얼마나 피우는지 등 생활습관은 어떠한지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하였는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 출처 :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인권 경영의 이해(2010), '통합적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Q&A' 에서 발췌 수정

제10호

개인의 윤리 판단

윤리규범의 적용 범위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규범 선포와 관련된 자료를 읽던 중에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자신이 한 행위가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포 이전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윤리경영의식 제고

Q 나윤리 사원은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기업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눈박이 물고기가 사는 곳에는 두눈박이 물고기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윤리경영을 실천하려 한다 해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분위기라면 자신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계약체결이나 각종 금전 지출과 같이 윤리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분야에서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 기업은 윤리적으로 취약한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업무의 매뉴얼과 윤리경영 실천 자가진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어려움 없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문답으로 이해하는 알기 쉬운 윤리경영 100문 100답", 대한상공회의소

웹툰 Yes준법 Ok윤리

• 제 1 호 - 썩은 사과 / 325
• 제 2 호 - 입당원서 / 326
• 제 3 호 - 양심에 털 밀어드릴까요? / 327
• 제 4 호 - 뭐~ 별 일 있겠어! / 328
• 제 5 호 - 싫어요! / 329
• 제 6 호 - 윤리경영 / 330
• 제 7 호 - 노란 선의 기적 / 331
• 제 8 호 - 벌과 꽃 / 332
• 제 9 호 - 행복이 오는 시간 / 333
• 제10호 - 숨 막히는 계단 / 334

제 1 호

Yes 준법! Ok 윤리!

썩은 사과

좋은 사과가
아무리 많아도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사과상자는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한 건의 위법/부당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YOBO

제 2 호

사내에서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KYOBO

제 3 호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KYOBO

제 4 호

회사정보가 담긴 문서는 보안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KYOBO

제 5 호

Yes 준법! Ok 윤리!

싫어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KYO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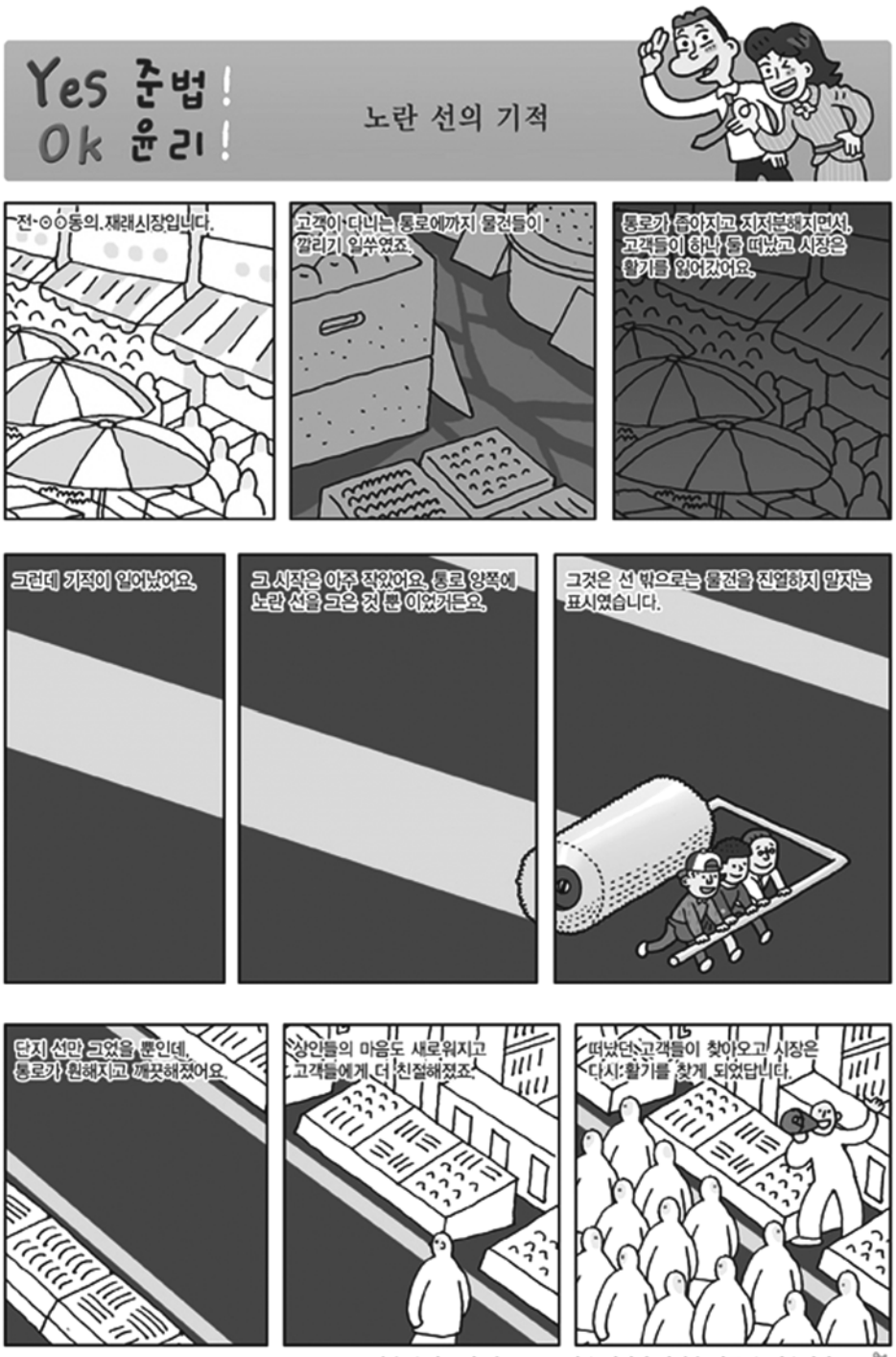
제 6 호

교보인 모두가 자신의 직무에 따르는 성과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KYOBO

제 7 호

Yes 준법! Ok 윤리!

노란 선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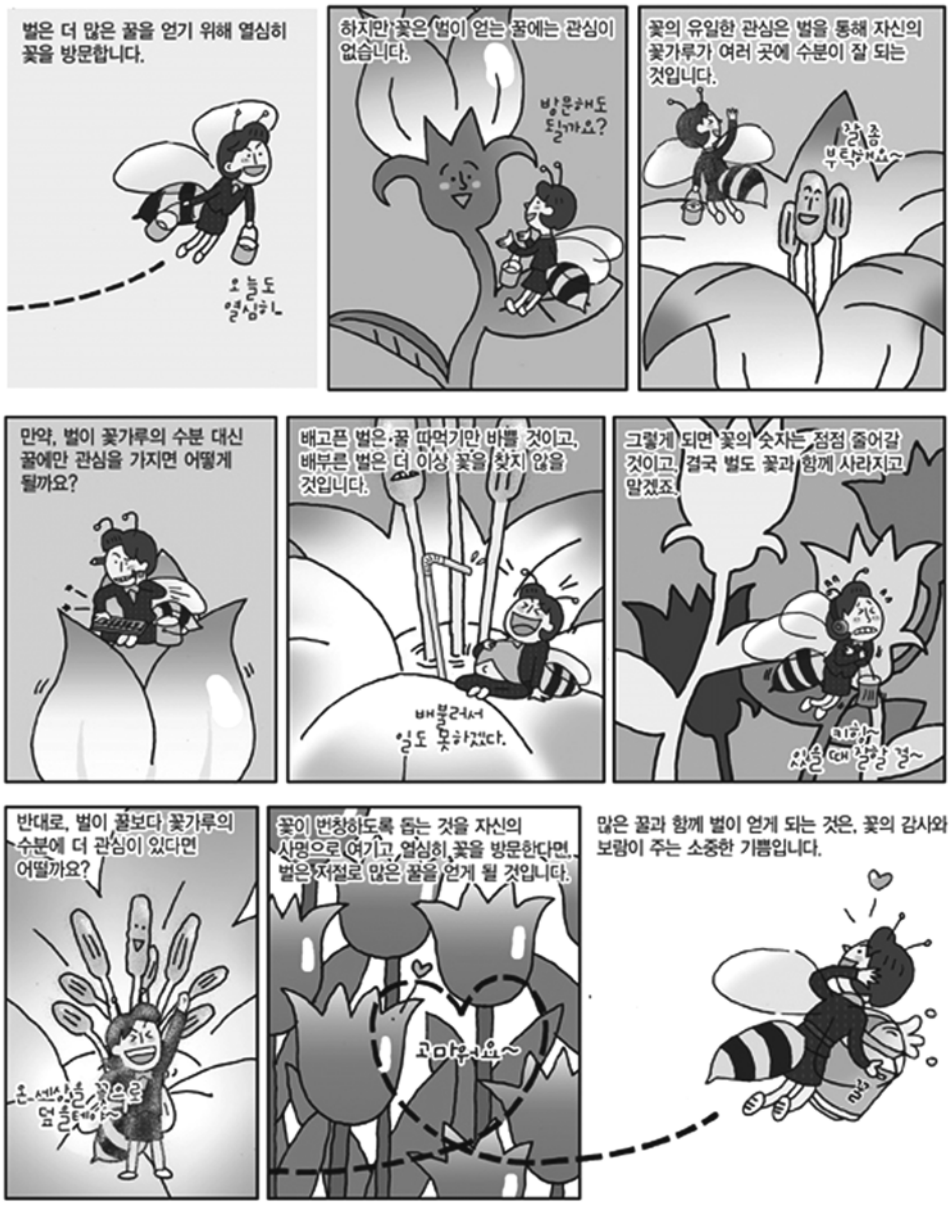


마음 속의 노란 선 두 줄 – 작은 변화가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KYOBO

제 8 호

Yes 준법! Ok 윤리!

벌과 꽃



Attitude and activity are the keys to success. (당신의 태도와 활동량이 성공의 열쇠이다.) KYOBO

제 9 호

Yes 준법! Ok 윤리!

행복이 오는 시간

평소 밀도있는 시간관리를 통해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합시다. KYOBO

제10호

Yes 준법! Ok 윤리!

숨 막히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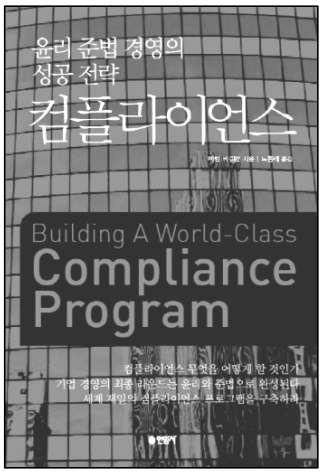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모든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않겠습니다. KYOBO
(직무윤리실천규범 제3장 컨설턴트·임직원에 대한 직무윤리)

신간서적 소개

• 컴플라이언스 / 337
•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 / 338
• 미래 경제와 사회적 기업 / 339
•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 340
• 영속 성장 기업의 비밀 / 341
• 원 리포트 / 342
• 가치관 경영 / 343
• 동반성장의 길을 찾다 / 344
• 스마트 자본주의 5.0 / 345
• 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46
•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 347
• 윤리적 소비 / 348
• CSR 5.0 / 349
• 성장의 정석 CSR / 350
• 혁신의 탄생 / 351
•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정신 / 352
• 기업과 사회 / 353
•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 354
•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 355
•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 / 356
• 착한 소비가 뭐예요? / 357
•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 358
• 착한소비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 359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 / 360
•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 361
• 나눔과 상생의 경제 / 362
• 굿 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 363
• 윤리지능 / 364
•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365

제 1 호

1. 컴플라이언스



저　자 : **마틴 비겔만**

출　판 : **연암사**

출판일 : **2012년 3월 1일**

정가/페이지 : **20,000원/439쪽**

『컴플라이언스』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 관리자가 지속가능한 조직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또한 기업분석과 투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탁월한 안목을 제시한 이 책은 재벌 대기업, 대형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검찰, 경찰, 법원 같은 정부 조직, 그리고 언론의 윤리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 문제를 통찰하게 하고 대안에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

저　자 : 아미타지속가능경제연구소

출　판 : 생각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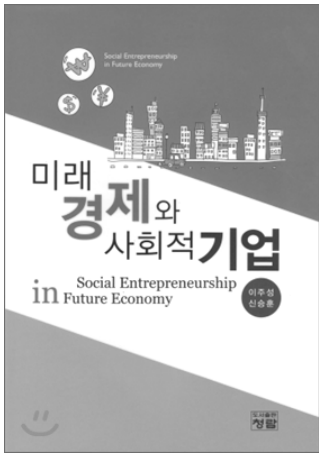
출판일 : 2011년 11월 5일

정가/페이지 : 13,500원/206쪽

지방의 자연자원과 도시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만났다!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실현을 지향하는 환경솔루션 기업, 아미타 홀딩스의 컨설팅부문으로 설립된 아미타지속가능경제연구소가 일본 전역 50개 이상의 지역재생사업의 노하우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미래의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책은, 지방과 도시를 연결해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방법과 실마리를 단계별로 소개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천한다'는 이름으로 지방과 도시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지방과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를 연결해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계획을 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미래 경제와 사회적 기업



저　자 : 이주성, 신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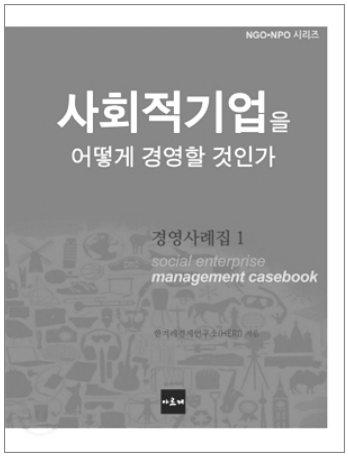
출　판 : 청람출판사(오덕조)

출판일 : 2011년 11월 30일

정가/페이지 : 18,000원/268쪽

사회적 기업에 막 관심을 갖는 젊은 대학생 및 예비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회적 기업의 발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형성과정과 현황, 과학기술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경영,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신 등의 주제를 다루며,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Yes24 제공)

4.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저　자 : 한겨레경제연구소
출　판 : 아르케
출판일 : 2011년 12월 30일
정가/페이지 : 18,000원/278쪽

사회적 기업 9곳의 경영 사례가 전략, 마케팅, 인사·운영, 거버넌스, 리더십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 기업의 미션과 비전, 간병서비스 기업의 핵심사업 강화, 장애인 택배 기업의 사업 경쟁력 분석, 문화예술 기업의 브랜드 전략, 청국장 제조 기업의 시장과 제품 전략, 역사체험학습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전자·전기 폐자재 재활용 기업의 조직 관리, 친환경 청소전문 용역 기업의 거버넌스, 유기농업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정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Yes24 제공)

제 2 호

1. 영속 성장 기업의 비밀

저　자 : 마이클 A. 쿠수마노
출　판 : 21세기북스
출판일 : 2011년 12월
정가/페이지 : 25,000원/512쪽

2010년 도요타자동차는 전 세계적 리콜 사태를 겪었다. 도요타의 화려한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도요타의 신형 차 캠리는 미국 시장에서 최다 판매하고, 미국 보험업계가 뽑은 '2012 가장 안전한 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캠리를 비롯해 코롤라,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등이 안전한 차량으로 선정되었다. 도요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고 계속 리딩 컴퍼니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짝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유전자는 뭐가 특별한 걸까? MIT의 마이클 쿠수마노 교수는 ≪영속 성장 기업의 비밀 6≫을 통해 흔들리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저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밝힌다. 도요타뿐만이 아니다.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도요타 등은 변화와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 리더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는 영속 성장 기업들의 그 이유를 6가지로 압축해, 각 장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기업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Yes24 제공)

2. 원 리포트

저　자 : **로버트 에클스, 마이클 크르저스**

출　판 : **세종서적**

출판일 : **2012년 1월**

정가/페이지 : **14,000원/334쪽**

『원 리포트』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의 실태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왜 지속가능경영을 행함에 있어 원 리포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도표와 수치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통합 보고 형식을 샅샅이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보다 투명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에 대한 고객의 인식, NGO의 선호도까지 분석하여 왜 기업들이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가치관 경영

저　자 : **전성철, 한철환, 조미나**

출　판 : **쌤앤파커스**

출판일 : **2011년 10월**

정가/페이지 : **18,000원/252쪽**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모토로라가 맥없이 무너진 이유, 2000년대 초만 해도 망하기 일보직전이었지만 다시 전성기를 맞이한 제록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업 가치관에 있다. 탄탄한 가치관을 세우고 실천하는 회사는 어떤 위기도 흔들림 없이 헤쳐 나가며 성공가도를 달린다.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가 생겨 모두가 열망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 힘차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IBM, 애플, 월트 디즈니 등 몰락의 위기에 놓였던 기업들도 자신들의 신념과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면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저자들은 '일의 의미'가 사라진 조직은,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곧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책은 그러한 가치관을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가치관 경영'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원리로 제시하며,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비법을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을 일구어 나가는 가치관 경영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Yes24 제공)

제 3 호

1. 동반성장의 길을 찾다

저　자 : **동반성장위원회**

출　판 : **나무와 숲**

출판일 : **2012년 1월**

정가/페이지 : **13,000원/244쪽**

이 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 12월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동반성장 사례들을 묶은 것이다. 개념 위주의 딱딱한 해설집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 보이듯 구체적인 사례들을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기업 관계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 담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 사례들이 널리 알려지면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깊어지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개별 기업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책 말미에는 각 기업의 동반성장 실무자들이 '동반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한 내용을 정리해 놓아 생생한 육성을 들려주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반성장의 길을 찾는 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함께 걸어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Yes24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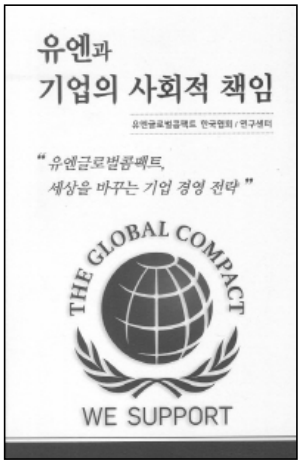
2. 스마트 자본주의 5.0

저　자 : 곽승준, 김기찬 외 3인 지음
출　판 : 나남
출판일 : 2012년 4월
정가/페이지 : 15,000원/312쪽

시장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고용불안, 비정규직 문제 등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보다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리더가 되어 공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축해야 할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생의 토양이 '산업생태계'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바로 '스마트 자본주의 5.0'이다.

하버드대 이안시티 교수에 따르면, 산업생태계란 '다양한 종(기업)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곳이며, 고객, 공급자, 유통업체, 아웃소싱 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메이커, 기술제공 기업 및 여타 조직들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차별성과 감성이 소비의 주요 요인으로 떠오름에 따라 더 이상 단일 기업의 능력으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기업들의 제휴와 협력은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더 이상 나홀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누가 더 건강한 생태계와 플랫폼을 구축하는가로 경쟁하는 시대이다.(알라딘 제공)

3. 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저 자 :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
출 판 : 디프넷
출판일 : 2012년 3월
정가/페이지 : 15,000원/246쪽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구센터의『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과 전략에 인권, 노동, 환경, 그리고 반부패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을 통합시키면서 유엔의 목표를 지지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은 물론, 활동을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잘 적용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기업의 책임성 우선순위를 확인하면서 전략과 운영에 비재무적 이슈를 통합시키도록 돕고 있다.(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제 4 호

1.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저　자 : **조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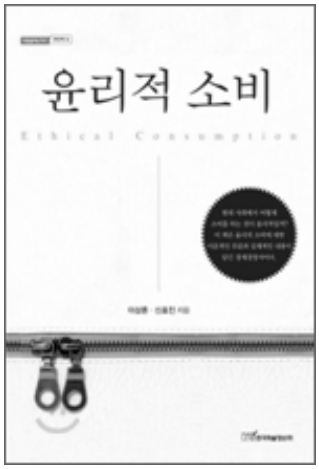
출　판 : **보는소리**

출판일 : **2012년 4월**

정가/페이지 : **15,000원/226쪽**

윤리경영이란 한국의 대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으로 세계 무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략적 경영도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윤리경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정도로 영업을 하는 경영쯤'이라고만 생각하고, 이외에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고 자라며,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것들 모두는 윤리경영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읽고, 윤리경영이 세계를 더 밝게, 더 푸르게, 더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Yes24 제공)

2. 윤리적 소비



저　자 : **이상훈, 신효진**

출　판 : **한국학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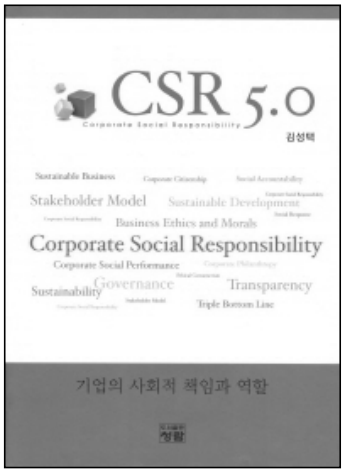
출판일 : **2012년 4월**

정가/페이지 : **24,000원/352쪽**

소비자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행동을 통해 자본 축적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렇듯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을 윤리적 소비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책『윤리적 소비』를 발간하면서 개인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 왔는지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이 아니라, 윤리적 소비의 내용은 무엇이고, 전 세계적인 운동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정리했다. 또한 윤리적 소비에 포함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또한 윤리적 소비의 근본인 소비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돕고자 노력하였다.(Yes24 제공)

3. CSR 5.0



저　자 : **김성택**

출　판 : **청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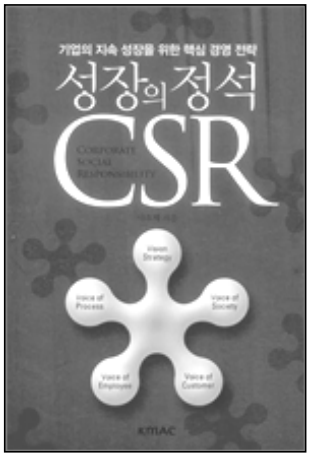
출판일 : **2012년 4월**

정가/페이지 : **23,000원/350쪽**

CSR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해 환경적 ·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여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CSR 5.0』은 CSR의 탄생 배경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CSR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CSR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만들도록 이끌어준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제 5 호

1. 성장의 정석 CSR



저　자 : 이유택

출　판 : KMAC

출판일 : 2012년 5월

정가/페이지 : 15,000원/212쪽

CSR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데다 실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CSR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기업도 많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기 전에 과연 CSR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현재까지의 다른 경영개념과는 달리 CSR은 그 근본적인 철학적 개념과 뿌리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 실행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업에게 CSR을 어떻게 실행하라고 조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론을 복잡하게 논의하는 연구 논문도 아니다. CSR에 대한 연구와 경영 현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조그만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다.(Yes24 제공)

2. 혁신의 탄생

저　자 : **가토 데쓰오**

출　판 : **에이지21**

출판일 : **2012년 6월**

정가/페이지 : **15,000원/328쪽**

이 책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이자,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색다른 지침서다. 사회 혁신의 관점을 '누가'와 '무엇'에서 '어디서'와 '어떻게'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가 발품을 팔아 찾아낸 결론은 혁신의 원천이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안고 사는 이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혁신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무엇'에 절망했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교보문고 제공)

1.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정신

저　자 : **최조순**

출　판 : **이담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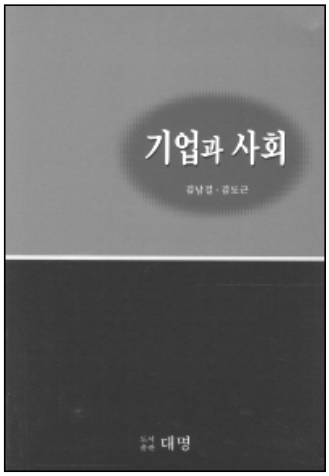
출판일 : **2012년 6월**

정가/페이지 : **19,000원/270쪽**

사회적 기업은 장기적인 실업, 복지수혜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국과 유럽, 미국 등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왔고, 실제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역시 외국과 유사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외국의 사회적 기업과 달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동 환경 여건은 아직 미흡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생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태동부터 운영,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 달성,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형성, 그리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임을 밝혀내고 있다.(Yes24 제공)

2. 기업과 사회



저　자 : **김남걸, 김도근**

출　판 : **대명**

출판일 : **2012년 5월**

정가/페이지 : **12,000원/244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해 고찰한 책이다. 환경오염과 다국적 기업의 윤리경영, 개인윤리, 기업과 사회관계의 모범사례 등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윤리태도와 관련된 사회심리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과 국제적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우리나라의 윤리경영 관련 법규 및 규정,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자에 관련한 법률 등을 제공한다.(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제 7 호

1.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저　자 : 댄 애리얼리 (이경식 옮김)
출　판 : 청림출판
출판일 : 2012년 7월 27일
정　가 : 16000원

우리는 일상에서 자잘한 부정행위를 얼마쯤은 저지르며 산다. 제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해도 하얀 거짓말을 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는 지출 내역을 조금씩 부풀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그런 대로 착한 사람이라 믿으며 이 정도 속임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이런 '착한 사람' 개념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이미지와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저자는 이런 현상을 입증할 다양한 실험 사례와 연구 자료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행동이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이 스스로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핀다. 더불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지 그 요인을 탐구하고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인 부정행위를 통제할 방안을 제시한다.(YES24 제공)

http://www.yes24.com/24/Goods/7317760?Acode=101

2.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저　자 : 코너 우드먼 (홍선영 옮김)
출　판 : 갤리온
출판일 : 2012년 3월 28일
정　가 : 14000원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던 코너 우드먼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의 과정을 역추적하는 여행을 떠난다. 카메룬, 콩고,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을 목숨 걸고 돌아보고 그들의 현실과 대기업의 비윤리성을 있는 그대로 폭로한다. 2000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 깊이 잠수하는 니카라과 어부들, 하루에 아이폰 2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 18시간씩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광석을 캐는 콩고 시민들... 우리 역시 복잡하게 얽힌 경제 관계 속에서 그들의 공범일 수밖에 없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모두 함께 잘사는 방법은 없는 걸까? 방문한 거의 모든 나라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깜짝 놀랄 만한 성공스토리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용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책은 그들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YES24 제공)

http://www.yes24.com/24/Goods/6648627?Acode=101

3.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

저　자 : 이종인

출　판 : 이담북스

출판일 : 2012년 4월 30일

정　가 : 14000원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는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힘이 없는 소비자는 불행하다'라는 컨셉 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일깨워주고 행복한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반약 슈퍼 판매, 전세대란, 재벌문제 등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체제 내에서 소비자가 최대한 자기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한 소비자는 개선의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불만족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교보문고 제공)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26832479&orderClick=LEA&Kc=SETLBkserp1_5

4. 착한 소비가 뭐예요?

저　자 : 서지원, 정우진, 나혜원, 조선학, 박정인
출　판 : 상상의 집
출판일 : 2011년 10월 17일
정　가 : 9800원

물건을 고를 때 우리는 흔히 물건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사게 되며,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 한가지를 더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지구를 망가뜨리면서 만들어진 상품은 아닌지, 물건을 만들어 낸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치가 주어진 제품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한다. 『착한 소비가 뭐예요?』는 착한 소비에 관한 다섯 가지 주제를 담은 책이다. 녹색 소비, 동물 실험 반대, 어린이 노동 반대, 공정 무역, 공정 여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착한 소비'는 물건을 '잘'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데서 시작했다. 나눔을 실천하고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착한 소비를 쉽고 재미있는 동화로 만날 수 있다.(교보문고 제공)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7174010&orderClick=LEA&Kc=SETLBkserp1_5

* 출처 :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YES24)

제 8 호

1.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저　자 : **양세훈**

출　판 : **이담북스**

출판일 : **2012년 9월**

정가/페이지 : **16,000원/304쪽**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중앙부처의 칸막이와 자치단체장의 따로 놀기, 미궁에 빠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자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의 자립심 육성측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시장에서 왜 충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지역공동체복원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용창출의 숫자놀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속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적시하고 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적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착한기업이라는 이미지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Yes24 제공)

2. 착한소비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저　자 : 서정희

출　판 : 내하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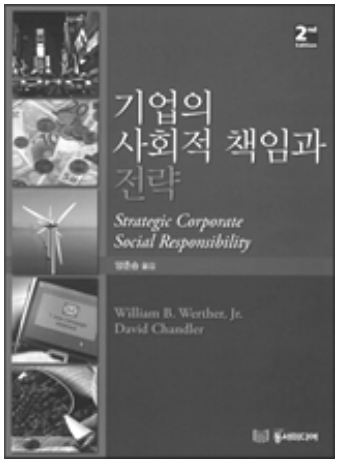
출판일 : 2012년 7월

정가/페이지 : 18,000원/320쪽

학계와 실무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활용전략을 필요로 하는 전문연구자들, 공정무역 단체의 전문가들,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학 분야의 대학원생들, 학부 고학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재다. 공정무역과 소비윤리를 다룬 제 1부, 공정무역 상품의 공급을 다루는 제2부,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제3부로 구성하였다.(Yes24 제공)

제 9 호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



저　자 : William B. Werther, Jr 저/양춘승 역 |

출　판 : 동서미디어

출판일 : 2012년 8월

정가/페이지 : 30,000원/390쪽

CSR의 핵심 이슈를 확인하고, 개념적 틀에 맞춰 이슈들을 모델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조사할 수단과 자료를 제공하는 책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인 CSR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업 전략과, 전략적 맥락의 CSR, CSR의 주요 이슈와 사례 연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Yes24 제공)

2.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저　자 : 김정원,백학영,이문국,전세나,조성은 공저

출　판 : 아르케

출판일 : 2012년 8월

정가/페이지 : 18,000원/189쪽

자활기업의 역사와 의미, 제도적 기반과 그 한계, 운영 실태, 사회적 경제와의 관련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엮어 쓴 책이다. 이론이 아닌 현장 중심에 입각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현재 자활사업 종사자들, 그리고 향후 자활사업의 현장에 뛰어들 예비생들에게 한국의 자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Yes24 제공)

3. 나눔과 상생의 경제

저　자 : **이윤재,강달원,이화진 공저**

출　판 : **탑북수**

출판일 : **2012년 8월**

정가/페이지 : **27,000원/480쪽**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주, 등장배경과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역사적인 변화과정 및 사회적기업의 해외,국내 사례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회기업과 더불어 나타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경제시스템에서 바람직한 길을 모색한다. (Yes24 제공)

제10호

1. 굿 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저　자 : 로리 바시, 에드 프라운헤임, 앤 맥무러, 래리 코스텔로/퓨처 디자이너스 역

출　판 : 틔움

출판일 : 2012년 11월

정가/페이지 : 16,800원/376쪽

경쟁사보다 10배 많은 이익과 매출을 낸다고 해서 위대한 기업이 아니다. 매출과 이윤 확대라는 사명 아래, 직원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소비자를 속여가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다. 위대한 기업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직원과 협력업체를 마치 내 가족과 이웃처럼 돌보고, 기업의 장점은 물론 단점과 약점까지도 소비자에게 솔직하게 밝히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시대 정신은 이미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기업은 착해질 수 밖에 없다. 좋은 고용주, 착한 판매자, 그리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주인이 아닌 선량한 집사(steward)로서 의무를 다하는 착한 회사가 되어야만 위대해 질 수 있으며, 또 그 위대함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에서는 "착한회사지수"를 통해 포춘 100대 기업은 물론 우리 주변의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직원과 소비자의 객관적인 평가, 처벌과 벌금형을 받은 기업 분석 자료, 과도한 경영진 보수 지급 내역, 자선 활동 등 방대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된 "착한회사지수"는 바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행지표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Yes24 제공)

2. 윤리지능

저　자 : 브루스 와인스타인/ 송기동 옮김

출　판 : 다산북스

출판일 : 2012년 5월

정가/페이지 : 14,000원/284쪽

우리는 매순간 크고 작은 질문을 받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런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해주는 가치의 길잡이가 바로 '윤리지능(Ethical Intelligence)'이다.『윤리지능』은 언뜻 보면 개인의 취향이나 상식의 문제로 보이는 상황에 윤리라는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개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윤리계발서로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윤리'라는 덕목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따라서 원칙이 흔들릴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어떻게 살지 답답할 때마다 곁에 두고 보면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또 5가지 원칙을 새기면서 매순간 적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되어, 갈수록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Yes24 제공)

3.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발 행 : 국민권익위원회

출판일 : 2012년 11월

페이지 : 442쪽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윤리경영 이론·실무 지침서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이 책은 ISO2600과 GRI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산표준분류 중 사회적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국내외적 변화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이해를 다루는 제1편, 산업별 윤리경영 모델을 다루는 제2편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다양한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제공한다.

자본주의 4.0 시대,
윤리경영으로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확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국내외 윤리경영 트랜드를 한 눈에…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로 다양한 기업윤리 컨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전직원과 나누어 보세요~

Business Ethics Briefs

www.acrc.go.kr/기업윤리

기업 윤리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배워보세요

다양한 **기업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윤리경영 마인드 확산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교육도 해드려요~

기업 윤리경영!
무엇이 어려운 지 이야기를 나눠요

지역경제단체, 경영자와 함께 **기업 윤리경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논의 합니다.

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도 열어요~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2년 묶음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7층)
Tel : (02) 360-2774
Fax : (02) 360-3532

※ 본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